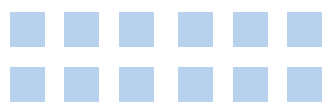


2025년 지역통계 기획보도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기획팀



목 차



1. (경인청) 2025 수도권 광역지표	3
2. (동북청) 대구·경북 안전 현황	13
3. (동북청) 대경권 청년 주거실태 변화 분석	20
4. (동북청)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의료 현황.....	27
5. (동북청) 대구·경북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36
6. (동북청) 과거와 달라진 대구·경북 고령자 특성.....	45
7. (동북청) 최근 10년간 대구·경북·강원의 고용 변화	58
8. (동북청)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64
9. (동북청) 카드데이터로 본 대구·경북 소비형태 분석.....	71
10. (동북청)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	86
11. (강원지청) 통계로 보는 강원도의 어제와 오늘.....	99
12. (강원지청)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114
13. (호남청)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123
14. (호남청)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	134
15. (호남청)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145
16. (호남청)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	158
17. (호남청)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161
18. (호남청)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	171
19. (호남청) 2023년 기준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180
20. (호남청)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	187
21. (호남청)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196
22. (호남청)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206
23. (호남청) 2025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20
24. (동남청) 최근 10년간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	235



CONTENTS

25. (동남청) 2024년 동남권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변화	241
26. (동남청)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249
27. (동남청) 동남권 50+ 인구 일자리의 오늘과 내일	257
28. (동남청)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	264
29. (동남청)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2015년~2024년)	273
30. (동남청) 동남권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	283
31. (동남청) 통계로 보는 동남권 청년의 삶 2025	293
32. (동남청)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현황	302
33. (동남청) 동남권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	309
34. (동남청) 데이터로 본 동남권 이커머스 시장	320
35. (충청청) 최근 10년간 충남지역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	329
36. (충청청)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	338





경 인 청

1. 2025 수도권 광역지표	3
------------------------	---



보도시점 2025. 12. 11.(목) 12:00 배포 2025. 12. 11.(목) 08:30

2025 수도권 광역지표

담당 부서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근 (02-2110-7760)
		담당자	팀 장	김만희 (02-2110-7762)

일 러 두 기

- **경인지방통계청**은 광역 단위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모색을 위해 「수도권 광역지표」를 개발하여 '23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지표***는 **3개 부문**(경쟁력, 발전, 생활) **11개 영역의 총 105개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경쟁력은 수도권과 타 광역권**을 지표별로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 * 지표 체계는 <참고>에 수록
 - ** 광역권 분류는 통계자료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광역경제권 분류 기준에 따라 7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눔
- 각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하고, 작성 연도와 주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역권역 단위로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는 지표마다 산출 방법을 명시하였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광역지표**」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gi>)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록된 통계자료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행정자료 변경(추가 수집, 보완, 갱신 등) 사유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목 차

□ 2025 수도권 광역지표 (요약)	5
□ 2025 수도권 광역지표	9
I. 경쟁력 지표	10
1. 자원	10
2. 역량	12
3. 번영	15
4. 매력	17
II. 발전 지표	20
1. 기초역량과 여건	20
2. 경제적 성과	27
3. 지속가능성	29
III. 생활 지표	31
1. 내면세계	31
2. 개인생활	32
3. 공동생활	44
4. 환경	51
□ 부록	53
1. 수도권 광역지표 개요	53
2. 수도권 광역지표 체계	54

2025 수도권 광역지표 (요약)

I. 경쟁력 지표

◆ 자원

2024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2001년=100)는 전국(109.2)보다 높은 119.1

■ 정의: 2001년 기준, 인구의 증감률

■ 산식: (당해년 전체인구수 ÷ 2001년 전체인구수) × 100

- (인구성장지수) '24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9.1로 전국(109.2) 보다 높으며, 전년대비 0.6 증가함
 - 권역별로는 제주권(127.6), 수도권·충청권(119.1), 강원권(100.1), 동남권(97.5), 대경권(93.5), 호남권(93.3) 순임

◆ 역량

2024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93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정의: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 산식: (특허 출원 건수 ÷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0명

-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24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934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권역별로는 수도권(4,934건), 충청권(4,244건), 대경권(2,659건), 호남권(2,545건), 동남권(1,988건), 강원권(1,886건), 제주권(1,534건) 순임

◆ 번영

2024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3.1%로 전국 62.7%보다 높음

■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산식: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고용률) '24년 수도권 고용률은 63.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함
 - 권역별로는 제주권(69.3%), 충청권(64.0%), 호남권(63.6%), 강원권(63.5%), 수도권(63.1%), 대경권(61.1%), 동남권(59.9%) 순임

◆ 매력

2024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7%로 충청권(0.34%) 다음으로 높음

- 정의: 인구이동 중 전입에서 전출을 뺀 인구
- 산식: $\{(\text{전입인구} - \text{전출인구}) \div \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

- **(인구 순유입률)** '24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17%로 전년 대비 0.01%p 감소함
 - '24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충청권(0.34%), 수도권(0.17%)이며, 인구가 유출된 권역은 제주권(-0.50%), 호남권·동남권(-0.36%), 대경권(-0.26%), 강원권(-0.17%)으로 나타남

II. 발전 지표

◆ 기초역량과 여건

2024년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53.7%로 전국 대비 3.2%p 낮음

- 정의: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산식: $\{\text{주택 소유 가구} \div \text{총가구(일반 가구)}\} \times 100$

-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4년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53.7%로 전국(56.9%)보다 3.2%p 낮으나, 전년(53.5%) 대비 0.2%p 증가함
 - 시도별로는 경기(57.2%), 인천(56.7%), 서울(48.1%)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0.5%p 증가한 반면, 인천(0.3%p)과 서울(0.2%p)은 감소함

◆ 경제적 성과

2025년 수도권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29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4% 증가

- 정의: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
- 산식: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상용 근로자 초과급여

- **(월평균 임금)** '25년 수도권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9만 원으로 전국(409만 원)보다 20만 원이 더 많으며, 전년(415만 원) 대비 3.4%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455만 원), 경기(420만 원), 인천(389만 원) 순이며, 전년 대비 인천은 4.3%, 경기는 4.0%, 서울은 2.7% 모두 증가함

◆ 지속가능성

2024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17.9\mu\text{g}/\text{m}^3$ 로 2023년 대비 13.1% 감소

- 정의: 도심(거주)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입자크기 $2.5\mu\text{g}$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
- 산식: $\sum \text{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div 12$

-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4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17.9\mu\text{g}/\text{m}^3$ 로 전국($15.8\mu\text{g}/\text{m}^3$)보다 $2.1\mu\text{g}/\text{m}^3$ 높으나, 전년 대비 13.1% 감소함
- 시도별로는 인천($18.8\mu\text{g}/\text{m}^3$), 경기($17.7\mu\text{g}/\text{m}^3$), 서울($17.6\mu\text{g}/\text{m}^3$)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14.1%, 인천은 13.0%, 서울은 10.7% 모두 감소함

Ⅲ. 생활 지표

◆ 내면세계

2024년 수도권 주민의 38.7%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23년 대비 2.6%p 감소

- 정의: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 ÷ 전체 응답자) × 100

- (삶의 만족도) '24년 수도권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38.7%로 전국(40.1%)보다 1.4%p 낮으며, 전년(41.3%) 대비 2.6%p 감소함
- 시도별로는 서울(46.3%), 경기(35.7%), 인천(28.0%)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4.5%p 증가한 반면, 인천은 11.8%p, 경기는 5.6%p 감소함

◆ 개인생활

2024년 수도권 주민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3시간

- 정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산식: 1년 중 평일 근로시간 외 여가시간의 평균

- (1일 평균 여가시간) '24년 수도권 주민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은 3.3시간으로 전국(3.7시간)보다 0.4시간 적으며, 전년 대비 0.1시간 감소함
- 시도별로는 인천(3.5시간), 경기(3.4시간), 서울(3.2시간) 순이며, 전년 대비 경기는 0.1시간 증가한 반면, 인천은 0.4시간 감소, 서울은 전년과 동일함

◆ 공동생활

2024년 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3년 대비 0.4%p 증가한 20.3%

■ 정의: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 산식: $(65\text{세 이상 1인 가구} \div 6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 **(독거노인 비율)** '24년 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0.3%로 전국(22.9%)보다 2.6%p 낮으나, 전년 대비 0.4%p 증가함
 - 시도별로는 인천(21.5%), 서울(20.3%), 경기(20.0%)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 인천, 경기 모두 0.4%p 증가함

◆ 환경

2024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1.1건

■ 정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 산식: $(\text{범죄 발생 건수} \div \text{주민등록인구}) \times 1,000$

-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24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1.1건으로 전국(30.9건)보다 0.2건 많으며, 전년 대비 8.7% 증가함
 - 시도별로는 서울(32.4건), 인천(30.6건), 경기(30.3건) 순이며, 전년 대비 서울은 9.8%, 경기는 9.4%, 인천은 4.4%로 모두 증가함

동북청

2. 대구 · 경북 안전 현황	13
3. 대경권 청년 주거실태 변화 분석	20
4. 통계로 보는 대구 · 경북 의료 현황	27
5. 대구 · 경북 일 · 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36
6. 과거와 달라진 대구 · 경북 고령자 특성	45
7. 최근 10년간 대구 · 경북 · 강원 의 고용 변화	58
8. 대구 · 경북 청년층 혼인 · 출산 분석	64
9. 카드데이터로 본 대구 · 경북 소비형태 분석	71
10.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	86





보도시점 2025. 3. 26.(수) 12:00 배포 2025. 3. 26.(수) 9:00

대구·경북 안전 현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 각종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력 향상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영선)은 국민안전의 날(4.16.)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재난안전 중심의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영역의 12개 지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브리프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붙임】 (데이터브리프 2025) 대구·경북 안전 현황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박슬기 (053-609-6668)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대구경북 지역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한국의 안전 보고서(국가통계연구원)」의 안전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유의사항

- 활용자료, 통계표, 용어 정의 및 측정방법 등은 부록에 수록됨
- 지표별 출처가 다양하고 활용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작성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I . 안전 배경(위해 · 환경요인)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4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대구(24.6%), 경북(27.6%) 모두 '22년 대비 감소

■ 지표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

□ '24년 대구와 경북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24.6%, 27.6%로 모두 '22년(30.1%, 32.4%) 대비 각각 5.5%p, 4.8%p 감소함

○ 대구, 경북 모두 '14년(8.3%, 15.1%) 대비 각각 16.3%p, 12.5%p 증가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4-2024)】

(단위: %)



2.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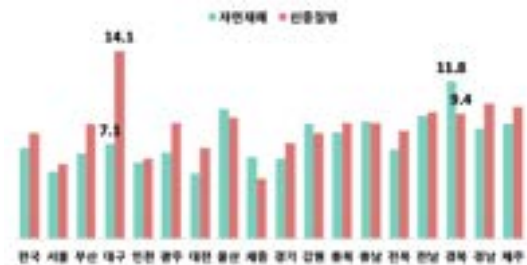
'24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항목 중 신종질병은 대구(14.1%)에서, 자연재해는 경북(11.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표정의: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

□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10개 항목) 중 '신종질병'은 대구(14.1%)에서, '자연재해'는 경북(11.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2024)】

(단위: %)



3. 위험기상일수

'24년 대구·경북 지역 폭염일수(33.9일)는 평년보다 증가, 한파일수(0.8일)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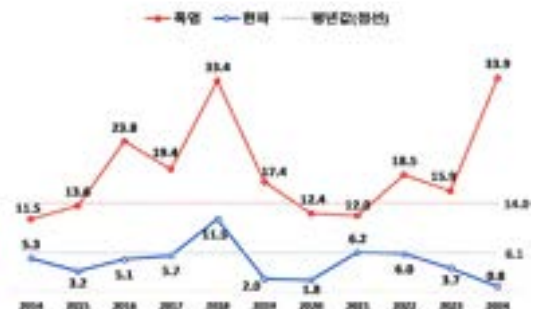
■ 지표정의: 기후요소가 평년값 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상기후를 보인 폭염·열대야·한파일수

□ '24년 대구·경북 지역* 폭염일수는 33.9일로 평년** (14.0일) 대비 19.9일 증가함

□ 한파일수는 0.8일로 평년(6.1일) 대비 5.3일 감소함

【위험기상일수(2014-2024)】

(단위: 일)



* 울진, 안동, 포항, 대구,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11개 지점 평균

** 평년값(1991~2020년)은 폭염 14.0일, 한파 6.1일임

II. 안전 현황[취약요인 및 피해·영향]

4. 고령자 1인 가구 수 및 비율

'24년 고령자 1인 가구 수 및 비율은 대구(110천 가구, 23.4%)와 경북(165천 가구, 25.6%) 모두 증가 추세

■ 지표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가구 수 및 비율

- '24년 대구와 경북의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각각 110천 가구, 165천 가구이며 비율은 23.4%, 25.6%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구, 경북 모두 '14년(18.5%, 24.0%) 대비 각각 4.9%p, 1.6%p 증가함

【고령자 1인 가구 수 및 비율(2014-2024)】

(단위: 천 가구, %)



5. 노후주택비율

'23년 노후주택비율은 대구(26.5%)와 경북(35.7%) 모두 증가 추세

■ 지표정의: 전체 주택 수 대비 30년 이상 주택 수 비율

- '23년 대구와 경북의 노후주택 비율은 각각 26.5%, 35.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구, 경북 모두 '15년(15.8%, 27.3%) 대비 각각 10.7%p, 8.4%p 증가함

【노후주택비율(2015-2023)】

(단위: %)



6.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

'23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은 대구(28개소)와 경북(472개소) 모두 증가 추세

■ 지표정의: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 '23년 대구와 경북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은 각각 28개소, 47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구, 경북 모두 '15년(18개소, 314개소) 대비 각각 55.6%, 50.3% 증가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현황(2015-2023)】

(단위: 개소)



7.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23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대구(252,675건), 경북(257,578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지표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 환자 수

- '23년 대구와 경북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각각 252,675건, 257,578건으로 전년(1,249,249건, 1,314,586건) 대비 각각 79.8%, 80.4% 감소함

-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3년 대구 4,338건, 경북 3,806건으로 전년(3,559건, 3,195건) 대비 각각 21.9%, 19.1% 증가함

【법정감염병 발생건수(2013-2023)】

(단위: 건)



8. 자연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

'23년 대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89명, 107.6억 원)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 경북(1,226명, 3,653.4억 원)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 피해액은 전년 대비 증가

■ 지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이재민 수 및 피해액

- '23년 대구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7명, 이재민 82명이며 피해액은 1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피해액 원인은 태풍(105.4억 원), 냉해·동해(1.3억 원), 호우(0.8억 원) 순임
- 연평균('13~'23년) 인명피해(사망·실종)는 3.2명, 피해액은 17.7억 원임

【대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2013-2023)】

(단위:명)



- '23년 경북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3명, 이재민 1,223명이며 피해액은 3,653.4억 원으로 피해액은 전년 대비 증가

- 피해액 원인은 호우(2,929.7억 원), 냉해·동해(536.5억 원), 태풍(168.3억 원) 등의 순임
- 연평균('13~'23년) 인명피해(사망·실종)는 9명, 피해액은 918.3억 원임

【경북 자연재난 인명피해 및 피해액(2013-2023)】

(단위:명)



Ⅲ. 안전 대응(대응역량)

9. 경찰관 · 소방관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23년 경찰관 · 소방관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대구, 경북 모두 감소 추세

■ 지표정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119 구조 및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주민의 수

□ ‘23년 대구의 안전 대응인력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찰관 402명, 소방관 797명, 구조·구급대원 2,814명임

○ ‘13년(496명, 1,260명, 5,147명) 대비 각각 19.0%, 36.7%, 45.3% 감소하여 대응 능력이 개선되는 추세

【대구 안전대응인력 1인당 담당 주민수(2013-2023)】

(단위: 명)



□ ‘23년 경북의 안전 대응인력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찰관 366명, 소방관 465명, 구조·구급대원 1,539명임

○ ‘13년(477명, 890명, 2,774명) 대비 각각 23.3%, 47.8%, 44.5% 감소하여 대응 능력이 개선되는 추세

【경북 안전대응인력 1인당 담당 주민수(2013-2023)】

(단위: 명)



10. 의료기관 병상 수

‘23년 의료기관 병상 수는 대구(17.1개), 경북(16.6개)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지표정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상 수

□ ‘23년 대구와 경북의 의료기관 병상 수는 각각 인구 천 명당 17.1개, 16.6개로 전년 대비 각각 0.3개(-1.7%), 0.2개(-1.2%) 감소함

○ 대구, 경북 모두 ‘13년(13.6개, 14.5개) 대비 각각 3.5개(25.7%), 2.1개(14.5%) 증가함

【의료기관 병상 수(2013-2023)】

(단위: 개/천 명)



1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대구(38.3%), 경북(42.1%)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지표정의: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24년 대구와 경북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8.3%, 42.1%로 전년 대비 각각 3.0%p, 1.0%p 감소함
- 대구, 경북 모두 '15년(34.9%, 33.8%) 대비 각각 3.4%p, 8.3%p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40.5% 40.7%) 대비 대구는 22%p 감소, 경북은 1.4%p 증가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2015~2024)】

(단위: %)



12. 응급의료시설 접근현황

'23년 응급의료시설 30분 이내 도달인구 비중은 대구 98.5%, 경북 78.5%임

■ 지표정의: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로 이동시간이 기준시간(5분/10분/30분) 이내의 해당 인구수 및 비중

- '23년 대구의 응급의료시설 30분 이내 도달인구 비중은 98.5%임
- 5분 이내 및 10분 이내 도달인구 비중은 각각 22.5%, 67.0%임

【대구 응급의료시설 접근현황(2023)】

(단위: %)



- '23년 경북의 응급의료시설 30분 이내 도달인구 비중은 78.5%임
- 5분 이내 및 10분 이내 도달인구 비중은 각각 10.3%, 31.8%임

【경북 응급의료시설 접근현황(2023)】

(단위: %)



보도시점 2025. 4. 29.(화) 12:00 배포 2025. 4. 29.(화) 9:00

대경권 청년 주거실태 변화 분석

(2018, 2023년)

【붙임】 대경권 청년 주거실태 변화 분석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지역통계과	담당자	주무관	김동은 (053-609-6656)

대경권 청년 주거실태 변화 분석

[2018, 2023년]

2025. 4.



동북지방통계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이 보도자료는 대구·경북 청년의 주거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청년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DB, 청년통계등록부, 주거실태조사 MD를 활용하여 가구주 나이가 만 19~39세인 청년*(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현황 및 의식의 5년간의 변화를 분석 (2018, 2023년)
 - * 대구, 경북 청년기본조례 기준 연령 / 주거실태조사는 세는나이 기준
 -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부 수치의 경우 표본오차가 클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수치의 절대적인 값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참고 (일부 항목은 대경권만 분석)
 - * '23년 기준 전체 61,260가구 중 대구 3,659가구(청년 472가구), 경북 3,554가구(청년 361가구)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 활용자료 현황 >

자료명	기준시점	관련 항목	작성기관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DB	11.1.	주택소유 현황, 주택소유 청년 특성	통계청
청년통계등록부	11.1.	주택소유 청년 가구특성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MD	항목별 상이	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수준 및 만족도 등	국토교통부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주요 항목 작성 기준
 - (생애단계) 청년층(19~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이상)
 - ※ (만나이)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DB, 청년통계등록부 / (세는나이) 주거실태조사
 - (주택소유) 주택소유는 가구주(개인) 기준 ※ 점유형태는 가구 기준

일 러 두 기

- (가구특성) '배우자있음'은 '부모동거' 및 '1인가구'와 중복될 수 있음
- (취업자) 행정자료(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에서 파악된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 기준 및 포괄범위가 다름에 유의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

구분	설명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근로자
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대표자나 사업자로 신고된 자

- (소득)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DB의 소득은 주된 일자리 기준 소득,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
- (점유형태) 사글세·연세·일세는 월세에 포함
- (임차가구) 전세,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주거면적)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전세제도 등

□ 자료 이용시 유의 사항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성값(주택가격, 임대료, 소득 등) 중 하나라도 결측인 경우, 해당 특성별 집계에서는 제외

- 이 보도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db>)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소식 > 보도자료 > 기획보도자료

목 차

☐ 요약	1
☐ 작성 결과	
I. 주거 안정성	
1. 주택소유 현황	2
2. 주택소유 청년 특성	3
3. 점유형태	7
4. 임차가구 불안감	8
II. 주거비 부담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자가가구 PIR)	9
2.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10
3.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11
4.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12
5.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	13
III. 주거수준 및 만족도	
1. 1인당 주거면적	14
2. 원룸 비율	15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6
4.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17
IV.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	
1. 평균 거주기간 및 주거이동률	18
2. 주요 이사이유	19
3. 주택 보유의식	21
V.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1.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22
2. 공공임대 거주 및 만족도	24
☐ 부록 (용어정의)	25

대경권 청년의 주거실태 변화(요약)

1. 주거 안정성

- (주택소유) '23년 대경권 청년가구주의 주택소유 비율(23.2%)은 5년 전(28.5%)보다 5.3%p 감소, 수도권(19.9%)보다 3.3%p 높음
- (임차가구 불안) '23년 대경권 청년가구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15.1%로 가장 높고, 5년 전(7.8%)보다 7.3%p 증가

2. 주거비 부담

- (자가가구 PIR) '23년 대경권 청년가구의 PIR은 5.3배로 5년 전(5.1배)보다 증가, 전국(6.1배)에 비해 대구(6.3배)는 높고, 경북(4.9배)은 낮음
- (상환 부담) '23년 대경권 청년가구 중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 느끼는 가구는 78.1%로 5년 전(87.8%)보다 9.7%p 감소, 수도권(86.4%)보다 8.3%p 낮음

3.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23년 대경권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8%로 5년 전(7.5%)보다 5.7%p 감소, 수도권(7.1%)보다 5.3%p 낮음
-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23년 대경권 청년가구의 주택 만족도(90.8%)는 수도권(88.5%)보다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83.5%)는 수도권(87.5%)보다 낮음

4.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주거이동률) '23년 대경권 청년가구 주거이동률은 65.8%로 5년 전(74.2%)보다 8.4%p 감소, 수도권(70.2%)보다 4.4%p 낮음
- (주택보유의식) '23년 대경권 청년가구 중 주택을 꼭 보유해야 한다는 비율은 74.3%로 5년 전(68.9%)보다 5.4%p 증가, 수도권(79.9%)보다 5.6%p 낮음

5.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지원 프로그램) '23년 대경권 청년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46.4%로 5년 전(26.2%)보다 20.2%p 증가, 수도권(69.8%)보다 23.4%p 낮음
- (공공임대) '23년 대경권 청년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6.5%, 만족도는 83.6%로 수도권보다 거주 비율은 2.2%p 높고, 만족도는 14.6%p 낮음

보도시점 2025. 6. 24.(화) 12:00 배포 2025. 6. 24.(화) 09:00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의료 현황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김철용 (053-609-6657)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대구·경북의 의료서비스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각 기관의 의료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활용자료 현황>

자료명	기준시점	관련 항목	작성연도
사망원인통계	12.31.	사망원인별 사망률	2019-2023
건강보험통계	12.31.	의료기관 수, 의사 및 간호사 수	2020-2024
지역별의료이용통계	12.31.	주요 질환별 진료인원 및 진료비 관내·외 의료기관 이용률	2019-2023
공공의료기관현황	12.31.	공공의료기관 비중	2019-2023
응급의료통계연보	12.31.	응급실 이용현황,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시간	2019-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5.15.	주관적 건강인지율, 연간 미충족의료율	2020-2024
사회조사	5.15.	의료서비스 만족도, 불만족 이유	2020-2024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예정임

목 차

□ 요약	1
□ 작성결과	
I. 인구현황	
1. 총인구	5
2. 사망원인별 사망률	6
II. 의료자원	
1. 의료기관 수	7
2. 표시 과목별 의원 수	9
3. 병상 수	10
4. 의사 및 간호사 수	12
III. 의료이용	
1. 주요 암질환 진료 현황	14
2.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	18
3. 관내 의료기관 이용 현황	22
IV. 공공·응급의료	
1. 공공의료기관 수	24
2. 공공의료기관 의사 및 간호사 수	25
3. 응급의료기관 수	26
4. 응급의료기관 근무인력	27
5. 응급실 이용자 현황	28
6. 응급실 지역 내 이용	29
7.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30

V. 의료인식

1. 주관적 건강인지율	31
2. 연간 미충족의료율	32
3. 의료서비스 만족도	33

VI. 시군구별 주요 지표 비교

1. 대구광역시	34
2. 경상북도	36

□ 부록	40
------------	----

요약

1. 의료자원

'24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대구 1.76개, 경북 1.34개임

- '24년 전국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1.53개이며 대구 1.76개, 경북 1.34개임

- 대구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중구(4.83개), 수성구(2.16개), 남구(1.92개) 순임
- 경북은 영덕군(1.84개), 청도군(1.70개), 청송군(1.69개) 순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 상위 5개 시군구(2024)】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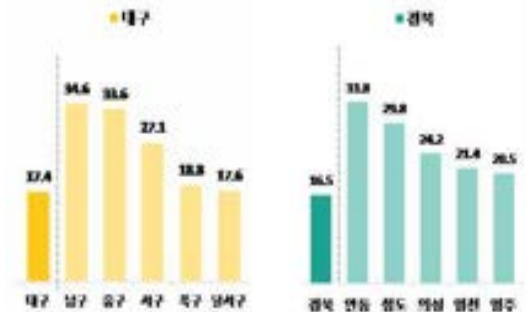
'24년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대구 17.4개, 경북 16.5개임

- '24년 전국의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13.8개이며 대구 17.4개, 경북 16.5개임

- 대구의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남구(34.6개), 중구(33.6개), 서구(27.1개) 순임
- 경북은 안동시(33.8개), 청도군(29.8개), 의성군(24.2개) 순임

【인구 천명당 병상 수 상위 5개 시군구(2024)】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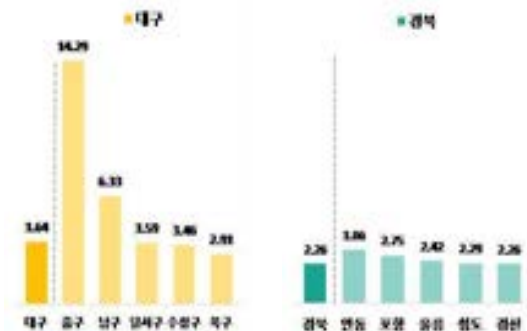
'24년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대구 3.64명, 경북 2.26명임

- '24년 전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3.16명이며 대구 3.64명, 경북 2.26명임

- 대구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중구(14.29명), 남구(6.33명), 달서구(3.59명) 순임
- 경북은 안동시(3.06명), 포항시(2.75명), 울릉군(2.42명) 순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상위 5개 시군구(2024)】

(단위: 명)



2. 의료이용

'23년 4대 암의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은 위암, 대장암, 폐암 순임

- 대구·경북지역 4대 암(위·간·폐·대장)의 '23년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은 위암(320명^{대구}, 400명^{경북}), 대장암(311명^{대구}, 364명^{경북}), 폐암(265명^{대구}, 313명^{경북}) 순임
- '19년 대비 진료인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암은 대구, 경북 모두 폐암(32.5%^{대구}, 26.7%^{경북})임

【인구 십만명당 4대 암 진료인원(2019, 2023)】

(단위: 명)



'23년 주요 만성질환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은 치주질환이 가장 많음

- 대구·경북지역 주요 만성질환의 '23년 인구 십만명당 진료인원은 치주질환(43천명^{대구}, 40천명^{경북})이 가장 많음
- '19년 대비 진료인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만성질환은 대구, 경북 모두 당뇨(22.6%^{대구}, 20.4%^{경북})임

【인구 십만명당 주요 만성질환 진료인원(2019, 2023)】

(단위: 천명)



'23년 관내(환자거주지 시군구 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대구 58.6%, 경북 66.3%임

- '23년 대구·경북지역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대구 58.6%, 경북 66.3%로 '19년 대비 대구는 0.4%p 증가, 경북은 0.7%p 감소함
- 대구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달서구(65.5%), 북구(63.6%), 수성구(60.3%) 순임
- 경북은 안동시(82.7%), 구미시(81.7%), 영주시(76.0%) 순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 상위 5개 시군구(2023)】

(단위: %)



3. 공공·응급의료

'23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대구 3.9%, 경북 10.7%임

- '23년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의 비중은 대구 3.9%(9개), 경북은 10.7%(24개)를 차지함
- 병상수의 경우, '23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대구 10.0%(3,747개), 경북 11.4%(4,578개)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2023)】

(단위: %)



'23년 응급환자의 지역 내 응급실 이용 비율은 대구 89.0%, 경북 74.8%임

- '23년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응급환자의 지역 내 소재 응급실 이용 비율은 대구 89.0%(170천건), 경북 74.8%(230천건)임
- 대구 거주자의 타 시도 응급실 이용은 경기(41%, 7,745건), 경북(24%, 4,537건), 서울(1.9%, 3,618건) 순이고, 경북은 대구(16.3%, 50,113건), 서울(26%, 7,951건), 울산(1.8%, 5,389건) 순임

【지역 내 응급실 이용 비율(2023)】

(단위: %)



'23년 응급환자 발병 후 2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은 대구 27.0%, 경북 36.7%임

- '23년 대구·경북지역 응급실 이용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2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 27.0%, 경북 36.7%임
- 심근경색 발병 후 2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 30.4%, 경북 39.1%임
- 중증외상 발병 후 1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 23.6%, 경북 39.9%임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대별 비율(2023)】

(단위: %)



4. 의료인식

'24년 평소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54.1%, 경북 46.5%임

- '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대구 54.1%, 경북 46.5%로 '20년 대비 대구 3.6%p, 경북 5.7%p 각각 감소함
- 대구는 수성구(65.8%), 중구(60.4%), 북구(55.5%) 순, 경북은 예천군(57.1%), 의성군(56.9%), 영덕군(56.7%) 순으로 높음

【연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20-2024)】

(단위: %)



'24년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대구 3.8%, 경북 4.7%임

- '24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대구 3.8%, 경북 4.7%로 '20년 대비 대구 0.3%p, 경북 2.6%p 각각 감소함
- 대구는 북구(7.4%), 중구(6.9%), 동구(3.9%) 순, 경북은 청송군(12.1%), 성주군(10.2%), 영천시(9.9%) 순으로 높음

【연도별 연간 미충족 의료율(2020-2024)】

(단위: %)



'24년 대구·경북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대구 69.2%, 경북 60.3%임

- '24년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 비율은 대구 69.2%, 경북 60.3%로 '20년 대비 대구 8.8%p, 경북 1.1%p 각각 증가함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대해 대구는 불친절(22.8%), 비싼 의료비(21.8%), 치료결과 미흡(21.1%) 순이고, 경북은 긴 대기시간(29.6%), 치료결과 미흡(18.1%), 불친절(13.5%) 순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2024)】

(단위: %)



보도시점 2025. 9. 11.(목) 12:00 배포 2025. 9. 11.(목) 09:00

대구·경북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박슬기 (053-609-6668)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대구·경북의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각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활용자료 현황>

자료명	관련 항목	작성연도	작성기관
인구총조사(전수)	세대별 가구 구성 자녀수별 가구	2015, 2024 2016, 202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경력단절여성	2015, 2024 2014, 2024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관계만족도, 가사 분담 실태 등 근로여건만족도,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2014, 2024 2013, 20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	2014, 2024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육아휴직 사용률	2015, 2023p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가사노동 시간	2014, 2024	통계청
가족실태조사	가사수행 및 가족생활 분담, 자녀 돌봄 분담, 지원서비스 필요내용 등	2023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일·가정 양립 필요내용	2023	고용노동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 충분도	2014, 2024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예정임

목 차

□ 작성 결과

1. 세대별 가구 구성	5
2. 맞벌이 가구	6
3. 자녀수별 가구	7
4. 경제활동참가율	8
5. 경력단절여성	9

1. 근로 여건 만족도	10
2. 육아휴직 사용률	11
3. 여가활동 시간	12
4. 여가시간 충분도	13
5.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14

1. 가족관계만족도	15
2. 가사 분담 실태	16
3. 가사노동 시간	17
4. 가사수행 및 가족생활 분담	18
5. 자녀돌봄 분담	19

IV. 일·가정 양립 및 가정 내 역할 인식

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1
2.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	22
3.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3

V. 지원서비스 인식

1.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24
2.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	25
3. 일·가정양립 필요내용	26

☐ 부록	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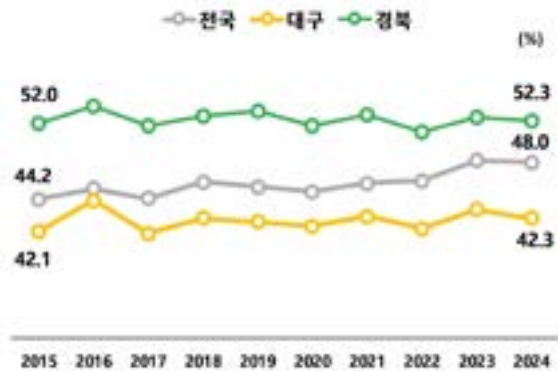
요약

1. 가족 및 노동환경 변화

'24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대구 42.3%, 경북 52.3% (전국 48.0%)

- '24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대구 42.3%, 경북 52.3%로 '15년 대비 각각 0.2%p, 0.3%p 증가함
- 전국(48.0%) 대비 대구는 5.7%p 낮고, 경북은 4.3%p 높음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2015-2024)】



'24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대구 51.3%, 경북 57.2% (전국 56.3%)

- '24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대구 51.3%, 경북 57.2%로 '14년 대비 각각 0.5%p, 3.4%p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대구 69.3%, 경북 74.1%로 '14년 대비 각각 2.6%p, 2.7%p 감소함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4, 2024)】



'24년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대구 18.9%, 경북 16.8% (전국 15.9%)

- '24년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대구 18.9%, 경북 16.8%로 '14년 대비 각각 4.9%p, 4.3%p 감소함
- 전국(15.9%) 대비 대구는 3.0%p, 경북은 0.9%p 높음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2014-2024)】



2. 일·가정 양립 실태

'23년 부(父)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6.5%, 경북 7.2% (전국 7.4%)

- '23년 부(父)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6.5%, 경북 7.2%로 '15년 대비 각각 5.9%p, 6.7%p 증가함
- '23년 모(母)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구 73.6%, 경북 74.0%로 '15년 대비 각각 15.7%p, 14.9%p 증가함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2015, 2023p)】



'24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구 20분, 경북 12분 많음 (전국 16분)

- '24년 대구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남성(5시간 40분)이 여성(5시간 20분)보다 20분 많음
- '24년 경북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남성(5시간 20분)이 여성(5시간 8분)보다 12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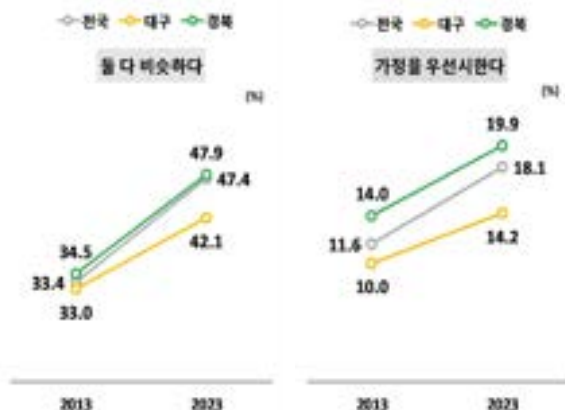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2024)】



'23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구 42.1%, 경북 47.9% (전국 47.4%)

- '23년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구 42.1%, 경북 47.9%로 '13년 대비 각각 9.1%p, 13.4%p 증가함
-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비율은 대구 14.2%, 경북 19.9%로 '13년 대비 각각 4.2%p, 5.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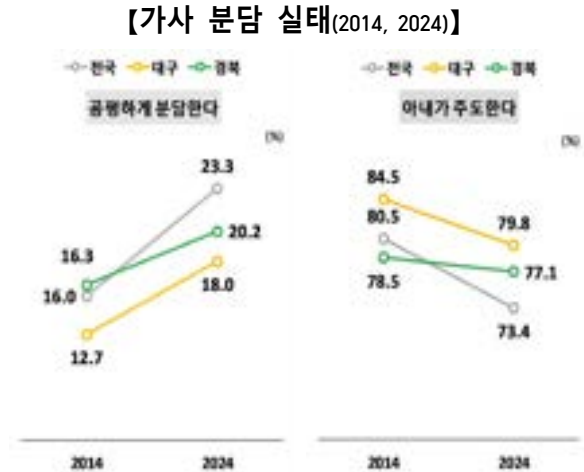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013, 2023)】



3. 가사노동 실태

'24년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아내 응답)은 대구 18.0%, 경북 20.2% (전국 23.3%)

- '24년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아내 응답)은 대구 18.0%, 경북 20.2%로 '14년 대비 각각 5.3%p, 3.9%p 증가함
- 실제로 가사를 아내가 주도하는 비율(아내 응답)은 대구 79.8%, 경북 77.1%로 '14년 대비 각각 4.7%p, 1.4%p 감소함



'24년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구 1시간 52분, 경북 2시간 1분 많음 (전국 1시간 47분)

- '24년 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2시간 51분)이 남성(59분)보다 1시간 52분 많음
- '24년 경북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3시간 1분)이 남성(1시간)보다 2시간 1분 많음



'23년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영역에서 아내가 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 '23년 대구·경북의 4개 영역별 가사수행 중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은 아내가 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친척 교제는 똑같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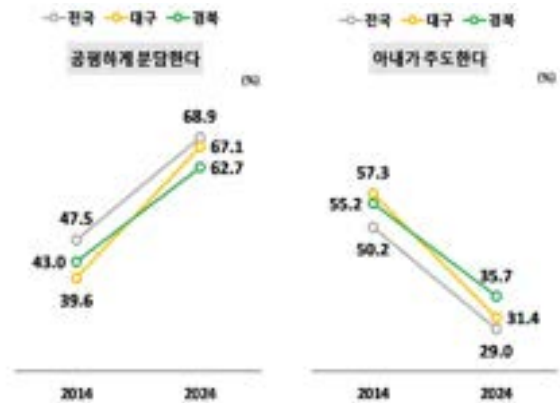


4. 일·가정 양립 및 가정 내 역할 인식

'24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67.1%, 경북 62.7% (전국 68.9%)

- '24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67.1%, 경북 62.7%로 '14년 대비 각각 27.5%p, 19.7%p 증가함
- 가사를 아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5.7%로 '14년 대비 각각 25.9%p, 19.5%p 감소함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14, 2024)】



'23년 여성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는 대구 58.6%, 경북 44.5% (전국 55.4%)

- '23년 대구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는 남성(73.2%)이 여성(58.6%)보다 14.6%p 높음
- '23년 경북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는 남성(78.6%)이 여성(44.5%)보다 34.1%p 높음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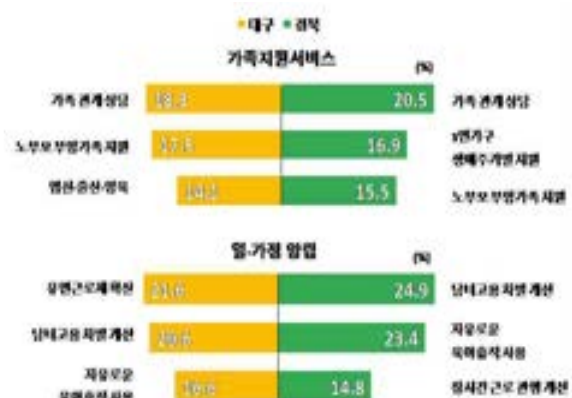


5. 지원서비스 인식

'23년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은 가족관계 상담이 대구 18.3%, 경북 20.5%로 가장 높음

- '23년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은 가족 관계 상담(부부, 부모-자녀 등)이 대구 18.3%, 경북 20.5%로 가장 높음
- '23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내용은 대구는 유연근로제 확산(21.6%), 경북은 남녀고용 차별 개선(24.9%)이 가장 높음

【지원서비스 필요내용(2023)】



보도시점 2025. 10. 1.(수) 12:00 배포 2025. 10. 1.(수) 09:00

과거와 달라진 대구·경북 고령자 특성

2025년 우리 사회는 65세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지역 고령자의 특성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영선)은 노인의 날(10.2.)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노인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구, 경제활동, 소득·자산, 사회활동·여가, 의식 5개 부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붙임】 과거와 달라진 대구·경북 고령자 특성 카드뉴스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 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김 동은 (053-609-6656)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대구경북 65세이상 고령자의 특성 및 의식에 대한 분석 자료로 노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유의사항

- 지표별 출처가 다양하고 활용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작성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

< 활용자료 현황 >

자료명(출처)	분석항목	기준시점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고령인구 추이 및 전망	2010~205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고령자 연령별 분포, 가구유형	2015, 2024년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교육정도, 경제활동, 월평균소득	2014, 2024년(상반기)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이혼 및 재혼	2014, 2024년
사회조사(통계청)	사회활동 및 의식	2013, 2023년 / 2014, 2024년 *일부 항목 기준시점 상이
연금통계(통계청)	연금수급 현황(수급률, 수급금액)	2016, 2023년
인구통계등록부통합분석DB(통계청)	주택소유 비율	2015, 2023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향후 경제활동 참여의향 및 이유	2014, 2023년

- 통계표는 부록에 수록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금통계 자료는 KOSIS 공표 기준(십명, 천원)으로 산출한 값으로 원자료로 산출한 값과 다를 수 있음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과거와 달라진

경북 고령자 특성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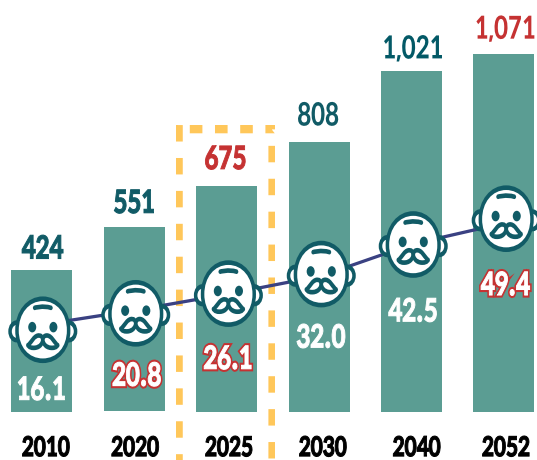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2025년 우리 사회는
65세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경북 고령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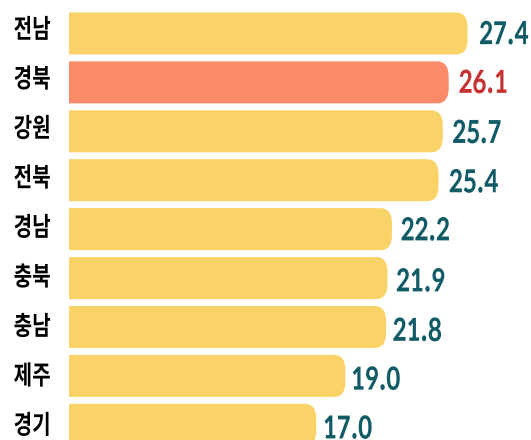
(천명, %)



출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도지역 고령인구 비중('25년)

(%)



출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5년 경북 고령인구 비중 26.1%

- 경북은 '20년 고령인구 비중 20.8%로 '20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
- '25년 경북 고령인구(675천명) 비중은 26.1%, 도지역(특·광역시 제외) 중 두 번째로 높음
-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 '52년 경북 인구의 절반(49.4%)이 노인인구일 것으로 전망



02

과거와 다른 노인세대 등장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 기존 노인과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새로운 노인층**(1950년대 이후 출생)의 노인세대 진입
- '24년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1950년대 이후 출생자(65~74세)가 58.0%, **베이비부머**(65~69세)는 **33.7%로 큰 비중** 차지

경북 연령별 노인인구 비중('24년) (%)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세 ■ 85세이상

출처: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과거의 노인과 달라진 새로운 노인상

- 기존의 의존수동적 이미지에서 액티브시니어, 올드세대 등 **활동능동적인 이미지**의 노인상 등장
- 부모와 자식 모두 부양**해야 하는 마쳐세대의 노인은 가족 부양의 이중고와 노후 불안 등 어려움 직면



1인가구 4.0%p, 고졸이상 14.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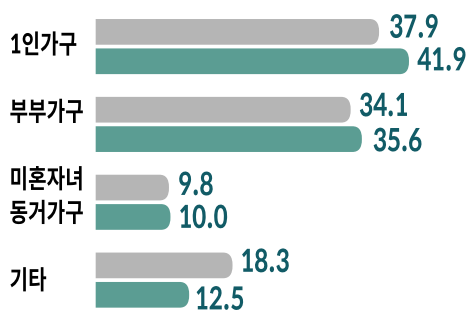
가구유형

- '24년 경북 고령자 가구유형은 1인가구(41.9%), 부부가구(35.6%), 미혼자녀 동거가구(10.0%) 순
- 경북 고령자 1인가구(41.9%)는 '15년 대비 4.0%p 증가하였고, 전국(38.2%)보다 3.7%p 높음

경북 고령자 가구유형 (%)

(%)

■ '15년 ■ '24년



출처: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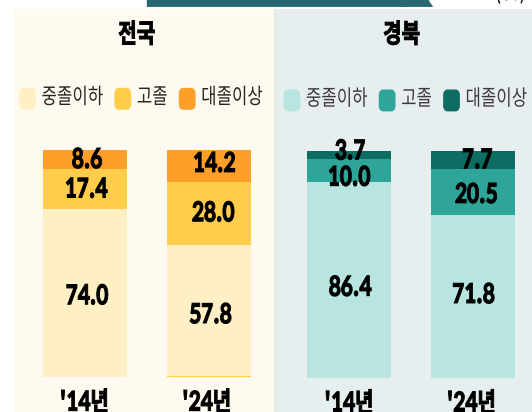


교육정도

- '24년 경북 고령자 중 고졸이상 비중은 28.2%로 '14년대비 14.5%p 증가하였으나, 전국(42.2%)보다 14.0%p 낮음
- '24년 고령자 중 중졸이하 비중은 경북(71.8%)이 전국(57.8%)보다 14.0%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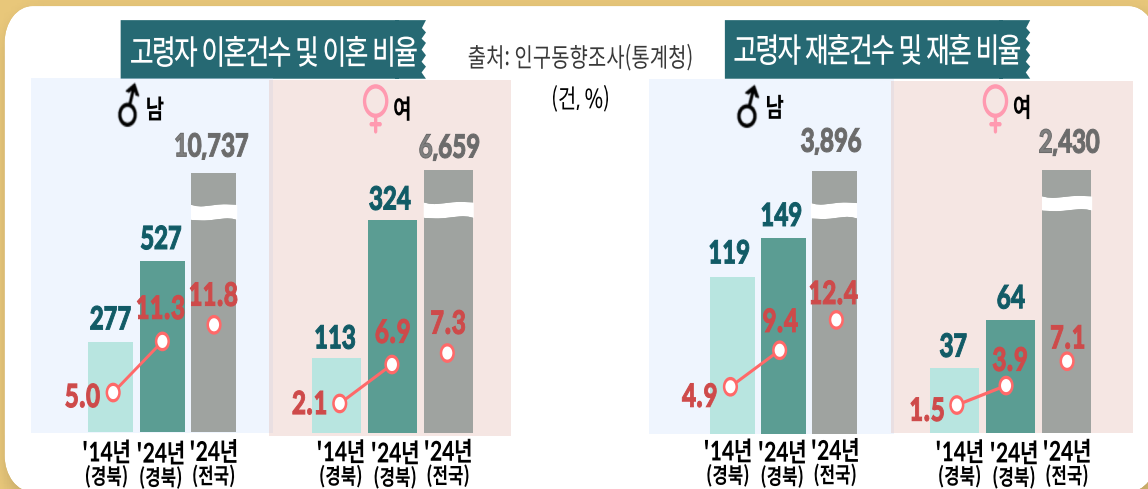
고령자 교육정도 (%)

(%)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상반기(4월) 기준

이혼 남 90.3%, 여 186.7% 증가 재혼 남 25.2%, 여 73.0% 증가



이혼

- '24년 경북 고령자 이혼건수는 남성 527건, 여성 324건으로 10년전보다 각각 90.3%, 186.7% 증가
- '24년 성별 전체 이혼건수 중 고령자 이혼 비율을 보면 남성(11.3%)은 전국(11.8%)보다 0.5%p 낮고, 여성(6.9%)은 전국(7.3%)보다 0.4%p 낮음



재혼



- '24년 경북 고령자 재혼건수는 남성 149건, 여성 64건으로 10년전보다 각각 25.2%, 73.0% 증가
- '24년 성별 전체 재혼건수 중 고령자 재혼 비율을 보면 남성(9.4%)은 전국(12.4%)보다 3.0%p 낮고, 여성(3.9%)은 전국(7.1%)보다 3.2%p 낮음

경제활동참가율 7.7%p 증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50.2%, 직업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9.5% 큰 비중 차지

'24년 경북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53.5%)은
10년전보다 7.7%p 증가하였고,
전국(40.0%)보다 13.5%p 높음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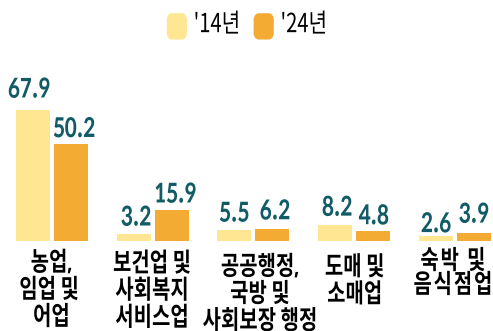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상반기(4월) 기준)

산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 '24년 경북 고령 취업자의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중은 10년간 크게 감소(17.7%p)하였지만 여전히 고령 취업자의 절반(50.2%) 차지
- 10년전과 비교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7%p) 크게 증가

경북 고령 취업자 산업별 비중(상위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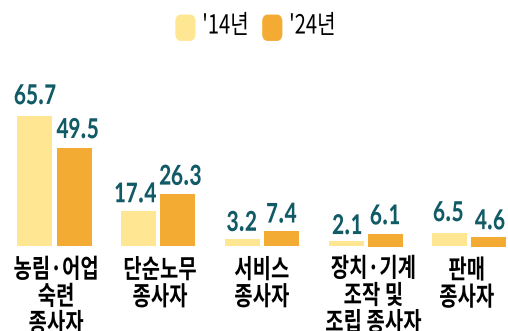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상반기(4월) 기준)

직업별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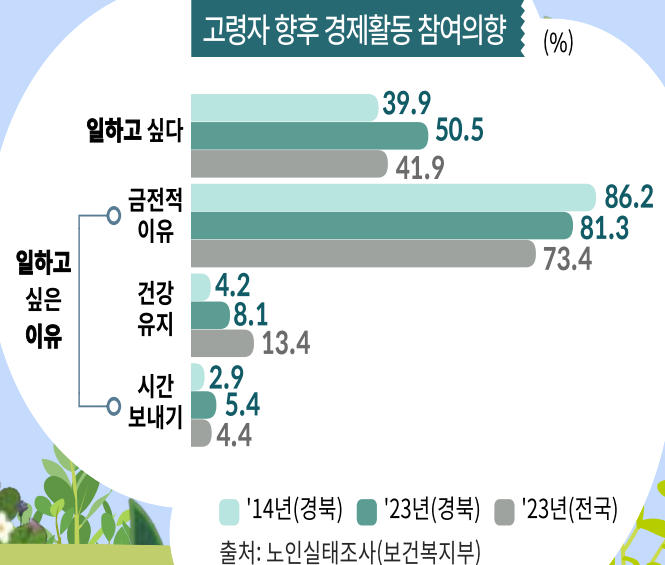
- '24년 경북 고령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9.5%), 단순노무 종사자(26.3%), 서비스종사자(7.4%) 등의 순
- 10년전과 비교하여 농림·어업숙련종사자(16.2%p)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 차지

경북 고령 취업자 직업별 비중(상위5개) (%)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상반기(4월) 기준)

2. 경제활동



06

향후 일하고 싶은 고령자 10.6%p 증가

'23년 경북 고령자의 50.5%, 향후 경제활동 참여하고 싶다

- '23년 경북 고령자 중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0.5%로 '14년 대비 10.6%p 증가하였고, 전국(41.9%)보다 8.6%p 높음
- 일하고 싶은 이유로 금전적이유(81.3%)가 '14년 대비 4.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 차지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상 19.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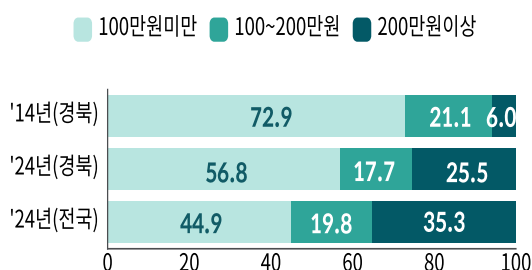
주택소유 비율 6.4%p 증가



소득

- '24년 경북 고령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미만이 56.8%** 차지하고 전국(44.9%)보다 11.9%p 높음
- 200만원이상 비중은 25.5%로 10년전(6.0%)보다 19.5%p 증가**, 전국(35.3%)보다 9.8%p 낮음

고령자 월평균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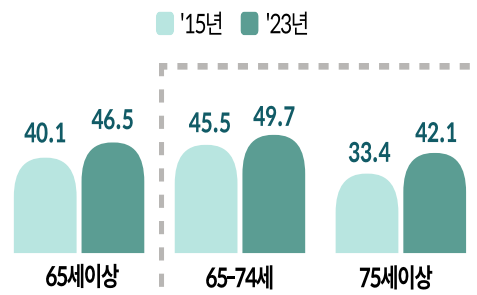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상반기(4월) 기준



주택소유

- '23년 경북 고령자 주택소유비율은 **46.5%**로 '15년대비 **6.4%p 증가**, 전국(46.1%)보다 0.4%p 높음
- 65-74세 주택소유비율(49.7%)은 75세이상(42.1%)보다 7.6%p 높고, '15년대비 각각(12.1%p)는 감소

경북 고령자 주택소유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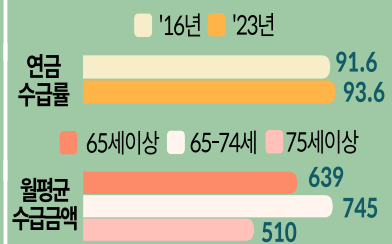
출처: 인구통계등록부통합분석DB(통계청)

연금수급률 2.0%p, 동시수급률 12.3%p 증가

연금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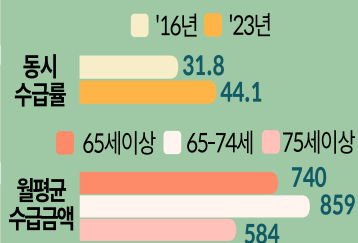
- '23년 경북 고령자 연금수급률(93.6%)은 '16년대비 20%p 증가, 월평균수급금액(639천원)은 '16년대비 73.6% 증가
- 연령별 월평균수급금액은 65-74세 745천원, 75세이상 510천원으로 65-74세 연령대가 235천원 더 많음

경북 연금 수급 현황 (%) , 천원



출처: 연금통계(통계청)

경북 연금 동시수급 현황 (%) , 천원



출처: 연금통계(통계청)

* 동시수급자: 11개 연금제도 중에서 2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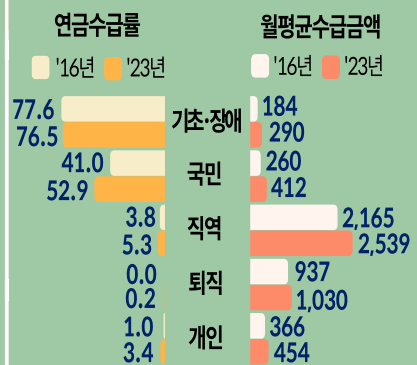
동시 수급

- '23년 경북 고령자 연금 동시수급률(44.1%)은 '16년대비 12.3%p 증가, 동시수급자 월평균수급금액(859천원)은 '16년대비 16.2%p 증가
- 연령별 동시수급자 월평균수급금액은 65-74세 859천원, 75세이상 584천원으로 65-74세 연령대가 275천원 더 많음

연금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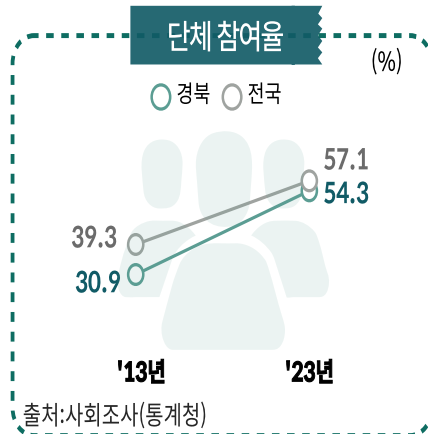
- '23년 경북 고령자의 연금종류별 수급률은 기초장애(76.5%), 국민(52.9%), 직역(5.3%) 등 순으로 많고, '16년대비 국민연금 수급률(11.9%p)이 가장 크게 증가
- '23년 연금수급률이 높은 기초장애연금,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금액은 '16년대비 각각 57.6%, 58.5% 증가

경북 연금종류별 수급 현황 (%) , 천원



출처: 연금통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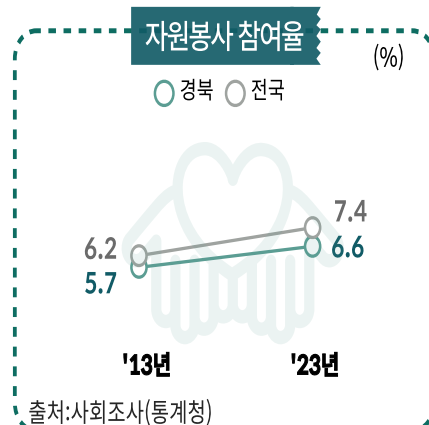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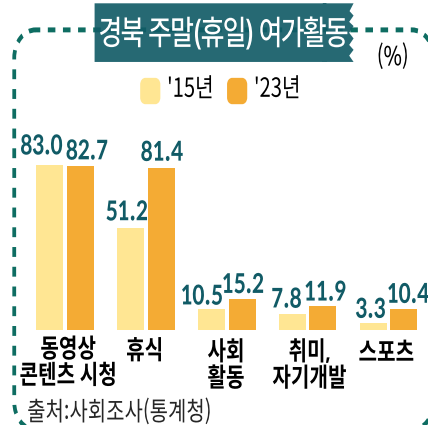
단체 참여 23.4%p 증가, 전국보다 낮음



주요 단체종류별 참여율 증감 ('23년-'13년) (%p)



- '23년 경북 고령자 **단체 참여율(54.3%)**은 10년전보다 **23.4%p 증가**, 전국(57.1%)보다 **2.8%p 낮음**
특히 여가활동 단체 참여율(29.6%)이 10년전(13.7%)보다 15.9%p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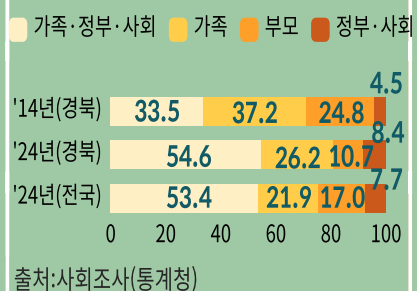
- '23년 경북 고령자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82.7%), 휴식(81.4%), 사회활동(15.2%) 등의 순으로 많고, '15년 대비 휴식(30.2%p), 스포츠(7.1%p) 등에서 크게 증가
- '23년 경북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율**은 6.6%로 10년전(5.7%)보다 0.9%p 증가, 전국(7.4%)보다 0.8%p 낮음

삶의 만족도 9.1%p 증가, 전국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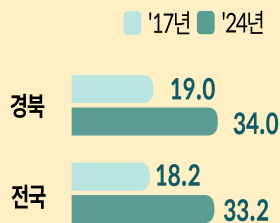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24년 경북 고령자의 '부모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한다'는 견해는 **54.6%**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가족이 부양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26.2%)은 10년전보다 11.0%p 감소하였고, 전국(21.9%)보다 4.3%p 높음

경북 고령자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고령자 성취에 대한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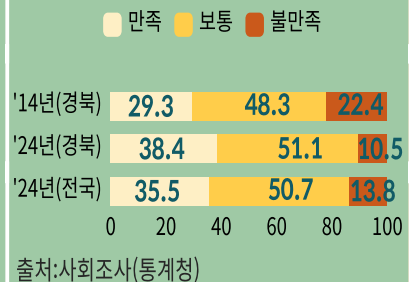
성취에 대한 만족도

- '24년 경북 고령자 3명 중 1명(34.0%)은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17년대비 15.0%p 증가
- '24년 고령자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경북(34.0%)이 전국(33.2%)보다 0.8%p 높음

삶에 대한 만족도

- '24년 경북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비중(38.4%)은 10년전(29.3%)보다 9.1%p 증가, 전국(35.5%)보다 2.9%p 높음
- '불만족' 비중(10.5%)은 10년전(22.4%)보다 11.9%p 감소, 전국(13.8%)보다 3.3%p 낮음

고령자 삶에 대한 만족도 (%)



보도시점 2025. 10. 27.(월) 12:00 배포 2025. 10. 27.(월) 09:00

최근 10년간 대구·경북·강원의 고용 변화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오승 (053-609-6521)
		담당자	팀 장	채진희 (053-609-6524)
		담당자	주무관	이경희 (053-609-6525)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최근 10년간 대구·경북·강원의 고용 변화 특성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데이터처 및 관련 기관의 고용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 활용자료 현황 >

자료명	관련 항목	작성연도	작성기관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종사상 지위, 취업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률	2015-2024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특성	2017-2024	국가데이터처
	1인 취업가구, 경력단절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인구	2015-2024	
사회조사	근로여건 만족도	2015-2023	국가데이터처
고용행정통계	구직급여신청	2015-20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하였음
-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한국행정구역분류, 2023. 7. 1. 기준)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주요 용어 해설」을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목 차

□ 요약	1
□ 작성결과	
I.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1. 15세이상인구	3
2.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4
II. 고용	
1. 고용률	5
2. 취업자 특성	6
3. 종사상 지위	8
4. 취업시간	10
5. 1인 취업가구	11
6. 비정규직 근로자	12
7. 근로여건 만족도	13
III. 실업	
1. 실업률	14
2. 구직급여신청	15
3. 경력단절여성	15
IV. 비경제활동인구	
1. 비경제활동인구	16
2. '쉬었음' 인구	17

최근 10년간 대구·경북·강원의 고용 변화요약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24년 대구 209만 6천명, 경북 228만 4천명, 강원 132만 8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는 변동없고, 경북은 0.6% 감소, 강원은 3.8% 증가함
- (청년층^{15~29세} 인구) '24년 대구 36만 5천명, 경북 35만 3천명, 강원 21만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는 20.5%, 경북 21.9%, 강원 18.9% 각각 감소함
- (고령층^{65세이상} 인구) '24년 대구 48만 1천명, 경북 63만 3천명, 강원 36만 9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56.2%, 경북 35.8%, 강원 45.8%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 '24년 대구 125만 8천명, 경북 150만명, 강원 86만 8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2.6% 감소한 반면, 경북 1.5%, 강원 13.5% 각각 증가함

2. 고용

- (고용률) '24년 대구 58.0%, 경북 64.0%, 강원 63.5%로 '15년 대비 대구
1.4%p 하락한 반면, 경북 1.6%p, 강원 5.6%p 각각 상승함
 - (청년층^{15~29세} 고용률) '24년 대구 37.5%, 경북 41.3%, 강원 48.1%로 '15년 대비
대구 1.8%p 하락한 반면, 경북 0.2%p, 강원 14.8%p 각각 상승함
 - (고령층^{65세이상} 고용률) '24년 대구 32.2%, 경북 51.3%, 강원 45.8%로 '15년 대비
대구 7.6%p, 경북 9.4%p, 강원 14.2%p 각각 상승함
- (산업별 취업자 수) '24년 대구는 '제조업'(19.3%), 경북은 '농업, 임업 및 어업'
(19.0%), 강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6%)이 가장 많음
- (직업별 취업자 수) '24년 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5%), 경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7%), 강원은 '단순 노무 종사자'(17.5%)가 가장 많음
- (임금근로자 수) '24년 대구 93만 3천명, 경북 92만 7천명, 강원 60만 9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0.6%, 경북 3.0%, 강원 23.0% 각각 증가함
- (자영업자 수) '24년 대구 25만 2천명, 경북 42만 7천명, 강원 19만 5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5.6% 감소한 반면, 경북 3.6%, 강원 0.5% 각각 증가함

- (주당 평균 취업시간) '24년 대구 38.0시간, 경북 37.7시간, 강원 36.3시간
으로 '15년 대비 대구 6.4시간, 경북 5.8시간, 강원 7.3시간 각각 감소함
- (1인 취업가구) 1인 가구 중 취업가구 비중은 '24년 대구 54.9%, 경북 60.3%,
강원 65.3%로 '15년 대비 대구 0.1%p, 경북 1.3%p, 강원 7.4%p 각각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4년 대구 37.9%,
경북 40.3%, 강원 47.5%로 '15년 대비 대구 6.0%p, 경북 7.9%p, 강원 2.5%p
각각 상승함
- (근로여건 만족도) 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23년 대구
28.7%, 경북 31.8%, 강원 44.0%로 '15년 대비 대구 9.7%p, 경북 8.9%p, 강원
12.1%p 각각 상승함

3. 실업

- (실업률) '24년 대구 3.4%, 경북 2.5%, 강원 2.8%로 '15년 대비 대구 0.1%p,
경북 0.5%p, 강원 0.4%p 각각 하락함
 - (청년층^{15~29세} 실업률) '24년 대구 8.9%, 경북 6.0%, 강원 3.6%로 '15년 대비
대구 1.2%p, 경북 2.8%p, 강원 9.0%p 각각 하락함
- (구직급여신청) '24년 구직급여신청자는 대구 1만 3,247명, 경북 1만 3,480명, 강원
9,201명으로 '15년 대비 대구 38.4%, 경북 26.5%, 강원 39.0% 각각 증가함
- (경력단절여성 비율) '24년 대구 18.9%, 경북 16.8%, 강원 14.7%로 '15년 대비
대구 2.9%p, 경북 4.8%p, 강원 3.7%p 각각 하락함

4.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24년 대구 84만 2천명, 경북 77만 4천명, 강원 43만 6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3.8% 증가한 반면, 경북 2.9%, 강원 11.7% 각각 감소함
- ('쉬었음' 인구) '24년 대구 16만 3천명, 경북 15만 1천명, 강원 8만 5천명
으로 '15년 대비 대구 40.5%, 경북 49.5%, 강원 4.9% 각각 증가함

보도시점 2025. 11. 18.(화) 12:00 배포 2025. 11. 18.(화) 09:00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박기훈 (053-609-6661)

일 러 두 기

- 이 보도자료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출산 현황을 심층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인구동태 코호트DB* 등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의 1983년생^(2023년 기준 만40세)과 1992년생^(2023년 기준 만31세)을 대상으로 인구동태 변동 및 지역 이동과 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임
 - * 출생연도 인구집단에 대해 혼인-자녀출산-이혼-사망 등의 특성을 연계한 자료
-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983년~1992년생 내국인
 -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은 제외됨
- 분석 방법으로 두 코호트를 동일 시점^{2023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과 두 코호트가 동일한 연령대^{만31세}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비교(동일 연령 비교)하는 것을 함께 수록함
- 활용한 자료의 항목별 작성 시점, 작성 기준 등 각 통계별로 자료를 해석할 필요 있음
 - 혼인은 신고 기준(실제혼인년월)으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혼인은 초혼 기준, 출산은 초산 기준으로 집계함
 - 혼인, 자녀 출산 시 연령은 만 나이로, 혼인 및 출생통계의 출생신고 기준 연령과 다를 수 있음

< 활용자료별 기준 시점 및 특성 >

자료명	활용 항목	기준시점	비고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1983, 1992	
인구동태 코호트DB	(출생) 출생년월, 성별 (혼인) 혼인년월(실제/신고), 혼인거주지, 학력(혼인시), 직업(혼인시) (출산) 출산년월, 출생아주소지, 학력(출산시), 직업(출산시)	1983.1.1.~ 2023.12.31.	혼인: 초혼 기준 출산: 초산 기준

일 러 두 기

☐ 이용상 주의 사항

- 본 기획보도는 1983년~1992년생의 인구동태 분석 결과로서 2023년 기준 만 31~40세의 청년층으로 아직 혼인 및 자녀 출산 등 생애 사건 경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코호트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실제 혼인은 2023년 12월 이전, 혼인신고는 2024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사실혼),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혼인한 사람과 평균 혼인 연령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될 수 있음
- 혼인 거주지, 출생아 주소지 등은 신고자가 기재한 주소로 실제 주소지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매년 공표되는 인구동태 기간 통계 결과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음에 유의
 - (기간 통계) 2023년 기준 인구동태 기간 통계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발생(신고)한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에 대한 통계로, 그들의 혼인, 출산, 이혼, 사망 등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통계이고,
 - (코호트 통계) 2023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특정 출생년도(예:1983년생)의 인구 집단이 2023년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출산, 이혼, 사망 등의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계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예정임 ※ 새소식 > 보도자료 > 기획보도자료

목 차

□ 요약	1
□ 작성 결과	
I. 혼인 현황	
1. 출생아 수	3
2. 혼인한 사람	3
3. 혼인 연령	4
4. 혼인신고 지연	5
II. 출산 현황	
1. 출산한 사람	7
2. 출산 자녀 수	8
3. 출산 연령	9
4. 혼인·출산 간격	10
III. 혼인·출산 간 이동 현황	
1. 혼인·출산 간 이동	12
2. 혼인·출산 간 주요 이동지역	14
3. 혼인·출산 간 순이동	18
4. 직업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19
5. 맞벌이 여부별 다른 지역 출산 비율	21
IV. 혼인·출산 시 직업 현황	
1.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2
2. 직업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4
3. 학력별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26
□ 부록	27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요약]

1. 혼인 현황

‘92년생 혼인한 사람의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 비율 높아져

- (혼인한 사람)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2만 3천명, 경북 2만 4천명이고, ‘92년생은 대구, 경북 모두 8천명임
- (혼인 연령)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의 평균 초혼연령은 대구 30.0세, 경북 29.4세이고, ‘92년생은 대구 27.5세, 경북 27.0세임
- (혼인신고지연)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자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 1.6%p, 경북 1.5%p 높음
 - ‘92년생 혼인한 사람의 평균 혼인신고 지연 기간은 대구 3.8개월, 경북 3.9개월로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각각 0.1개월 짧음

2. 출산 현황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2명 이상 다자녀 출산 비율 크게 하락하고, 평균 초산연령은 낮아지고,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길어져

- (출산 자녀수)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로 전국(34.2%) 대비 대구는 2.8%p 낮고, 경북은 5.6%p 높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는 23.9%p, 경북은 22.2%p 낮음
- (출산 연령)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 27.9세, 경북 27.2세로 전국(27.7세) 대비 대구는 0.2세 높고, 경북은 0.5세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혼인한 여성의 평균 초산연령은 대구는 0.7세, 경북은 0.9세 낮음
- (혼인·출산 간격)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 18.6개월, 경북 17.8개월로 전국(18.5개월) 대비 대구는 0.1개월 길고, 경북은 0.7개월 짧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여성의 평균 혼인·출산 간격은 대구는 0.9개월, 경북은 0.1개월 길게 나타남

3. 혼인·출산 간 이동 현황

‘92년생 대구 혼인자의 타 시도 출산 비율은 경북, 동남권, 수도권 순이고, 경북 혼인자의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대구,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나

- (혼인·출산 간 이동)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20.9%, 경북 18.4%로 ‘83년생 대비 각각 0.5%p, 2.1%p 낮음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92년생 대구·경북에서 혼인 후 다른 지역(타 시도)에서 출산한 비율은 대구 1.8%p, 경북 2.6%p 낮음
- (이동 지역^{대구}) ‘92년생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경북}(45.7%), 동남권(19.2%), 수도권(18.9%) 순임
- (이동 지역^{경북}) ‘92년생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출산 지역 비율은 대경권^{대구}(27.4%), 수도권(26.8%), 동남권(23.6%) 순임
- (맞벌이 여부별) 대구·경북에서 혼인한 ‘92년생의 맞벌이 여부^{혼인시}별 타 시도 출산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맞벌이가 각각 17.7%, 15.5%로 가장 낮음

4. 혼인·출산 시 직업 현황

‘92년생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 높아져

- (혼인·출산 시 직업 여부)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83년생은 대구 59.9%, 경북 59.6%, ‘92년생은 대구 64.3%, 경북 64.3%임
 - ‘83년생 대비 ‘92년생의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율은 대구 4.4%p, 경북 4.7%p 높음
- (직업별) ‘92년생의 직업^{혼인시}별 혼인 시 직업이 있고 출산 시 직업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대구는 기능·조립·단순노무 종사자(32.6%), 경북은 서비스·판매 종사자(32.3%)가 가장 높고,
 - 대구, 경북 모두 사무종사자가 각각 15.8%, 15.9로 가장 낮음
- (학력별) ‘92년생의 학력^{혼인시}별 혼인·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대졸 이상 비율이 대구 59.7%, 경북 60.6%로 고졸이하 보다 높고,
 - 동일한 연령의 ‘83년생 대비 대구는 22.1%p 높고, 경북은 24.4%p 낮음

보도시점 2025. 11. 25.(화) 12:00 배포 2025. 11. 25.(화) 09:00

카드데이터로 본 대구·경북 소비형태 분석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영선)은 소비자의 날(12.3.)을 맞아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민의 연령대별, 성별, 업종별 소비 형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대·성별 간 주요 소비 패턴 변화와 특징을 중심으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25년 19세 이상 인구 중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대구 20.7%, 경북 22.4%로 ‘17년 대비 7.2%p, 6.9%p 각각 증가함.

‘24년 업종별 카드소비액은 대구, 경북 모두 온라인쇼핑(대구 35.0%, 경북 27.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구는 종합소매(23.3%), 음식·숙박(11.9%) 등의 순이며, 경북은 종합소매(23.4%), 운송교통(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20년과 비교해 보면, 대구는 온라인쇼핑(5.1%p), 보건의료(1.1%p) 등이 증가, 종합소매(-4.3%p), 음식·숙박(-0.4%p) 등이 감소하였고, 경북은 온라인쇼핑(4.3%p), 운송교통(1.2%p) 등이 증가하고, 종합소매(-3.5%p), 교육(-1.6%p) 등이 감소함.

‘24년 대구 남성과 여성의 카드소비액 비중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운송교통(7.7%p), 음식·숙박(5.3%p) 등에서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온라인쇼핑(9.5%p), 전문소매(2.4%p) 등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24년 경북 남성과 여성의 카드소비액 비중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운송교통(13.7%p), 음식·숙박(5.0%p) 등에서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온라인쇼핑(13.5%p), 교육(3.6%p) 등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24년 대구 카드소비액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 이하에서 온라인쇼핑 비중(50.6%^{20대 이하}, 51.4%^{30대}, 43.2%^{40대})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의료(13.2%^{60대}, 24.1%^{70대 이상})가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4년 경북 카드소비액의 연령대별 비중도 40대 이하에서는 온라인쇼핑 비중(45.1%^{20대 이하}, 42.6%^{30대}, 33.4%^{40대})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의료(11.2%^{60대}, 18.2%^{70대 이상})가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4년 평일과 휴일의 일 평균 카드소비액 비중은 대구는 평일 59.5%, 휴일 40.5%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평일 60.1%, 휴일 39.9%로 나타남.

평일과 휴일의 카드소비액을 업종별 구성비로 비교하면 대구는 보건의료(8.2%p), 온라인쇼핑(3.5%p) 등이 평일 비중이 더 높았고, 종합소매(12.7%p), 음식·숙박(4.5%p) 등은 휴일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경북은 보건의료(7.4%p), 운송교통(3.7%p) 등이 평일 비중이 더 높았고, 종합소매(12.5%p), 음식·숙박(5.3%p) 등은 휴일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24년 대구지역민의 타지역에서 카드소비액 비중은 운송교통(32.1%), 종합소매(30.0%) 순이고, 타지역민의 대구 소비는 종합소매(41.2%), 보건의료(22.0%) 순으로 나타남.

'24년 경북지역민의 타지역에서 카드소비액 비중은 종합소매(36.8%), 운송교통(23.8%) 순이고, 타지역민의 경북 소비는 운송교통(38.3%p), 종합소매(26.0%) 순으로 나타남.

'24년 대구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42.4%), 수도권(30.1%), 동남권(12.3%) 순이고, 경북의 경우, 대구(38.0%), 수도권(32.2%), 동남권(14.6%) 순으로 나타남.

'24년 타지역민의 대구지역 내 소비를 유입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60.8%), 동남권(15.9%), 수도권(15.4%) 순이고, 경북의 경우, 대구(42.1%), 동남권(24.7%), 수도권(19.9%) 순으로 나타남.

【붙임】 카드데이터로 본 대구·경북 소비형태 분석 카드뉴스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상기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김철용	(053-609-6657)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통계데이터센터의 「내국인 국내카드 소비(BC카드)」를 활용하여 대구·경북지역 성별, 연령대별, 업종별 비중 및 특성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성한 보도자료임

☐ 유의사항

- 업종 구분은 BC카드에서 사용하는 마케팅용 업종체제를 9개 업종으로 재분류함[부록2]
- BC카드(체크카드 포함, 개인카드) 승인액 기준으로 입수한 민간자료의 분석 결과로, 기존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추이 및 비중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의 자료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비식별 조치 등 공급데이터에서 제외된 자료는 분석에 미반영됨
- 통계표 중 「지역 간 소비이동 비교」에서는 ‘온라인쇼핑’, ‘기타’ 업종은 제외함

< 활용자료 현황 >

자료명(출처)	분석항목	기준시점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소비생활 만족도	2017년~2025년
내국인 국내카드 소비(BC카드) (통계데이터센터)	성별, 연령별, 업종별 카드소비액 비중 지역내/외 카드소비액 비중 등	2020년~2024년

- 통계표는 [부록1]에 수록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db>)에 게시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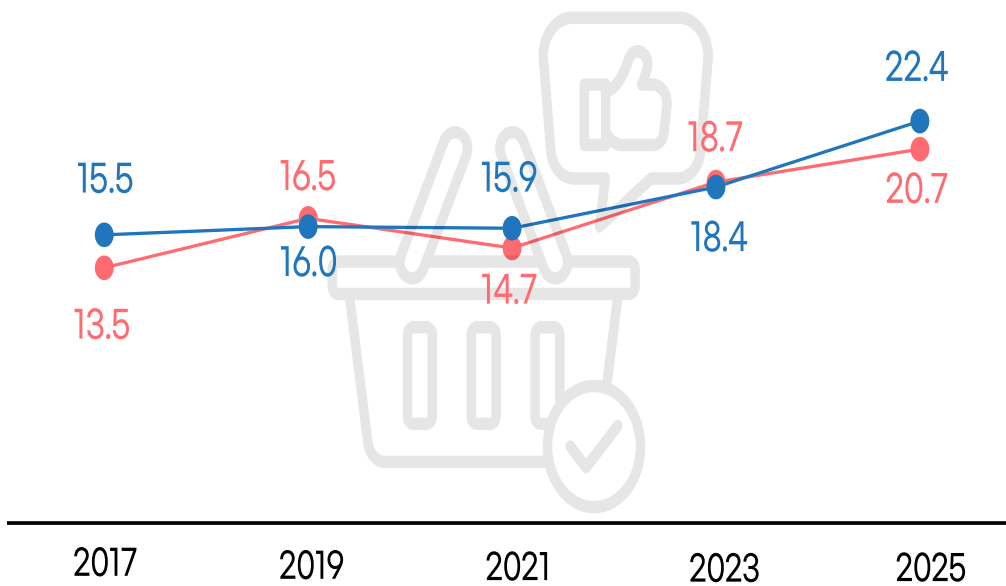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소비생활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반적인 소비생활 만족도('17년 ~ '25년)

● 대구 ● 경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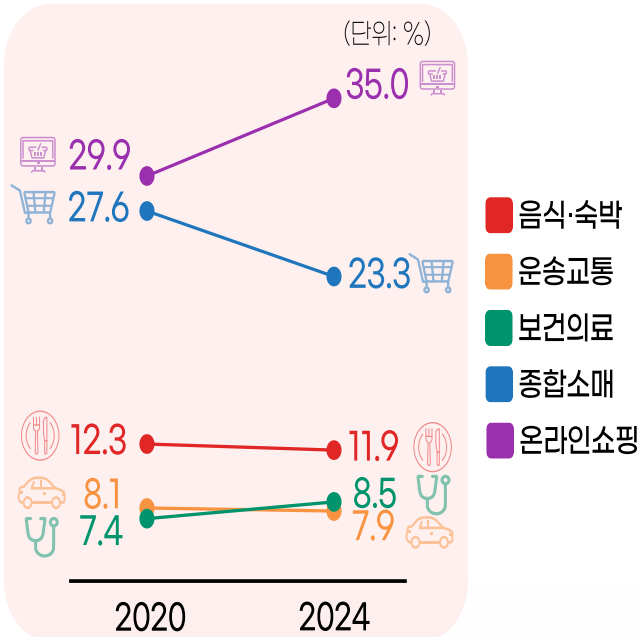
소비자의 날을 맞아 동북지방통계청은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지역민의 소비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소비생활 만족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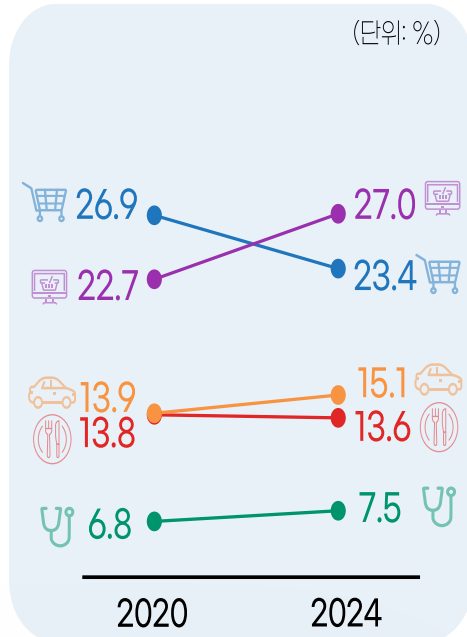
2025년 19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현재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대구 20.7%, 경북 22.4%로, 2017년보다 각각 7.2%p, 6.9%p 상승했습니다.

주요 업종별 카드소비 현황('20년, '24년)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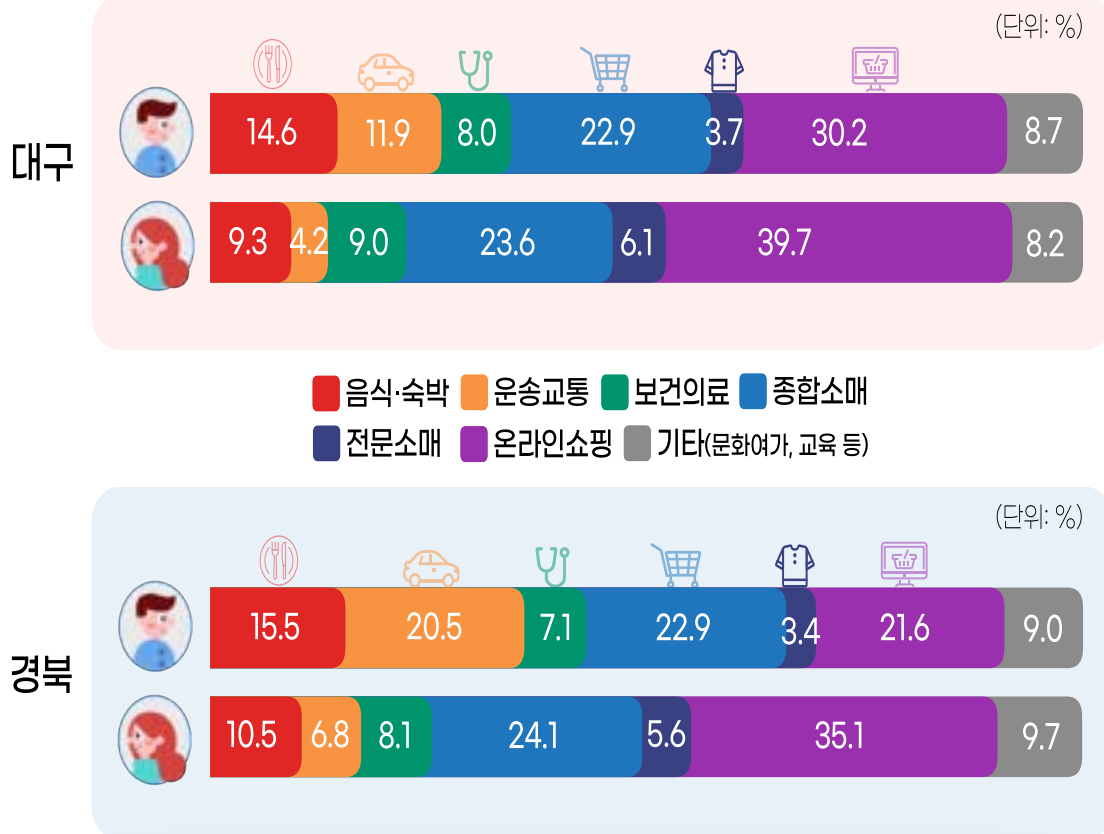
대구 · 경북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지출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업종별 카드소비 비중을 보면, 2024년 대구와 경북 모두 온라인쇼핑이 35.0%,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대구는 종합소매와 음식·숙박 순, 경북은 종합소매와 운송교통 순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쇼핑 비중이 대구는 5.1%p, 경북은 4.3%p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종합소매 비중은 두 지역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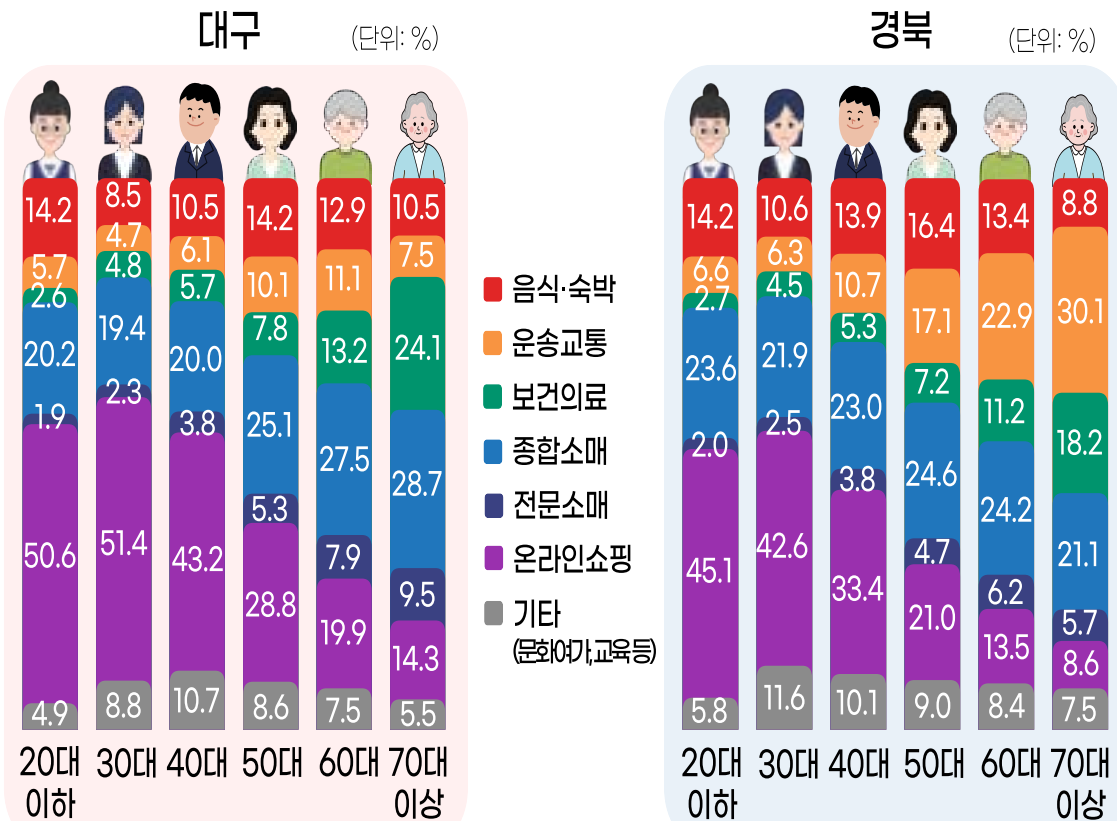
성별 카드소비('24년)



성별 소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2024년 대구에서는 남성이 운송교통과 음식·숙박에서,
여성은 온라인쇼핑과 전문소매에서 상대적으로 소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북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온라인쇼핑 비중은 남성보다 13.5%p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카드소비('24년)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온라인쇼핑 비중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의료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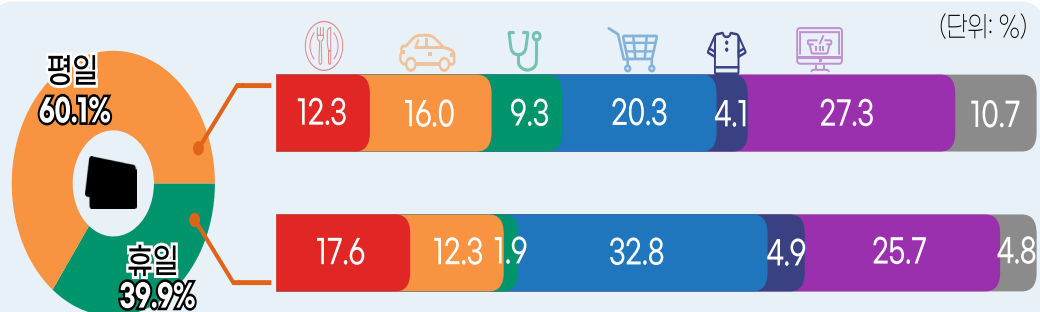
이 같은 경향은 대구와 경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연령대별 지출 항목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북에서는 고령층에서 운송교통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평일·휴일별 카드소비('24년)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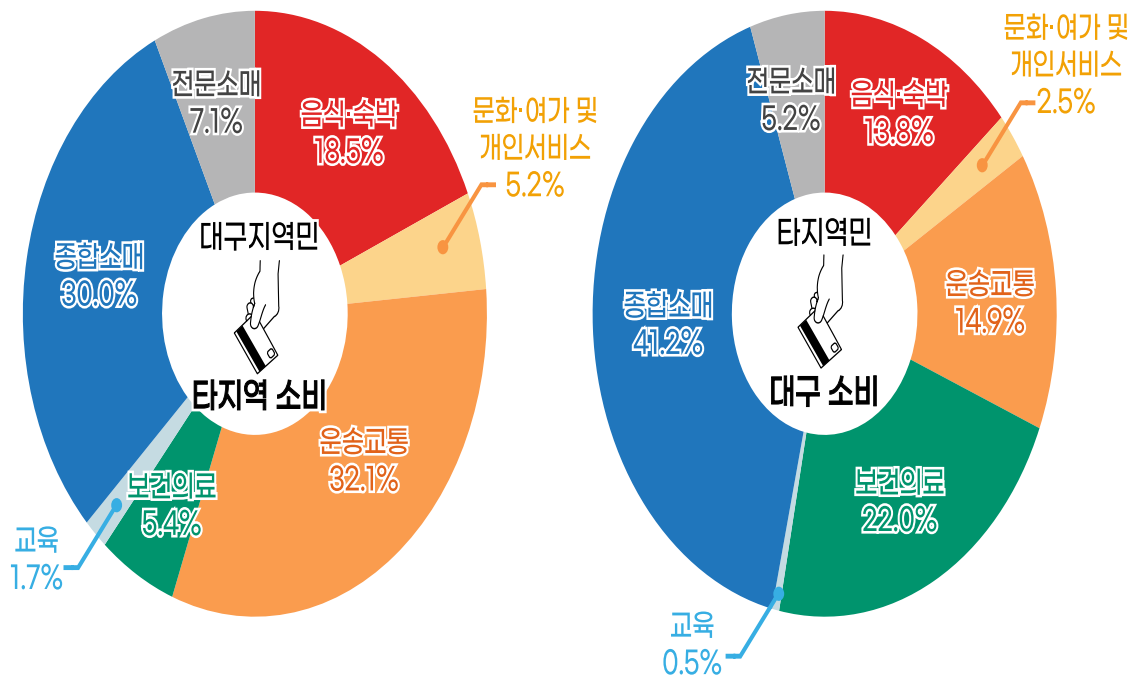
평일과 휴일, 소비는 언제 어디서 더 활발할까요?

일 평균 카드소비액은 대구와 경북 모두 **평일 소비가 약 60%, 휴일이 약 40% 수준**이었고,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온라인쇼핑, 운송교통 등이 평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종합소매와 음식·숙박 등에서는 휴일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간 소비이동 업종별 비중(대구, '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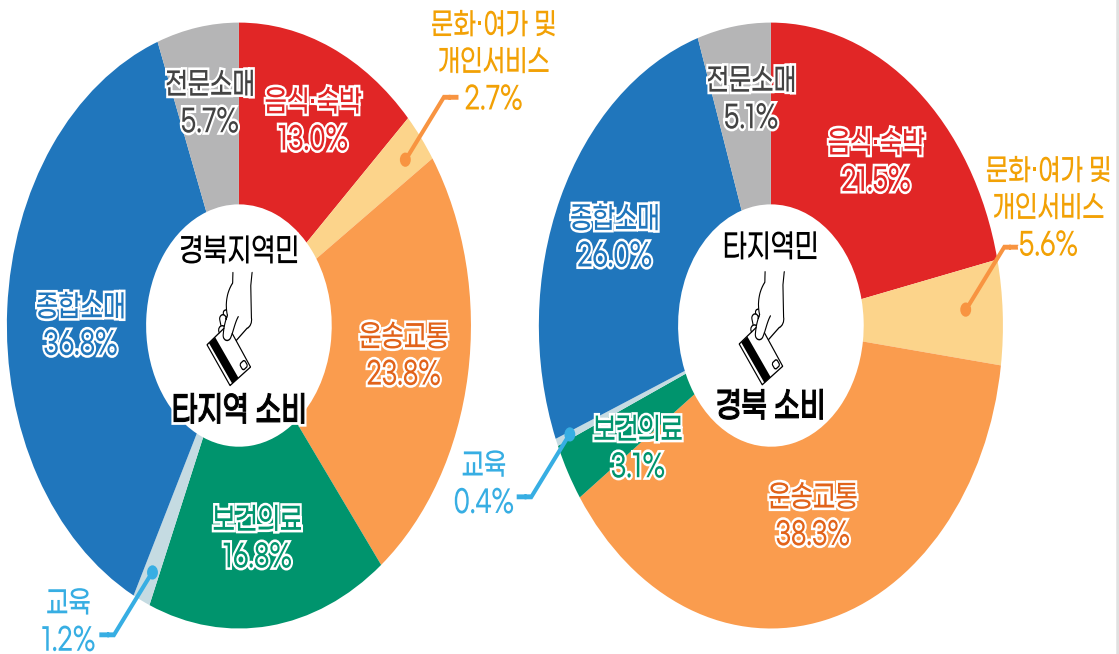
※ '온라인쇼핑', '기타' 제외

지역 간 소비도 업종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대구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는 운송교통, 종합소매 순으로 높았고,

타지역민의 대구 소비는 종합소매, 보건의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간 소비이동 업종별 비중(경북, '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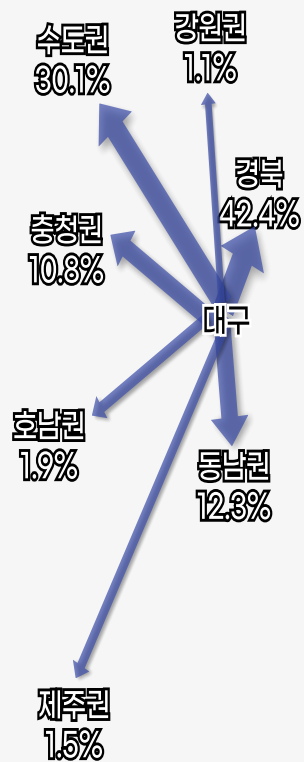


주: '온라인쇼핑',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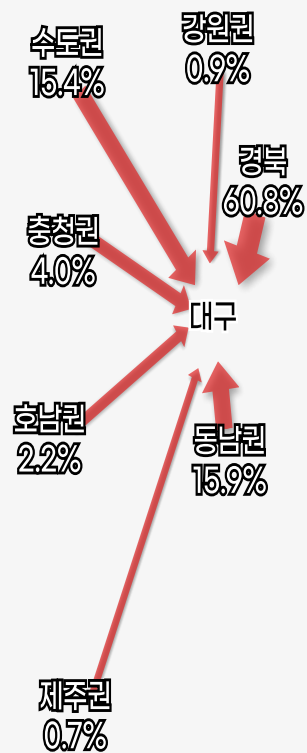
경북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는 종합소매, 운송교통 순으로 높았고,
타지역민의 경북 소비는 운송교통, 종합소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 소비이동(대구, '24년)

대구지역민의 타지역 소비



타지역민의 대구 내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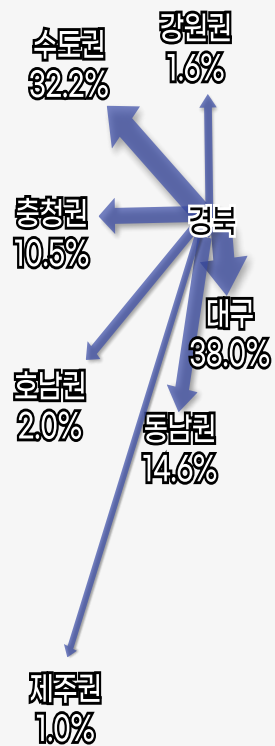


어디서 소비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면, 대구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는 경북이 42.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동남권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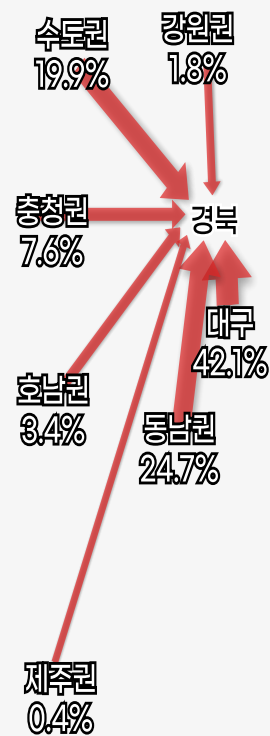
반대로 타지역민이 대구를 찾는 소비 흐름을 보면 경북, 동남권,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 소비이동(경북, '24년)

경북지역민의 타지역 소비



타지역민의 경북 내 소비



경북지역민의 타지역 소비는 대구가 38.0%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동남권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타지역민의 경북을 찾는 소비흐름은 대구, 동남권,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데이터로 본 소비형태 분석

"이번 분석을 통해 지역소비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계속 주목해보세요"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10년 경북의 농업 변화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영선)에서는 경상북도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을 활용하여 경북농업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농촌의 인구, 생산, 경제, 경영, 축산 5개 부문의 변화 19개 지표를 수록하였다.

더불어 5년마다 실시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농림어업의 미래 설계와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농산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희길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이은정 (053-609-6671)
		담당자	주무관	정승탁 (053-609-6663)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최근 10년 경북 농업의 환경변화 및 구조변화의 세밀한 파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농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활용자료 현황>

자료명	기준시점	관련 항목	작성연도
농림어업총조사	12.01.	농가수, 농가인구, 다문화, 판매처, 영농형태별 농가수, 규모별 농가수, 전·겸업, 정보화기기 활용	2015, 2020
농림어업조사	12.01.		2016-2019 2021-2024
	12.01.		2014-2024
인구총조사	11.01.	총 가구수	2015-2024
귀농어·귀촌인조사	11.01.	귀농	2015-2024
농업면적조사	11.11.	경지면적	2015-2023
	12.31.	재배면적	2015-2023
농작물생산조사	12.31.	쌀, 과일, 채소 생산량	2015-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12.31.	취업자 수	2015-2024
농가경제조사	12.31.	농가소득, 농업총수입/경영비, 자산/부채	2015-2024
농업법인조사	12.31.	농업법인	2018-2023
가축동향조사	12.01.	한우, 산란계, 육계	2015-2024
		돼지	2017-2024

-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가축동향조사』 자료의 시도별 분류는 군위군을 경북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니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변경(2023.7.1.) :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면적 단위: 1ha = 10,000m²
- 이 보도자료에 사용된 용어는 부록의 「용어정의」를 참고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db>)에 게시 예정입니다

목 차

□ 요약	1
□ 작성결과	
I. 인구	
1. 농가	6
1-1 경북의 농가	6
1-2 가구원수별 농가	8
1-3 시군별 농가	9
2. 농가인구	10
3. 귀농	11
4. 다문화	13
II. 생산	
1. 경지면적	14
2. 작물재배면적	15
3. 주요작물	16
3-1 쌀	16
3-2 과실	17
3-3 채소	18
III. 경제	
1. 취업자 수	19
2. 농가소득	20
3. 농업총수입/경영비	21
4. 자산/부채	22

IV. 경영

1. 농가특성	23
1-1 영농형태	23
1-2 규모별 농가	24
1-3 전·겸업	25
2. 판매처	26
3. 정보화기기 활용	27
4. 농업법인	28

V. 축산

1. 한우	29
2. 돼지	30
3. 산란계	31
4. 육계	32

☐ 부록	33
-----------------------------------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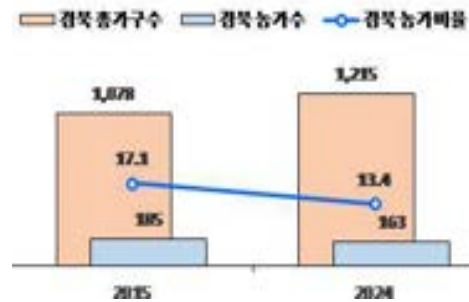
1. 인구

'24년 경북 농가수(16만 3천가구)는 '15년 대비 11.8% 감소

- '24년 경북 농가수는 16만 3천가구로 '15년 대비 2만 2천가구(11.8%) 감소
- '24년 경북 총가구중 농가비율은 13.4%로 '15년대비 3.7%p 감소
- '24년 경북 농가는 전국 농가의 16.7%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큼

【농가수 및 농가비율 추이(2015, 2024)】

(단위: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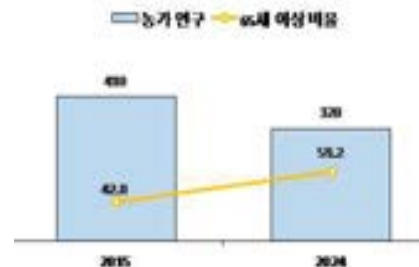


'24년 경북 농가인구(32만명)는 '15년 대비 22.1% 감소하였고, 고령인구(59.2%)가 생산연령인구(38.5%)보다 많음

- '24년 경북 농가인구는 32만명으로 '15년 대비 9만 1천명(22.1%) 감소
- 경북 농가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 비중은 '15년(42.0%) 대비 17.2%p 증가해 '24년 59.2%를 차지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2015, 2024)】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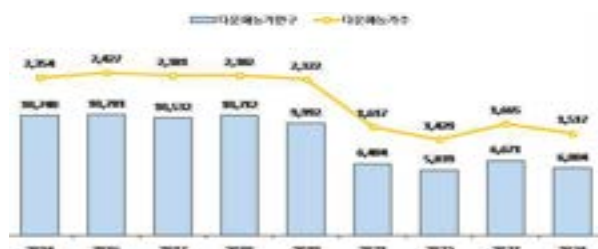


'24년 경북 다문화 농가(1,517가구), 다문화 농가인구(6,004명)는 '14년 대비 각각 35.6%, 44.1% 감소

- 다문화 농가는 1,517가구로 '14년 대비 837가구(35.6%) 감소
- 다문화 농가인구는 6,004명으로 '14년 대비 4,736명(44.1%) 감소

【다문화 농가 및 인구 추이(2014~2024)】

(단위: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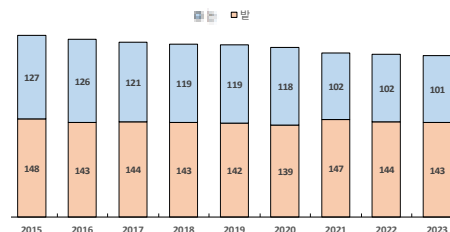
2. 생산

‘23년 경북 경지면적(24만 4천ha)은 ‘15년 대비 11.1% 감소

- ‘23년 경북 경지면적은 24만 4천ha로 ‘15년 (27만 4천ha) 대비 11.1%(3만 1천ha) 감소
 - 감소율은 논(20.7%)이 밭(2.9%)보다 큼
 - ‘23년 전국 경지면적 중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15년 대비 0.2%p 감소

【경지면적 추이(2015~2023)】

(단위: 천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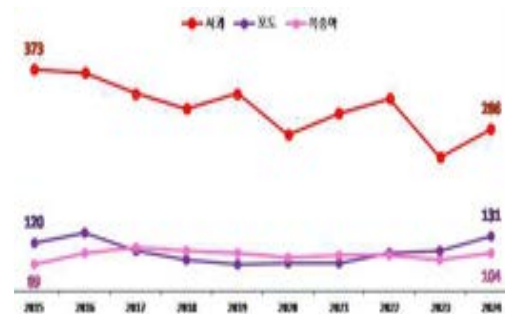


‘24년 경북 주요 과실 생산량은 사과(23.2%)는 감소, 포도(9.2%), 복숭아(16.8%)는 증가

- 사과 생산량은 28만 6천톤으로 ‘15년 대비 23.2% 감소, 재배면적은 0.1% 증가
- 포도 생산량은 13만 1천톤으로 ‘15년 대비 9.2% 증가, 재배면적은 6.4% 증가
- 복숭아 생산량은 10만 4천톤으로 ‘15년 대비 16.8% 증가, 재배면적은 21.9% 증가

【주요 과실 생산량 변화(2015~2024)】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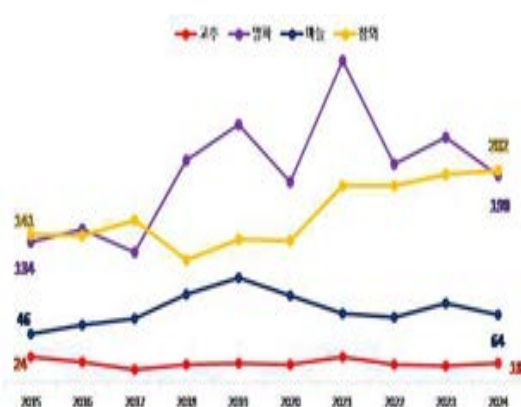


‘24년 경북 주요 채소 생산량은 고추^{전고추}(24.1%)는 감소, 양파(47.3%), 마늘(39.7%), 참외(43.4%)는 증가

- 고추 생산량은 1만 8천톤으로 ‘15년 대비 24.1% 감소, 재배면적은 13.2% 감소
- 양파 생산량은 19만 8천톤으로 ‘15년 대비 47.3% 증가, 재배면적은 29.6% 증가
- 마늘 생산량은 6만 4천톤으로 ‘15년 대비 39.7% 증가, 재배면적은 34.3% 증가
- 참외 생산량은 20만 2천톤으로 ‘15년 대비 43.4% 증가, 재배면적은 11.5% 감소

【주요 채소 생산량 변화(2015~2024)】

(단위: 천톤)



3.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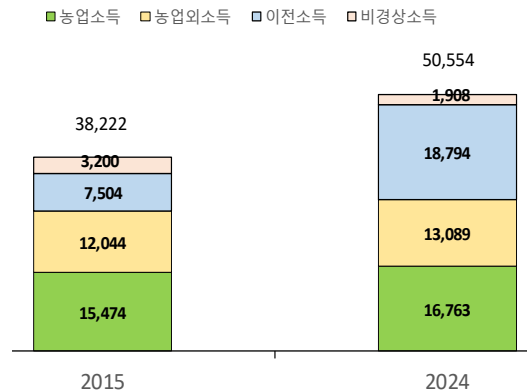
‘24년 경북 연간 농가소득(5,055만 4천원)은 ‘15년 대비 32.3% 증가

- ‘24년 경북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 4천원으로 ‘15년(3,822만 2천원) 대비 32.3%(1,233만 2천원) 증가

-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증감률은 농업소득(8.3%), 농업외소득(8.7%), 이전소득(150.5%)에서 증가, 비경상소득(40.4%)은 감소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변화(2015, 2024)】

(단위: 천원)



‘24년 경북 농업총수입(4,806만 5천원), 농업경영비(3,130만 3천원)는 ‘15년 대비 각각 38.6%, 63.0% 증가

- 농업총수입은 4,806만 5천원으로 ‘15년(3,468만 3천원) 대비 38.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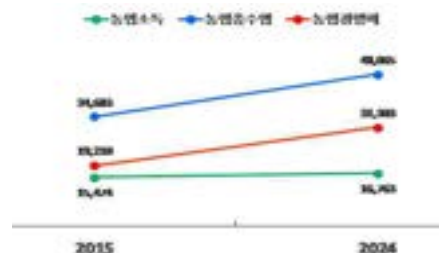
- 농업경영비 지출은 3,130만 3천원으로 ‘15년(1,921만원) 대비 63.0% 증가

- 농업소득은 ‘15년 대비 8.3% 증가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경영비 변화(2015, 2024)】

(단위: 천원)



‘24년 경북 농가의 평균 자산은 ‘15년 대비 324% 증가, 평균 부채는 46.1% 증가

- 경북 농가의 평균 자산은 4억 8,674만 5천원으로 ‘15년(3억 6,761만원) 대비 32.4%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3.2%

- 평균 부채는 2,560만 9천원으로 ‘15년(1,752만 5천원) 대비 46.1%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4.3%

【자산 및 부채 변화(2015, 2024)】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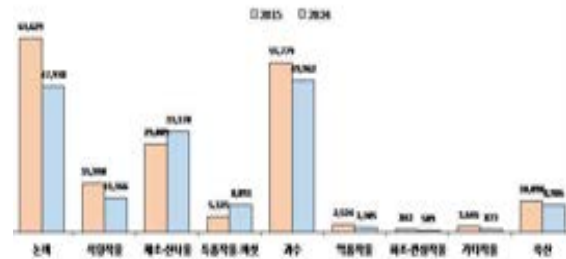
4. 경영

‘24년 경북 농가의 영농형태는 과수(30.7%), 논벼(29.4%), 채소·산나물(20.4%) 순

-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 비중은 과수(30.7%)가 가장 높고, 논벼(29.4%), 채소·산나물(20.4%) 등의 순
- 논벼 농가의 비중은 ‘15년 34.5%에서 ‘24년 29.4%로 가장 크게 감소(5.1%p)

【영농형태별 농가수 변화(2015, 2024)】

(단위: 가구)



‘24년 경북 전업농가 비율은 64.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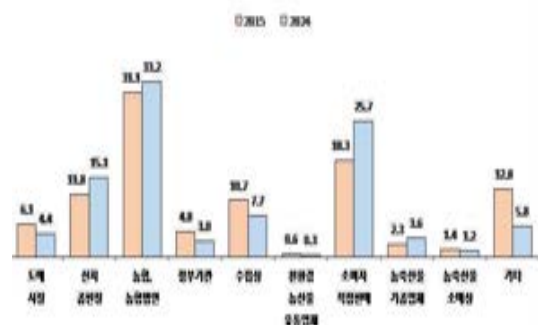
- ‘24년 경북의 전업농가 비율은 64.7%로 ‘15년 대비 0.3%p 증가
- 시도별 전업농가 비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24년 전국 평균은 55.7%임
- 겸업농가 중 1종 겸업농가는 38.4% 감소한 반면, 2종 겸업농가는 5.3% 증가
- ※ 1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외수입, 2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외수입

‘24년 경북 농축수산물 판매처 중 소비자 직접판매(25.7%) 비중은 ‘15년 대비 7.4%p 증가

- ‘24년 기준 경북 농축수산물의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전체의 33.2%로 가장 많고, 소비자 직접 판매(25.7%), 산지공판장(15.1%), 수집상(7.7%) 등의 순
- 소비자 직접판매 비중은 ‘15년 18.3%에서 ‘24년 25.7%로 가장 큰 비중 증가(7.4%p)를 보임

【농축산물 판매처별 비중 변화(2015, 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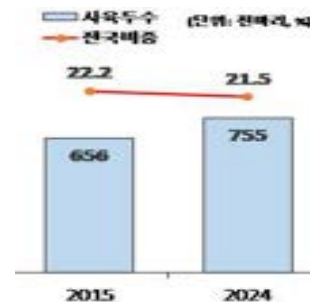


5. 축산

‘24년 경북 한우 사육농장수는 ‘15년 대비 23.7% 감소, 사육두수는 16.9% 증가

- ‘24년 경북 한우 사육농장수는 17,044개로
‘15년 대비 23.7% 감소
- 경북 한우 사육두수는 75만 5천마리로
‘15년 대비 16.9% 증가
- 사육두수 전국비중은 21.5%로 0.7%p 감소

【한우 사육두수 변화(2015, 2024)】



‘24년 경북 돼지 사육농장수는 ‘17년 대비 12.9% 감소, 사육두수는 11.8% 감소

- ‘24년 경북 돼지 사육농장수는 639개로
‘17년 대비 12.9% 감소
- 경북 돼지 사육두수는 127만 2천마리로
‘17년 대비 11.8% 감소
- 사육두수 전국비중은 11.7%로 1.1%p 감소

【돼지 사육두수 변화(2017, 2024)】



‘24년 경북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15년 대비 39.1% 감소, 사육마릿수는 12.6% 증가

- ‘24년 경북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151개로
‘15년 대비 39.1% 감소
- 경북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1,517만 5천마리로
‘15년 대비 12.6% 증가
- 사육마릿수 전국비중은 19.2%로 0.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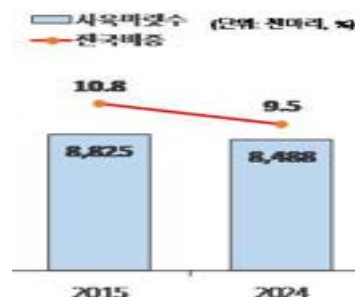
【산란계 사육마릿수 변화(2015, 2024)】



‘24년 경북 육계 사육농가수는 ‘15년 대비 16.3% 감소, 사육마릿수는 3.8% 감소

- ‘24년 경북 육계 사육농가수는 134개로
‘15년 대비 16.3% 감소
- 경북 육계 사육마릿수는 848만 8천마리로
‘15년 대비 3.8% 감소
- 사육마릿수 전국비중은 9.5%로 1.3%p 감소

【육계 사육마릿수 변화(2015, 2024)】





강원지청

11. 통계로 보는 강원	99
12. 데이터로 보는 강원	114





보도시점 2025. 6. 30.(월) 12:00 배포 2025. 6. 30.(월) 08:00

통계로 보는 강원도의 어제와 오늘

지역의 사회·경제 현황과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지표들을 일일이 찾아보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에 강원지방통계지청(지청장 정남수)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들을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강원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산업·경제, 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주거·교통, 안전·환경, 보건·복지, 교육, 가족·공동체·주관적웰빙, 건강·여가 등 10개 부문, 총 59개 지표를 수록하였다.

2024년 강원지역의 인구는 1,518천 명으로 2000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51.3%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167.4% 증가하였다. 2024년 출생아 수 또한 6,600명으로 2000년 대비 66.1%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2000년 1.60명에서 2024년 0.89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강원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56.5조 원으로 2000년 대비 97.6% 증가하였고, 가구 경상소득은 6,077만 원, 가구 순자산은 3억 4,302만 원으로 2012년 대비 각각 55.0%, 87.6%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가구 경상소득이 1,108만 원, 가구 순자산이 1억 592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강원지역의 고용률은 63.5%로 2000년 대비 6.2%p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 또한 47.5%로 2005년 대비 7.1%p 증가하였고, 강원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9.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각종 주관적 지표들의 개선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강원지역 주민들의 2024년 삶의 만족도는 42.2%로 2010년 대비 12.3%p 증가, 2023년 소득만족도는 31.9%로 2009년 대비 17.7%p 증가, 2023년 근로여건 만족도는 43.9%로 2009년 대비 11.4%p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삶의 만족도가 2.1%p, 소득만족도가 3.8%p, 근로여건 만족도가 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강원지역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연구 등에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통계로 보는 강원’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 1부.

담당 부서	강원지방통계지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한윤희 (033-258-3740)
		담당자	팀 장	류현욱 (033-258-3745)

통계로 보는 강원도의 어제와 오늘

2025. 6.



강원지방통계지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 본 보고서는 강원지역의 각종 통계 지표를 한 곳에 모아, 강원지역의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 ☐ 인구·가구, 산업·경제, 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주거·교통, 안전·환경, 보건·복지, 교육, 가족·공동체·주관적웰빙, 건강·여가 등 10개 부문, 총 59개 지표를 수록함
- ☐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각 부처 및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공유된 통계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표기하였음
- ☐ 각 자료별로 통계표의 기준시점이 다르니 해석 시 유의
- ☐ 자료원(조사 시점,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의 차이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각 개별지표와 관련 유사통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 각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된 수치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값 없음, 「0」: 단위 미만의 값, p): 잠정치
- ☐ 본 보고서는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gw>)에서도 볼 수 있음

목 차

00. 요약	1
01. 인구·가구	
1. 인구	10
2. 연령계층별 인구	11
3. 출생·사망·혼인·이혼	12
4. 등록외국인	13
5. 인구 이동(전입·전출)	14
6. 가구	15
02. 산업·경제	
1. 지역내총생산	17
2. 지역내총생산 산업별 비중	18
3. 사업체 수	19
4.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20
5. 종사상지위별 사업체 종사자 수	21
6. 광공업생산지수	22
7. 서비스업생산지수	23
8. 창업기업 수	24
9. 농가 수	25
10. 작물재배면적	26
03. 소득·소비·자산	
1. 가구 경상소득	28
2. 가구 순자산	29
3.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30

4.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31
5. 소비자물가지수	32
04. 고용·노동	
1. 고용률, 실업률	34
2. 비정규직 비율	35
3. 노동생산성	36
4. 근로여건 만족도	37
05. 주거·교통	
1. 주택 수	39
2. 주택보급률, 주택소유가구 비율	40
3.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41
4. 자동차 등록대수	42
5. 통근시간, 통학시간	43
06. 안전·환경	
1. 교통사고	45
2. 화재발생	46
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47
4. 미세먼지 농도	48
5. 생활환경 만족도	49
6.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50
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1
07. 보건·복지	
1. 의료기관	53
2. 의료인력	54

3. 어린이집	55
4. 노인복지시설	56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7
08. 교육	
1. 학생 수	59
2.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60
3. 사교육 참여율, 1인 월평균 사교육비	61
4. 교육비 부담도	62
5. 학교교육의 효과	63
6. 학교생활 만족도	64
09. 가족·공동체·주관적웰빙	
1. 가족관계 만족도	66
2. 사회적 고립도	67
3. 독거노인비율	68
4. 자원봉사 참여율	69
5. 삶의 만족도	70
10. 건강·여가	
1. 주관적 건강상태	72
2. 스트레스 인지율	73
3. 건강관리 실천율	74
4. 여가시간	75
5. 여가생활 만족도	76
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77

00

요약

1. 인구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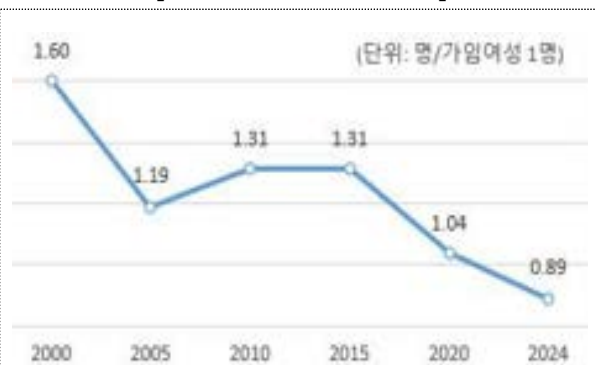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인구는 1,518천 명으로 2000년 1,555천 명에서 37천 명 (-2.4%) 감소, 전국에서 차지하는 강원 인구의 비중도 2024년 3.0%로 2000년 3.3%에서 0.3%p 감소
- 2024년 강원 유소년인구는 148천 명으로 2000년 304천 명에서 51.3% 감소, 고령인구는 2024년 385천 명으로 2000년 144천 명에서 167.4% 증가
- 2024년 강원 출생아 수는 6,600명으로 2000년 19,482명에서 12,882명 (-66.1%) 감소, 합계출산율도 2024년 0.89로 2000년 1.60에서 0.71 감소

[강원 인구 변화(2000년,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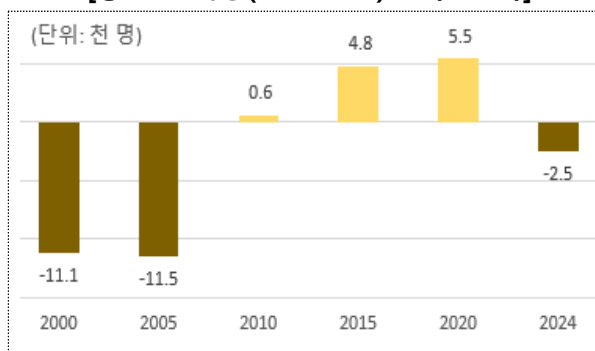
[강원 합계출산률 추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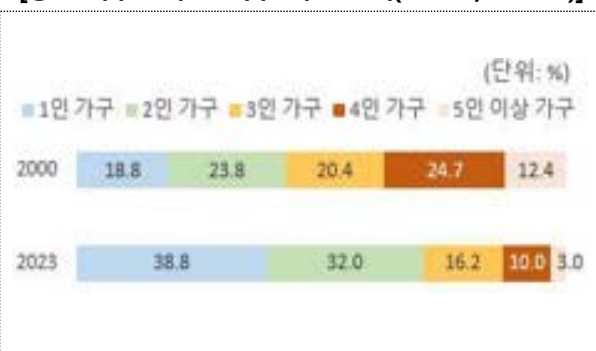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전입 인구는 184,339명 전출 인구는 186,866명으로 2,527명 순유출, 2000년 11,134명 순유출에서 2024년 순유출자 8,607명 감소
- 2023년 강원 전체 가구는 698천 가구로 2000년 487천 가구에서 211천 가구 (43.3%) 증가, 2023년 강원 1인 가구 비율은 38.8%로 2000년 18.8%에서 20.0%p 증가

[강원 순이동(전입-전출) 인구 변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강원 가구원 수별 가구 비율 변화(2000년, 2023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2. 산업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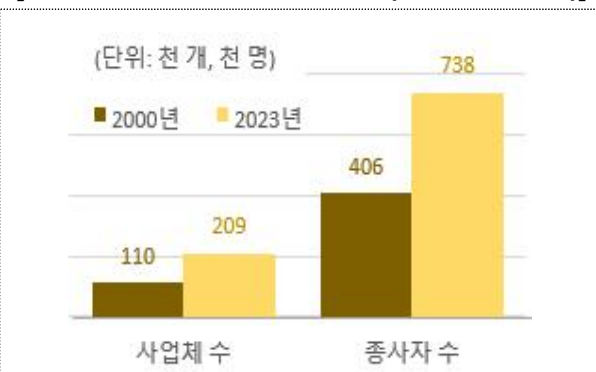
- 2023년 강원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62.1조 원으로 전국 합계 2,404조 원의 2.6%를 차지함
- 2023년 강원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56.5조 원으로 2000년 28.6조 원에서 27.9조 원(97.6%) 증가
- 2023년 강원 지역내총생산을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3%), 광·제조업(11.1%), 도소매·음식숙박업(10.3%), 건설업(8.4%), 농림어업(4.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강원 전체 사업체 수는 209천 개로 2000년 110천 개에서 99천 개(90.2%) 증가, 2023년 강원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738천 명으로 2000년 406천 명에서 333천 명(82.0%) 증가함

[강원 명목 지역내총생산 추이]



통계청 「지역소득」

[강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변화(200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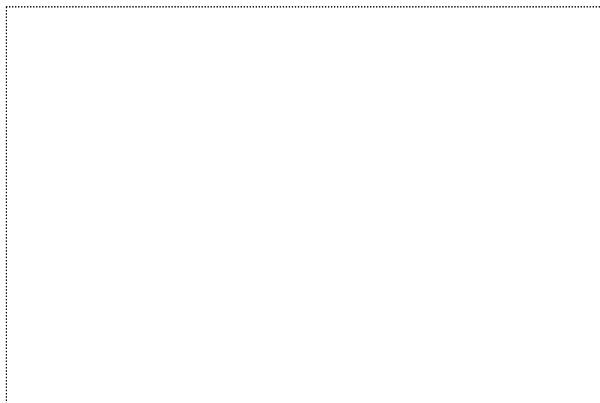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2024년 강원 광공업생산지수는 102.0으로 2000년 68.2에서 33.8(49.5%) 증가, 2024년 강원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1.7로 2010년 89.3에서 22.4(25.1%) 증가
- 2024년 강원 농가는 65천 가구로 2000년 77천 가구에서 12천 가구(-16.1%) 감소,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47.0%), 60대(36.9%), 50대(12.9%), 40대(2.9%), 30대 이하(0.3%) 순으로 나타남

3. 소득 · 소비 · 자산

- 2023년 강원 가구 경상소득은 6,077만 원으로 2012년 3,920만 원에서 2,157만 원(55.0%) 증가, 전국 평균 7,185만 원에 비해 1,108만 원 낮음
- 2024년 강원 가구 순자산은 3억 4,302만 원으로 2012년 1억 8,285만 원에서 1억 6,017만 원(87.6%) 증가, 전국 평균 4억 4,894만 원에 비해 1억 592만 원 낮음
- 2023년 강원 소득 만족도는 31.9%로 2009년 14.2%에서 17.7%p 증가, 2023년 강원 소비생활 만족도는 21.6%로 2009년 12.6%에서 9.0%p 증가
- 2024년 강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2000년 64.1에서 51.6(80.5%) 증가

[전국, 강원 가구 경상소득 추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전국, 강원 가구 순자산 추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4. 고용 · 노동

- 2024년 강원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2.8%로 2000년 대비 각각 6.2%p, 0.2%p 증가
- 2024년 강원 비정규직 비율은 47.5%로 2005년 40.4%에서 7.1%p 증가, 전국 평균 38.2%에 비해 9.3%p 높음
- 2023년 강원 노동생산성은 67.2백만 원으로 2015년 61.1백만 원에서 6.1백만 원(10.0%) 증가, 전국 평균 79.1백만 원에 비해 11.8백만 원 낮음
- 2023년 강원 근로여건 전반적인 만족도는 43.9%로 2009년 32.5%에서 11.4%p 증가, 전국 평균 35.1%에 비해 8.8%p 높음

[전국, 강원 고용률 추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강원 근로여건 만족도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

5. 주거 ·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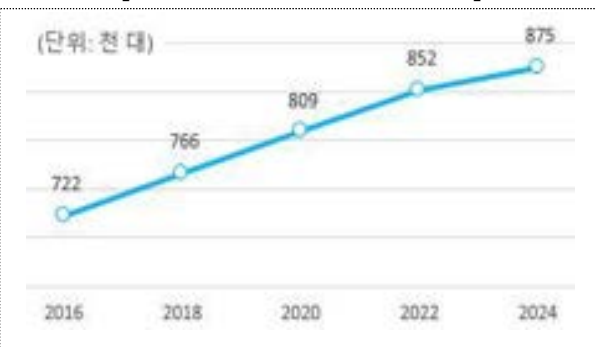
- 2023년 강원 주택 수는 675천 호로 2000년 419천 호에서 256천 호(60.9%) 증가,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57.4%), 단독주택(35.6%), 연립주택(3.3%), 다세대주택(1.9%),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1.7%)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강원 주택보급률은 109.2%, 주택소유가구 비율은 58.3%, 노후주택 비율은 30.7% 빈집 비율은 12.2%로 나타남
- 2024년 강원 자동차 등록대수는 875천 대로 차종별로는 승용차(77.6%), 화물차(19.0%), 승합차(2.8%), 특수차량(0.6%) 순으로 나타남

[강원 주택종류별 비율 변화(2000년, 2023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강원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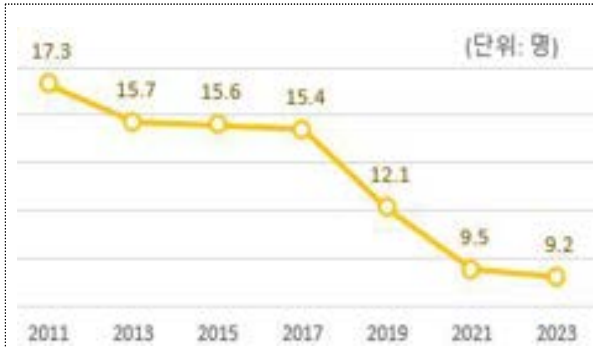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6. 안전 · 환경

- 2023년 강원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2명으로 2011년 17.3명에서 47.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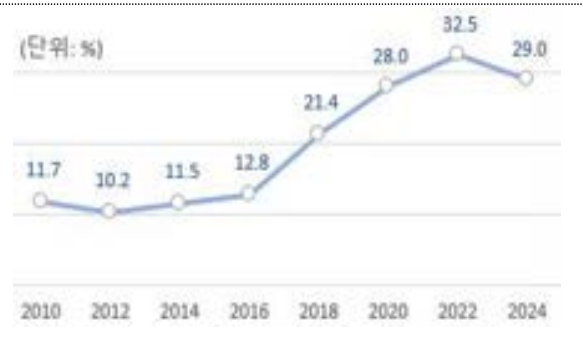
- 2023년 강원 화재발생 건수는 1,977건으로 2010년 2,430건에서 18.6% 감소
- 2024년 강원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도는 29.0%로 2010년 11.7%에서 17.3%p 증가

[강원 인구 십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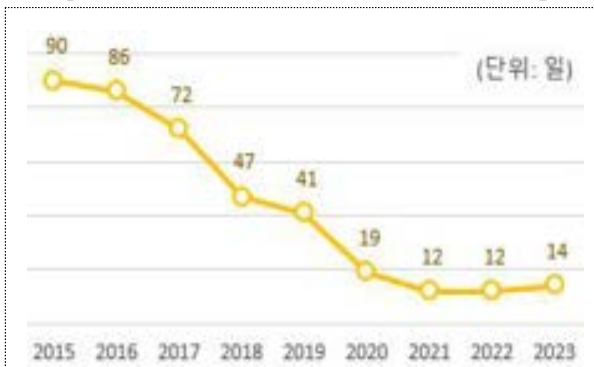
[강원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도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

- 2023년 강원 미세먼지 나쁨일수(PM2.5 기준)는 14일로 2015년 90일에서 84.4% 감소
- 2023년 강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698톤/일로 2015년 1,794톤/일에서 5.3% 감소
- 2023년 강원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511GWH로 에너지원별로 보면 태양광(35.6%), 바이오(27.9%), 풍력(14.8%), 수력(14.5%) 순으로 나타남

[강원 미세먼지 나쁨일수(PM2.5) 추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강원 신재생에너지 비율 변화(2015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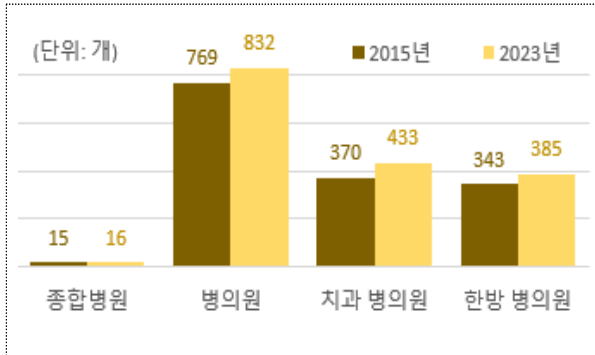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7. 보건 · 복지

- 2023년 강원 병의원 수는 832개로 2015년 769개에서 63개(8.2%) 증가
- 2023년 강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2015년 2.3명에서 0.3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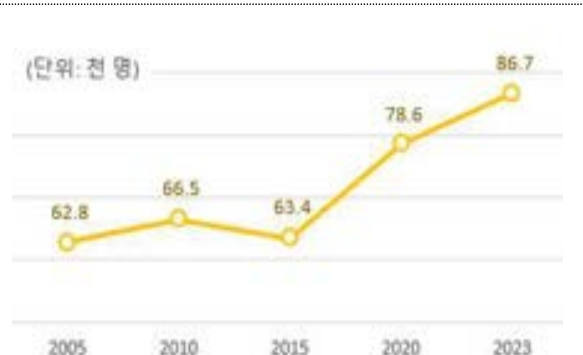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유아 천 명당 어린이집 수는 18.2개로 2015년 17.2개에서 5.7% 증가
- 2023년 강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86.7천 명으로 2005년 62.8천 명에서 38.1% 증가

[강원 주요 의료기관 수 변화(2015년,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강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추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8.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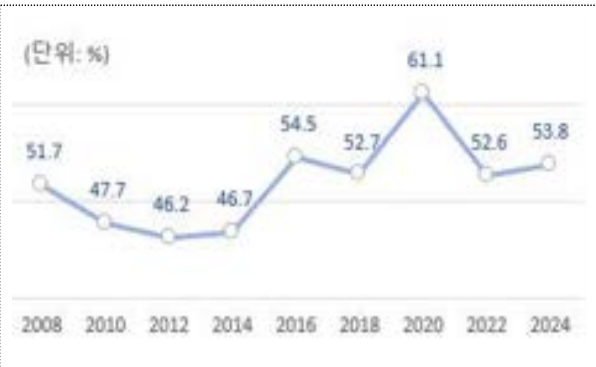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유초중고 학생 수는 151,614명으로 2000년 269,845명에서 118,231명(-43.8%) 감소
- 2024년 강원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4.0명,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22.6명, 고등학교 21.4명으로 나타남
- 2024년 강원 학교급별 1인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3.0만 원, 중학교 35.6만 원, 고등학교 33.7만 원(일반고 38.4만 원)으로 나타남
- 2024년 강원 교육비 부담도는 55.0%로 2008년 78.6%에서 23.6%p 감소
- 2024년 강원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53.8%로 2008년 51.7%에서 21%p 증가

[강원 학생 수 변화(2000년,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강원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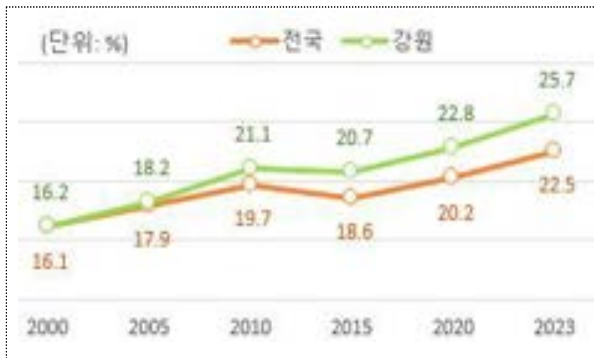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

9. 가족 · 공동체 · 주관적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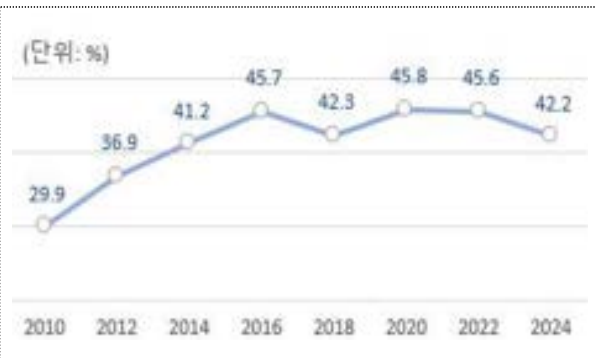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67.6%로 2008년 60.9%에서 6.7%p 증가
- 2023년 강원 사회적 고립도는 33.7%로 2009년 37.4%에서 3.7%p 감소
- 2023년 강원 독거노인비율은 25.7%로 2000년 16.2%에서 9.5%p 증가
- 2024년 강원 삶의 만족도는 42.2%로 2010년 29.9%에서 12.3%p 증가

[전국, 강원 독거노인비율 추이]



통계청 「인구총조사」

[강원 삶의 만족도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

10. 건강 ·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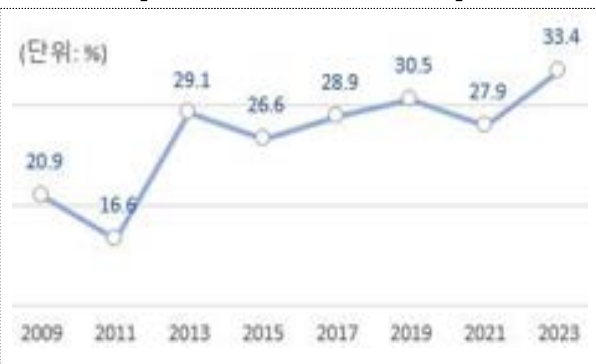
- 2024년 강원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비율은 51.2%로 2008년 50.9%에서 0.3%p 증가
- 2024년 강원 스트레스 인지율은 35.8%로 2008년 57.4%에서 21.6%p 감소
- 2024년 강원 일평균 여가시간은 4.0시간으로 2014년 3.8시간에서 0.2시간 증가
- 2023년 강원 여가생활 만족도는 33.4%로 2009년 20.9%에서 12.5%p 증가

[강원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비율 변화(2008년,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강원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시점 2025. 12. 18.(목) 12:00 배포 2025. 12. 18.(목) 09:00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담당 부서	강원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한윤희 (033-258-3740)
		담당자	팀 장	김금녀 (033-258-3744)
		담당자	주무관	김정아 (033-258-3748)

일 러 두 기

□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개요

- 본 보도자료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생애단계별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분석하였으며, 각 통계표마다 자료 출처와 유의사항을 표기함
- 활용자료

자료명	시계열	기준시점	자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20~2024년	기준연도	국가데이터처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	2020~2023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2024년	8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 분석 대상

- 1인가구: 일반가구 중 가구 내 가구원이 1인인 가구
- 생애단계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만 18~45세	만 46~64세	만 65세 이상

* 청년층 연령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정함

□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 각 통계표는 활용자료의 제공 시점에 따라 기준시점 등에 차이가 있으며, 기초자료의 작성 기준 차이 등으로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특히,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를 이용하여 집계한 자료는 포괄 범위의 차이 등으로 자료원의 집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gw/>)에 게시

목 차

□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요약)	1
--------------------------------------	---

□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I. 가구

1. 생애단계별 1인가구 규모	3
2. 시군별 1인가구	4
3. 성별 1인가구	5
4. 연령별 1인가구	6
5. 1년 전 거주지역별 1인가구	7

II. 주거

1. 거처종류별 1인가구	9
2. 주거면적별 공동주택 거주 1인가구	10
3. 노후주택 거주 1인가구	11
4. 주택소유여부별 1인가구	12

목 차

Ⅲ. 경제활동

1. 취업여부별 1인가구	13
2. 종사상지위별 등록취업 1인가구	14
3. 기업 산업분류별 등록취업 1인가구	15
4. 소득구간별 등록취업 1인가구	16

Ⅳ. 건강

1. 1인가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17
2. 1인가구의 도내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주 이용 의료기관	18
3. 1인가구의 도내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19
4. 1인가구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

□ 통계표	21
-------------	----

◇ 부 록

1. 『데이터로 보는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 개요	27
2. 주요 용어 해설	28

강원 생애단계별 1인가구 현황[요약]

I. 가구

- (생애단계 1인가구) 2024년 강원지역 1인가구는 277,109가구로 일반가구의 39.4%를 차지하였으며, 모든 생애단계에서 2020년 대비 1인가구가 증가함
- (시군) 2024년 1인가구 비중이 청년층에서는 춘천시(45.4%)가 가장 높고, 중장년층은 평창군(38.2%), 노년층은 영월군(48.6%)이 가장 높음
- (성별) 2024년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가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은 반면, 노년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9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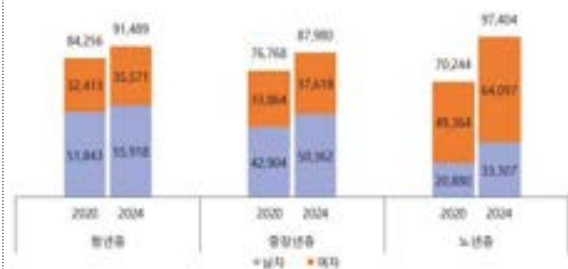
< 생애단계별 1인가구 비율 >

(단위: %)



< 성별 1인가구 수(2020, 2024) >

(단위: 가구)



II. 주거

- (거처종류) 2024년 1인가구는 모든 생애단계에서 거처 비중이 단독주택, 아파트 순으로 높음
- (주택소유여부) 2023년 주택을 소유한 1인가구 비율은 노년층(46.1%), 중장년층(42.0%), 청년층(15.9%) 순으로 높음

< 거처종류별 1인가구 구성비(2024) >

(단위: %)



< 1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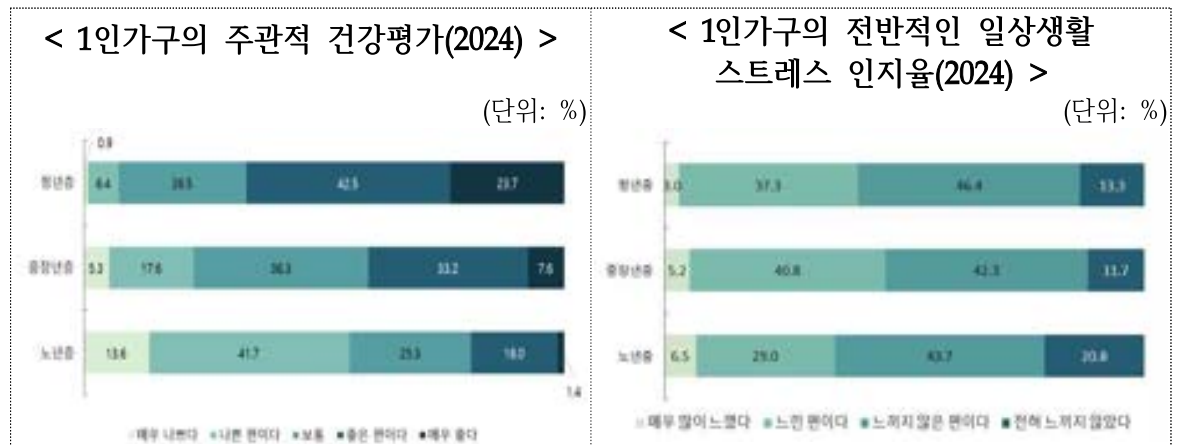
Ⅲ. 경제활동

- (취업여부) 2023년 등록취업 1인가구 비율은 청년층(88.5%), 중장년층(77.4%), 노년층(48.1%) 순으로 높음
- (종사상지위) 2023년 등록취업 1인가구의 종사상지위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상시근로자 비중(각각 75.7%, 58.9%)이 가장 높고, 노년층은 일용근로자(54.7%)가 가장 높음
- (산업분류) 2023년 등록취업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청년층은 공공행정(17.0%), 중장년층은 건설업(19.1%), 노년층은 보건·사회복지업(35.7%)이 가장 높음



Ⅳ. 건강

- (주관적 건강평가) 2024년 1인가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점수(5점 평균)는 청년층(3.8점), 중장년층(3.2점), 노년층(2.5점) 순으로 높음
-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2024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비율은 중장년층(46.0%), 청년층(40.3%), 노년층(35.5%) 순으로 높음



호 남 청

13.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123
14. 호남 · 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	134
15. 호남 ·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145
16.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	158
17. 통계로 본 호남 · 제주지역 중장년	161
18.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	171
19. 2023년 기준 호남 ·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180
20. 2024년 전북 · 전남 · 제주지역 귀농어 · 귀촌인 현황	187
21. 2024년 호남 · 제주지역 인구동향	196
22. 전북 · 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206
23. 2025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20



보도시점 2025. 4. 15.(화) 12:00 배포 2025. 4. 15.(화) 09:00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백순미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김승범 (062-370-6342)

일 러 두 기

□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은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호남·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가 있는 가구,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되는 가구를 의미함

※ 부록3 「인구총조사」 작성 개요 참조

- 다문화 혼인·이혼·출생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정의를 준용하여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 이혼, 출생 사건을 의미함

※ 부록4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작성 개요 참조

□ **활용자료:** 2019년~2023년 인구총조사 및 인구동향조사, 교육기본 통계, 지역통계 행정DB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출생은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 지역별 통계표에서 혼인·이혼은 부부 중 국내 주소지(단, 부부가 모두 국내 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출생은 출생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반올림하여 0이 되는 음의 증감(률)은 0 앞에 - 를 붙여 표시함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요약)	1
--------------------------------------	---

□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	--

I. 다문화 가구

1. 다문화 가구 현황	6
2. 구성별 다문화 가구	9
3. 가구원 수별 다문화 가구	10
4. 거주 종류별 다문화 가구	11
5. 다문화 가구원 현황	12
6. 성별·연령대별 다문화 가구원	15
7. 구성별 다문화 가구원	16
8. 다문화 대상자	17
9. 국적별 다문화 대상자	18

II. 다문화 혼인·이혼·출생

1. 다문화 혼인 현황	19
2. 외국인 남편·아내의 출신 국적별 혼인	22
3. 다문화 이혼 현황	23
4. 외국인 남편·아내의 출신 국적별 이혼	26
5. 다문화 출생 현황	27

Ⅲ. 다문화 교육

1.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현황 30
2. 국제결혼가정 중학생 현황 31
3. 국제결혼가정 고등학생 현황 32

Ⅳ. 다문화 경제

1. 다문화가구원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33
2. 다문화가구원 일자리 산업별 현황 34

- 통계표 35

◇ 부 록

1.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개요 59
2. 주요 용어 해설 60
3. 『인구총조사』 작성 개요 61
4. 인구동향조사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작성 개요 62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요약)

I. 다문화 가구

‘23년 다문화 가구 수는 5년 전인 ‘19년에 비해 광주 18.4%, 전북 17.0%, 전남 16.0%, 제주 21.5%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3년 호남·제주지역 다문화가구 수는 광주 8,700가구, 전북 14,693가구, 전남 16,325가구, 제주 6,164가구로 5년 전에 비해 광주 18.4%, 전북 17.0%, 전남 16.0%, 제주 21.5% 각각 증가
-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 비중은 광주 1.4%, 전북 1.8%, 전남 2.0%, 제주 2.2% 차지

< 다문화 가구 수 ('19~'23) >



‘23년 시군구별 전체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 비중이 높은 시(市)는 정읍시·남원시 (2.4%), 군(郡)은 영암군(3.8%), 구(區)는 광주 광산구(2.2%) 임

- 2023년 기준,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군(3.8%), 전북 장수군(3.0%), 전북 순창군·전남 장성군·전북 진안군(2.9%) 순이며,
- 시(市)의 경우, 전북 정읍시·남원시(2.4%)가 높고, 군(郡)은 전남 영암군 (3.8%)이 높고, 구(區)는 광주 광산구(2.2%)가 가장 높음

< ‘23년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수 상위 5순위 > < ‘23년 다문화 가구 비중 상위 5순위 >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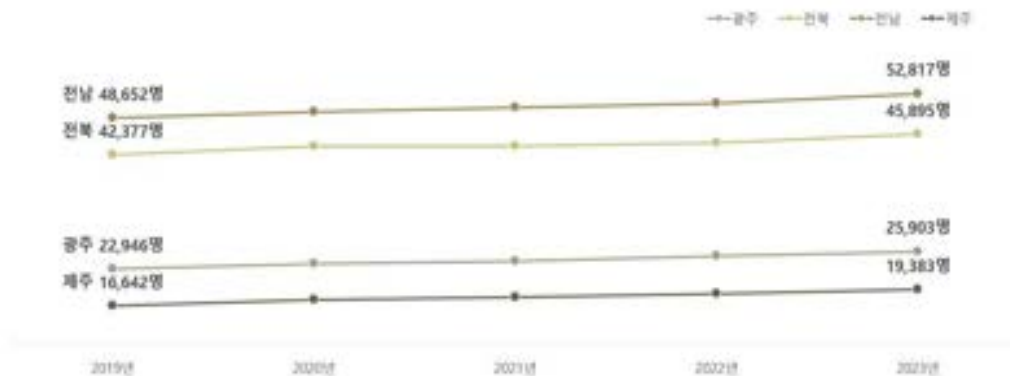


시(市)		군(郡)		구(區)	
전북 정읍시	2.4	전남 영암군	3.8	광주 광산구	2.2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3.0	광주 북구	1.2
제주 서귀포시	2.3	전북 순창군	2.9	광주 남구	1.1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광주 서구	0.9
전남 나주시		전북 진안군		광주 동구	0.8

'23년 다문화 가구원 수는 5년 전인 '19년에 비해 제주 16.5%, 광주 12.9%, 전남 8.6%, 전북 8.3%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3년 호남·제주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는 광주 25,903명 전북 45,895명, 전남 52,817명, 제주 19,383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제주 16.5%, 광주 12.9%, 전남 8.6%, 전북 8.3% 각각 증가
- 전체 가구원 중 다문화 가구원 비중은 광주 1.8%, 전북 2.6%, 전남 3.0%, 제주 2.9% 차지

< 다문화 가구원 수 ('19~'23) >



'23년 다문화 가구의 주된 주거 중 아파트 거주 비중은 광주(61.9%)와 전북(47.1%)이 높고, 단독주택 비중은 전남(50.0%)과 제주(47.5%)가 높음

- 2023년 다문화 가구의 주거 종류의 경우, 광주는 아파트 61.9%, 단독주택 31.6%, 전북은 아파트 47.1%, 단독주택 44.8%, 전남은 단독주택 50.0%, 아파트 41.6%, 제주는 단독주택 47.5%, 아파트 21.3% 순으로 높음
- 또한, 제주는 다세대주택(11.9%)과 연립주택(9.2%), 주택이외의 주거(7.3%)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광주, 전북, 전남에 비해 높음

< '23년 주거 종류별 다문화 가구 >

(단위: %)

구 분	합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주거
전 국	100.0	95.0	32.3	44.8	2.6	14.0	1.4	5.0
광 주	100.0	97.6	31.6	61.9	1.9	1.1	1.1	2.4
전 북	100.0	97.5	44.8	47.1	2.4	1.8	1.4	2.5
전 남	100.0	96.9	50.0	41.6	2.0	1.6	1.7	3.1
제 주	100.0	92.7	47.5	21.3	9.2	11.9	2.8	7.3

자료: 「인구총조사」, 통계청

Ⅱ. 다문화 혼인·이혼·출생

‘23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광주 33.8%, 전북 22.2%, 전남 19.6%, 제주 21.9% 증가, 다문화 혼인 비중은 광주 9.1%, 전북 12.4%, 전남 12.5%, 제주 13.6%임

- 2023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광주 475건, 전북 694건, 전남 782건, 제주 362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제주 13.6%, 전남 12.5%, 전북 12.4%, 광주 9.1%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1위, 전남 3위, 전북 4위를 차지함

< ‘23년 다문화 혼인건수 및 비중 >



‘23년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광주 43.1%, 전북 19.5%, 전남 1.7%은 증가, 제주는 15.6% 감소, 다문화 이혼 비중은 광주 8.5%, 전북 9.9%, 전남 8.7%, 제주 8.5%임

- 2023년 다문화 이혼 건수는 광주 206건, 전북 343건, 전남 306건, 제주 130건으로 전년 대비 광주·전남·전북은 증가, 제주는 감소함
-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은 광주 8.5%, 전북 9.9%, 전남 8.7%, 제주 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서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함

< ‘23년 다문화 이혼건수 및 비중 >



‘23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광주 2.9%, 전북 13.0%은 증가, 전남 8.6%, 제주 12.4%는 감소, 다문화 출생 비중은 광주 5.2%, 전북 6.6%, 전남 6.3%, 제주 6.1%임

- 2023년 다문화출생아 수는 광주 323명, 전북 436명, 전남 492명, 제주 197명으로 전년 대비 광주·전북은 증가, 전남·제주는 감소함
-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광주 5.2%, 전북 6.6%, 전남 6.3%, 제주 6.1%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2위로 높음
- 한편, 5년전(‘19년)보다 광주 28.1%, 전북 39.9%, 전남 42.0%, 제주 43.7% 감소함

< ‘23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비중 >



Ⅲ. 다문화 교육

'23년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광주 0.7%, 전북 1.5%, 전남 5.8% 감소한 반면, 제주에는 1.9%증가, 5년 전 대비 전북, 전남은 감소한 반면, 광주와 제주는 증가함

-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수는 광주 2,573명, 전북 4,965명, 전남 5,972명, 제주 1,950명으로 전년 대비 광주 0.7%, 전북 1.5%, 전남 5.8% 감소한 반면, 제주에는 1.9% 증가
- 2019년 대비 광주(8.4%)와 제주(26.0%)는 증가한 반면, 전북(5.4%), 전남(9.8%)은 감소함

< '23년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수 >



'23년 국제결혼가정 중학생 수는 전년 대비 광주 25.7%, 전북 10.1%, 전남 7.1%, 제주 25.4%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제결혼가정 중학생 수는 광주 909명, 전북 2,175명, 전남 2,856명, 제주 61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7%, 10.1%, 7.1%, 25.4% 증가
- 2019년 대비 중학생 수는 광주 128.4%, 전북 99.5%, 전남 96.6%, 제주 183.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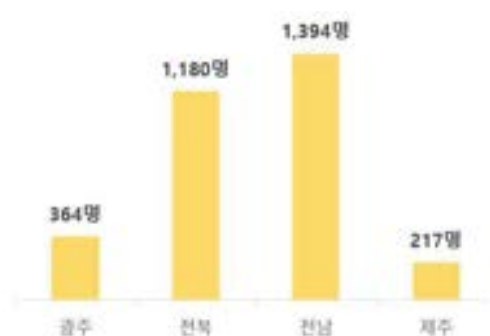
< '23년 국제결혼가정 중학생 수 >



'23년 국제결혼가정 고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광주 60.4%, 전북 30.0%, 전남 32.1%, 제주 35.6%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제결혼가정 고등학생 수는 광주 364명, 전북 1,180명, 전남 1,394명, 제주 21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0.4%, 30.0%, 32.1%, 35.6% 증가
- 2019년 대비 고등학생 수는 광주 48.6%, 전북 62.5%, 전남 29.4%, 제주 97.3% 증가함

< '23년 국제결혼가정 고등학생 수 >



IV. 다문화 경제

'23년 다문화가구원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는 광주 12,759명, 전북 22,173명, 전남 23,743명, 제주 9,761명으로 4개 지역 모두 상시근로자 비중이 높음

- 2023년 호남·제주지역 다문화가구원 종사자는 68,436명으로 전남 23,743명, 전북 22,173명, 광주 12,759명, 제주 9,761명 순으로 높으며,
- 전체 종사자 중 상시근로자 비중은 광주 60.1%, 전북 59.4%, 전남 57.8%, 제주 59.6%로 가장 높고,
- 광주·제주는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많은 반면, 전북·전남은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3년 다문화가구원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



'23년 다문화가구원 일자리 산업별 종사자 수는 광주·전북·전남은 제조업이 많고,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많음

- 2023년 다문화가구원 종사자는 수는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많고,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음
-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북 5,805명(26.2%), 전남 4,997명(21.0%), 광주 3,220명(25.2%), 제주 655명(6.7%)임

< '23년 다문화 일자리 산업별 현황 >





보도시점 2025. 5. 22.(목) 12:00 배포 2025. 5. 22.(목) 09:00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백순미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김진아 (062-370-6341)

일 러 두 기

-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은 최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중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호남·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변화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은 각종 통계자료에서 1인 가구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1인 가구: 혼자서 살람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주로, 2015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나 지표 특성에 따라 비교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본자료를 활용할 시 추정한 결과값이 전수의 총수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 산업분류는 2017년 개정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고, 직업분류는 2018년 개정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습니다.
- 이 자료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집계방법,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하여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통계표의 크기가 작은 값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통계표 중 「-」: 해당 숫자 없음 「0.0」: 단위 미만의 값
「*」: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값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나타냄(인구, 가구는 5 미만)
 - 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누리집(<https://koststa.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요약]	1
-------------------------	---

I. 가구

1. 전국 1인 가구	7
2. 성별 1인 가구	8
3. 연령대별 1인 가구	9
4. 시군구별 1인 가구	10
5. 1인 가구 전망	12
6. 연령대별 1인 가구 전망	13

II. 주거·고용

1. 주거유형	14
2. 연령대별 주거	15
3. 시군구별 주거	17
4. 자가 주택 소유	19
5. 아파트 소유	20
6. 취업가구	21
7. 산업별 취업	22
8. 직업별 취업	23
9. 종사상 지위	24

III. 생활

1.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25
2. 건강평가	26
3.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27
4.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28
5. 사회 불안 요인	29
6. 향후 혼자 살 계획	30
7. 예상되는 어려움	31
8. 지원 정책	32

■ 통계표	33
-------	----

◇ 부 록

1.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 개요	120
2. 주요 용어 해설	121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요약]

I. 가구

2023년 1인 가구는 광주 36.5%, 전북 37.7%, 전남 37.1%, 제주 33.7%로 2015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함

- '23년 전국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5.5%이며, 대전(39.4%)이 가장 높고, 울산(30.9%)이 가장 낮음
-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37.7%) 6번째, 전남(37.1%) 8번째, 광주(36.5%) 9번째, 제주(33.7%)가 13번째로 높음

【 시도별 1인가구 비중(2015년, 2023년) 】



2023년 성별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대비 전북, 전남, 제주에서 남자 가구가 증가한 반면, 광주에서는 여자 가구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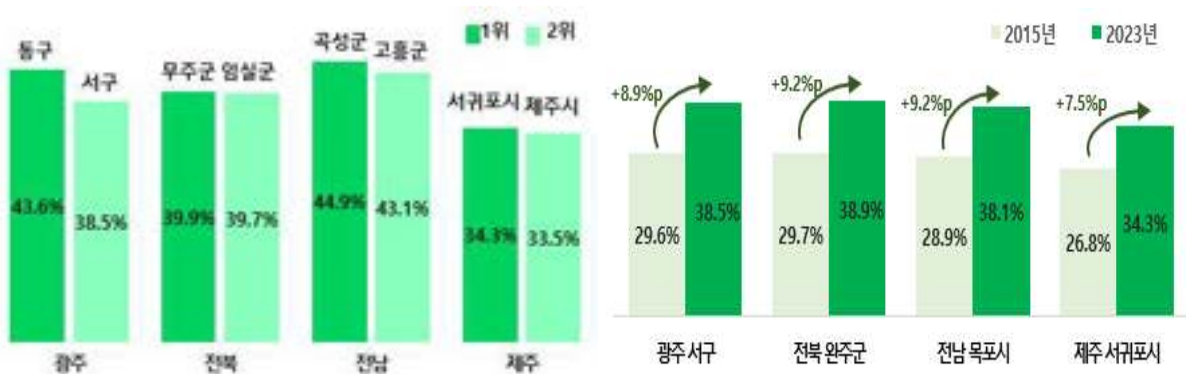
- '23년 성별 1인 가구 비중은 '15년 대비 남자는 전북(1.5%p), 전남(4.0%p), 제주(0.8%p)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광주(1.2%p)에서 증가함
- '15년 대비 남자 1인 가구는 전남(4.0%p), 여자 1인 가구는 광주(1.2%p)가 가장 크게 증가함

【 성별 1인가구 현황(2015년, 2023년) 】

2023년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동구,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 서귀포시가 가장 높음

- '23년 시군구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동구(43.6%), 전북 무주군(39.9%), 전남 곡성군(44.9%), 제주 서귀포시(34.3%)가 가장 높음
- '15년 대비 시군구별 1인 가구는 광주 서구(8.9%p), 전북 완주군(9.2%p), 전남 목포시(9.2%p), 제주 서귀포시(7.5%p)가 가장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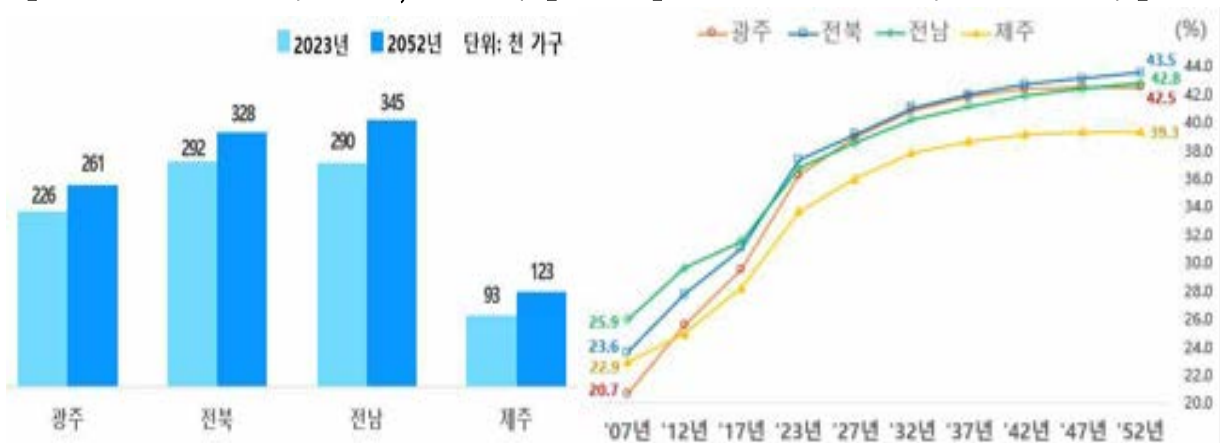
【 '23년 기준 시군구별 1인가구 비중 1,2순위 】 【 '15년 대비 시군구별 1인 가구 증가 1순위 】



2052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42.5%, 전북 43.5%, 전남 42.8%, 제주 39.3%로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됨

- '52년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수는 전남(345천 가구), 전북(328천 가구), 광주(261천 가구), 제주(123천 가구) 순이며,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2년 1인가구 비중은 '23년 대비 광주 6.3%p, 전북 6.2%p, 전남 6.1%p, 제주 5.7%p 증가할 것으로 보임

【 1인가구 수 전망(2023년, 2052년) 】 【 1인가구 추이 및 전망(2007년~205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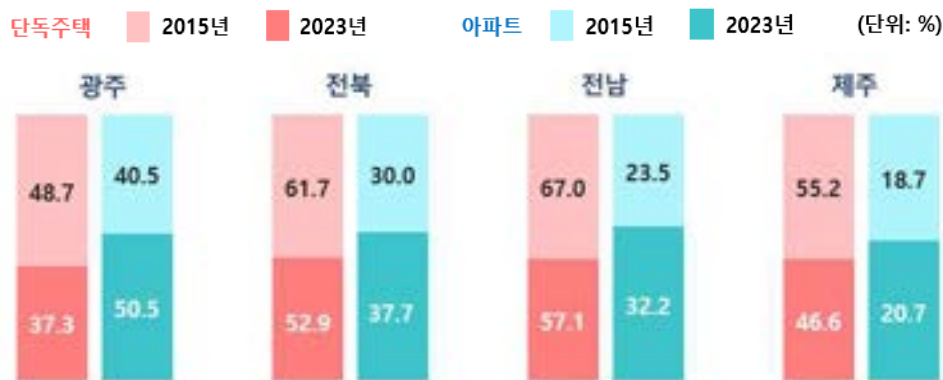


II. 주거·고용

2023년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은 2015년 대비 단독주택 비중은 감소, 아파트 비중은 증가함

- '23년 1인 가구 주거유형 중 아파트 비중은 광주(50.5%)에서 가장 높고, 단독주택 비중은 전북(52.9%), 전남(57.1%), 제주(46.6%)에서 가장 높음
- '15년 대비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광주 11.4%p, 전북 8.8%p, 전남 9.9%p, 제주 8.6%p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광주 10.0%p, 전북 7.7%p, 전남 8.7%p, 제주 2.0%p 증가함

【 아파트, 단독주택 거주 비중(2015년, 2023년) 】



2023년 지역별 시군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광주 동구,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제주 서귀포시가 높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광주 광산구,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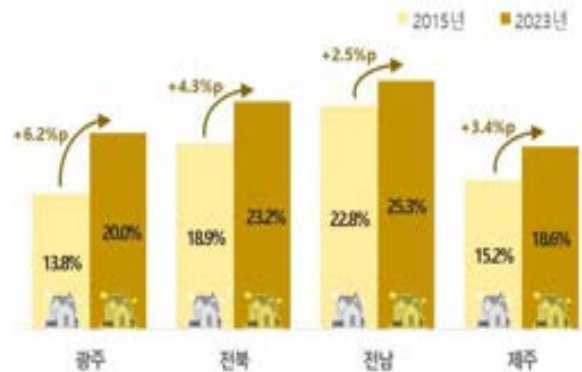
- '23년 시군구별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광주 동구(44.1%), 전북 장수군(84.7%), 전남 신안군(89.8%), 제주 서귀포시(51.1%)가 아파트 거주 비중은 광주 광산구(54.6%), 전북 군산시(48.7%), 전남 광양시(55.5%), 제주 서귀포시(21.3%)가 높음

【 시군구별 단독주택, 아파트 거주비중 1순위('23년) 】

2015년 대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의 증가는 광주가 6.2%p로 가장 크고, 전남이 2.5%p로 가장 작음

- '23년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중은 전남(25.3%), 전북(23.2%), 광주(20.0%), 제주(18.6%) 순으로 높음
- '15년 대비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중의 증가 폭은 광주 6.2%p, 전북 4.3%p, 전남 2.5%p, 제주 3.4%p임

【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중 변화('15년, '23년) 】



2015년 대비 1인 가구의 아파트 소유 비중의 증가는 광주가 6.6%p로 가장 크고, 제주가 4.5%p로 가장 작음

- '23년 1인 가구 아파트 소유 비중은 전남(20.7%), 전북(20.5%), 광주(18.8%), 제주(18.8%) 순으로 높음
- '15년 대비 1인 가구 아파트 소유 비중의 증가 폭은 광주 6.6%p, 전북 6.2%p, 전남 6.0%p, 제주 4.5%p임

【 1인 가구 아파트 소유 비중 변화('15년, '23년) 】



2023년 전체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의 증가 폭은 2015년 대비 전남이 4.2%p로 가장 크고, 제주가 2.2%p로 가장 작음

- '23년 전체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제주(67천 가구, 72.5%), 전남(186천 가구, 66.5%), 광주(135천 가구, 61.9%), 전북(165천 가구, 58.6%) 순으로 높음
- '15년 대비 1인 가구 취업 증가 폭은 전남(49천 가구, 4.2%p), 전북(47천 가구, 3.4%p), 광주(40천 가구, 3.1%p), 제주(26천 가구, 2.2%p) 순임

【 취업 가구 변화(2015년, 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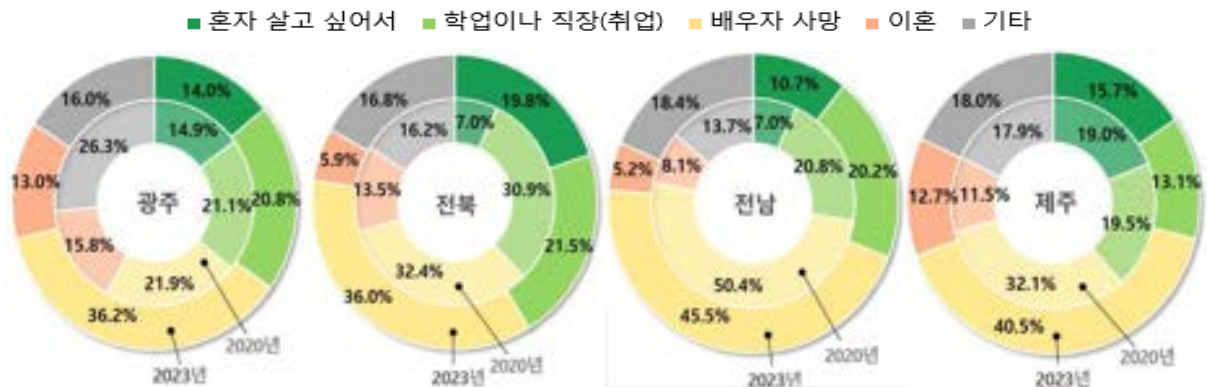


Ⅲ. 생활

2023년 호남·제주지역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임

- '23년 호남·제주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으로 광주 36.2%, 전북 36.0%, 전남 45.5%, 제주 40.5%를 차지함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20년 대비 「배우자 사망」은 광주 (14.3%p)와 제주(8.4%p)의 증가가 크고, 「혼자 살고 싶어서」는 전북(12.8%p)과 전남(3.7%p)의 증가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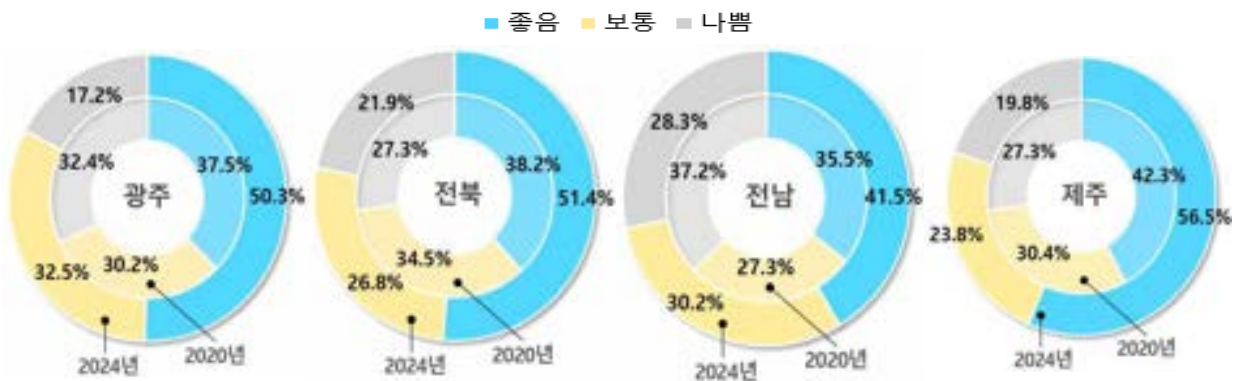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2020년, 2023년) 】



2024년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의 건강평가는 2020년 대비 「좋음」은 증가, 「나쁨」은 감소함

- '24년 호남·제주 1인 가구의 건강평가는 '20년 대비 「좋음」이 증가하고 「나쁨」은 감소함
- '20년 대비 「좋음」의 비중은 광주 12.8%p, 전북 13.2%p, 전남 6.0%p, 제주 14.2%p 증가함

【 건강평가(2020년, 2024년) 】



2023년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공적 지원(기초생계급여 등), 자녀 지원 순임

- '23년 1인 가구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20년 대비 광주·전남은 공적 지원(5.1%p), 전북과 전남은 본인 마련(8.9%p, 15.5%p), 제주·충청은 자녀 지원(5.2%p)의 증가 폭이 가장 큼

【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2020년, 2023년) 】

2023년 1인 가구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출 항목은 광주·전남은 식비, 전북은 주거비, 제주·충청은 의료비임

- 1인 가구가 가장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지출 항목은 '20년 대비 광주·전남은 의료비(9.9%p, 14.1%p), 전북은 주거비(17.1%p), 제주·충청은 식비(14.6%p)의 증가 폭이 가장 큼

【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2020년, 2023년) 】



보도시점 2025. 5. 28.(수) 12:00 배포 2025. 5. 28.(수) 9:00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백순미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김락현 (062-370-6343)

일 러 두 기

□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은 저출생 및 주거 안정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됨

○ 통계청에서 작성한 신혼부부통계를 호남·제주지역(광주·전북·전남·제주)을 중심으로 수집·재구성하여 분석함

○ 신혼부부통계는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기 조사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함

* 인구동향조사, 인구·가구DB, 주택소유통계DB, 일자리행정통계DB, 보육·소득자료, 금융권 대출자료 등

□ 작성대상은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호남·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임

○ '23년 기준 작성 대상은 '18. 11. 01.~ '23. 10. 31.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임

혼인 1년차	혼인 2년차	혼인 3년차	혼인 4년차	혼인 5년차
'22.11.01.~ '23.10.31.	'21.11.01.~ '22.10.31.	'20.11.01.~ '21.10.31.	'19.11.01.~ '20.10.31.	'18.11.01.~ '19.10.31.

□ 이용 시 유의 사항

○ 통계표의 주 작성단위는 신혼부부 수(쌍)로서 부부가 서로 다른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가중치(0.5)를 적용하여 집계함

○ 통계 작성에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작성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5 미만의 통계표 수치는 「*」로 처리함

*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

□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요약)	1
-----------------------------	---

□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	--

I. 신혼부부 수

1. 시도별 신혼부부 수	4
2.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수	5
3. 시군구별 신혼부부 수	6
4. 시군구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수	7

II. 혼인 형태

1. 신혼부부의 동거 여부	8
2.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	9
3. 혼인 연령차별 신혼부부 수	10
4.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11

III. 경제 활동

1.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	12
2. 소득구간별 신혼부부 수	13
3. 대출잔액 구간별 신혼부부 수	14

목 차

IV. 주거 형태

1.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15
2. 신혼부부의 거처 유형	16
3. 신혼부부의 소유주택 명의	17

V. 자녀 및 보육

1. 신혼부부의 자녀	18
2.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별 자녀	19
3.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별 자녀	20
4. 신혼부부 자녀(만 5세 이하)의 보육형태	21

□ 통계표	22
-------------	----

□ 부 록

1.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작성 개요	45
2. 신혼부부통계 작성 개요	46
3. 주요 용어 등 설명	47

2023년 광주 신혼부부 주요 현황

(단위: 쌍, 명, %)

구분		전체 ¹⁾		초혼		재혼	
			비중		비중		비중
신혼부부 수 ²⁾		25,954	100.0	20,901	100.0	4,960	100.0
혼인 연차	1년차	5,215	20.1	4,128	19.8	1,051	21.2
	2년차	4,844	18.7	3,874	18.5	946	19.1
	3년차	4,854	18.7	3,918	18.7	925	18.6
	4년차	5,227	20.1	4,247	20.3	969	19.5
	5년차	5,816	22.4	4,735	22.7	1,070	21.6
경제 활동	맞벌이	14,376	55.4	12,308	58.9	2,050	41.3
	외벌이	9,930	38.3	7,622	36.5	2,245	45.3
	기타 ³⁾	1,648	6.3	971	4.6	665	13.4
주택 소유	주택 미소유	12,597	48.5	10,213	48.9	2,317	46.7
	주택 소유	13,357	51.5	10,688	51.1	2,643	53.3
	1건	11,411	44.0	9,389	44.9	2,002	40.4
	2건	1,621	6.2	1,120	5.4	496	10.0
	3건 이상	326	1.3	180	0.9	146	2.9
거처 종류	단독주택	2,684	10.3	1,606	7.7	1,033	20.8
	아파트	21,501	82.8	17,917	85.7	3,544	71.5
	연립주택	563	2.2	435	2.1	123	2.5
	다세대주택	124	0.5	79	0.4	45	0.9
	기타 ⁴⁾	1,084	4.2	865	4.1	215	4.3
자녀 ⁵⁾	자녀 없음	9,732	37.5	8,418	40.3	1,246	25.1
	자녀 있음	16,223	62.5	12,483	59.7	3,714	74.9
	1명	11,078	42.7	9,795	46.9	1,263	25.5
	2명 이상	5,145	19.8	2,688	12.9	2,451	49.4
	1쌍당 평균 자녀 수(명)	0.86		0.73		1.42	

주 1) 전체 신혼부부 수에는 초혼, 재혼 외 미상이 포함

2)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 지역별 가중치(0.5)를 적용

3) 무직, 가사, 미상 등

4)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의 거처

5)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를 말함

2023년 전북 신혼부부 주요 현황

(단위: 쌍, 명, %)

구분		전체 ¹⁾		초혼		재혼	
			비중		비중		비중
신혼부부 수 ²⁾		27,473	100.0	19,962	100.0	7,452	100.0
혼인 연차	1년차	5,446	19.8	3,922	19.6	1,504	20.2
	2년차	5,103	18.6	3,666	18.4	1,427	19.1
	3년차	5,134	18.7	3,709	18.6	1,421	19.1
	4년차	5,568	20.3	4,115	20.6	1,444	19.4
	5년차	6,223	22.7	4,552	22.8	1,657	22.2
경제 활동	맞벌이	14,167	51.6	11,233	56.3	2,928	39.3
	외벌이	11,021	40.1	7,612	38.1	3,372	45.2
	기타 ³⁾	2,285	8.3	1,118	5.6	1,152	15.5
주택 소유	주택 미소유	14,149	51.5	10,773	54.0	3,335	44.8
	주택 소유	13,324	48.5	9,189	46.0	4,117	55.2
	1건	10,777	39.2	7,807	39.1	2,955	39.7
	2건	2,025	7.4	1,158	5.8	864	11.6
	3건 이상	522	1.9	225	1.1	298	4.0
거처 종류	단독주택	6,349	23.1	3,537	17.7	2,785	37.4
	아파트	19,194	69.9	15,174	76.0	3,995	53.6
	연립주택	552	2.0	370	1.9	182	2.4
	다세대주택	298	1.1	188	0.9	108	1.4
	기타 ⁴⁾	1,081	3.9	694	3.5	383	5.1
자녀 ⁵⁾	자녀 없음	10,424	37.9	8,511	42.6	1,874	25.1
	자녀 있음	17,049	62.1	11,451	57.4	5,578	74.9
	1명	10,482	38.2	8,769	43.9	1,698	22.8
	2명 이상	6,568	23.9	2,683	13.4	3,880	52.1
	1쌍당 평균 자녀 수(명)	0.92		0.71		1.48	

주 1) 전체 신혼부부 수에는 초혼, 재혼 외 미상이 포함

2)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 지역별 가중치(0.5)를 적용

3) 무직, 가사, 미상 등

4)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의 거처

5)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를 말함

2023년 전남 신혼부부 주요 현황

(단위: 쌍, 명, %)

구분		전체 ¹⁾		초혼		재혼	
			비중		비중		비중
신혼부부 수 ²⁾		30,445	100.0	21,491	100.0	8,890	100.0
혼인 연차	1년차	6,149	20.2	4,292	20.0	1,841	20.7
	2년차	5,955	19.6	4,155	19.3	1,785	20.1
	3년차	5,720	18.8	4,057	18.9	1,653	18.6
	4년차	5,981	19.6	4,273	19.9	1,697	19.1
	5년차	6,641	21.8	4,714	21.9	1,915	21.5
경제 활동	맞벌이	15,101	49.6	11,749	54.7	3,341	37.6
	외벌이	12,580	41.3	8,490	39.5	4,051	45.6
	기타 ³⁾	2,765	9.1	1,253	5.8	1,499	16.9
주택 소유	주택 미소유	14,061	46.2	10,196	47.4	3,816	42.9
	주택 소유	16,385	53.8	11,295	52.6	5,075	57.1
	1건	12,973	42.6	9,409	43.8	3,552	40.0
	2건	2,697	8.9	1,552	7.2	1,144	12.9
	3건 이상	716	2.4	335	1.6	380	4.3
거처 종류	단독주택	7,342	24.1	3,611	16.8	3,700	41.6
	아파트	20,520	67.4	16,146	75.1	4,351	48.9
	연립주택	612	2.0	437	2.0	173	1.9
	다세대주택	288	0.9	158	0.7	130	1.5
	기타 ⁴⁾	1,685	5.5	1,140	5.3	537	6.0
자녀 ⁵⁾	자녀 없음	10,820	35.5	8,654	40.3	2,125	23.9
	자녀 있음	19,625	64.5	12,837	59.7	6,765	76.1
	1명	11,750	38.6	9,705	45.2	2,027	22.8
	2명 이상	7,875	25.9	3,132	14.6	4,738	53.3
	1쌍당 평균 자녀 수(명)	0.97		0.75		1.52	

주 1) 전체 신혼부부 수에는 초혼, 재혼 외 미상이 포함

2)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 지역별 가중치(0.5)를 적용

3) 무직, 가사, 미상 등

4)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의 거처

5)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를 말함

2023년 제주 신혼부부 주요 현황

(단위: 쌍, 명, %)

구분		전체 ¹⁾		초혼		재혼	
			비중		비중		비중
신혼부부 수 ²⁾		13,831	100.0	9,898	100.0	3,813	100.0
혼인 연차	1년차	2,564	18.5	1,782	18.0	744	19.5
	2년차	2,680	19.4	1,899	19.2	748	19.6
	3년차	2,520	18.2	1,817	18.4	690	18.1
	4년차	2,933	21.2	2,149	21.7	771	20.2
	5년차	3,135	22.7	2,252	22.8	861	22.6
경제 활동	맞벌이	7,274	52.6	5,724	57.8	1,521	39.9
	외벌이	5,286	38.2	3,532	35.7	1,688	44.3
	기타 ³⁾	1,271	9.2	643	6.5	605	15.9
주택 소유	주택 미소유	7,241	52.4	5,326	53.8	1,823	47.8
	주택 소유	6,590	47.6	4,573	46.2	1,990	52.2
	1건	5,243	37.9	3,834	38.7	1,383	36.3
	2건	1,032	7.5	607	6.1	425	11.1
	3건 이상	315	2.3	133	1.3	183	4.8
거처 종류	단독주택	4,240	30.7	2,617	26.4	1,572	41.2
	아파트	4,263	30.8	3,369	34.0	869	22.8
	연립주택	1,981	14.3	1,535	15.5	438	11.5
	다세대주택	2,170	15.7	1,593	16.1	563	14.8
	기타 ⁴⁾	1,177	8.5	786	7.9	372	9.8
자녀 ⁵⁾	자녀 없음	5,644	40.8	4,361	44.1	1,190	31.2
	자녀 있음	8,187	59.2	5,538	56.0	2,623	68.8
	1명	5,182	37.5	4,231	42.7	931	24.4
	2명 이상	3,005	21.7	1,307	13.2	1,693	44.4
	1쌍당 평균 자녀 수(명)	0.86		0.70		1.31	

주 1) 전체 신혼부부 수에는 초혼, 재혼 외 미상이 포함

2) 부부의 거처가 다른 경우 거주 지역별 가중치(0.5)를 적용

3) 무직, 가사, 미상 등

4)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의 거처

5) 아내를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 자녀를 포함한 총 자녀 수를 말함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요약)

I. 신혼부부 수

‘23년 신혼부부 수는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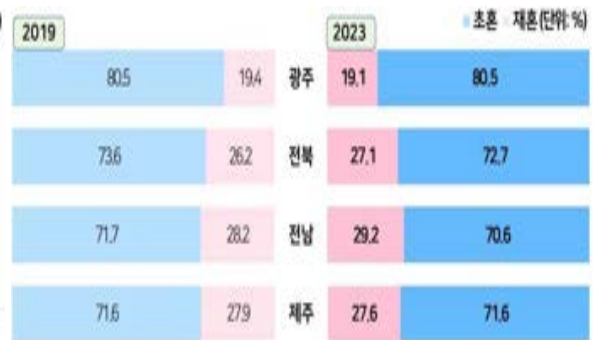
- (신혼부부 수) ‘23년 기준 신혼부부 수는 광주 25,954쌍, 전북 27,473쌍, 전남 30,445쌍, 제주 13,831쌍으로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감소함
- (혼인 종류별) ‘19년 대비 초혼 비중은 광주 외에 모두 감소하였고, 재혼은 광주와 제주에 감소하고, 전북과 전남은 증가함

【 신혼부부 수 】



【 혼인종류별 신혼부부 비중 】

※ 초혼, 재혼 외 미상은 제외



II. 혼인 형태

‘23년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은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하였고, 아내가 연상인 신혼부부의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초혼) ‘23년 남편은 광주 33.1세, 전북 32.9세, 전남 32.8세, 제주 33.0세이며, 아내는 광주·제주 30.7세, 전북 30.3세, 전남 30.1세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재혼) ‘23년 남편은 광주 46.5세, 전북·전남·제주 47.7세이며, 아내는 광주 43.0세, 전북 44.0세, 전남·제주 43.9세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연령차) ‘19년 대비 아내가 연상인 신혼부부의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초혼 평균 혼인연령 】



【 재혼 평균 혼인연령 】



'23년 함께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함

- (동거여부) '23년 동일거처에 함께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광주 86.8%, 전북 83.4%, 전남 81.4%, 제주 86.9%로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동거 여부별 신혼부부 비중 】

Ⅲ. 경제 활동

'23년 맞벌이 신혼부부의 비중과 신혼부부 평균소득은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함

- (맞벌이) '23년 맞벌이 신혼부부 비중은 광주 55.4%, 전북 51.6%, 전남 49.6%, 제주 52.6%로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소득) '23년 신혼부부 평균소득은 광주 6,239만원, 전북 5,496만원, 전남 5,696만원, 제주 5,019만원으로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 】



'23년 대출잔액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며, 구간별로는 1억~2억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음

- (대출) '23년 대출잔액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광주 89.3%, 전북 86.7%, 전남 84.3%, 제주 86.0%이며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대출잔액은 1억~2억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음

IV. 주거 형태

'23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비중은 전남·제주는 증가, 광주·전북은 감소

- (주택소유) '23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광주 51.5%, 전북 48.5%, 전남 53.8%, 제주 47.6%로 '19년 대비 전남과 제주는 증가하고, 광주와 전북은 감소함
- (거처유형) '23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광주 82.8%, 전북 69.9%, 전남 67.4%, 제주 30.8%이며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주택명의) '23년 아내 단독 명의 비중은 광주 24.0%, 전북 26.2%, 전남 24.6%, 제주 23.5%로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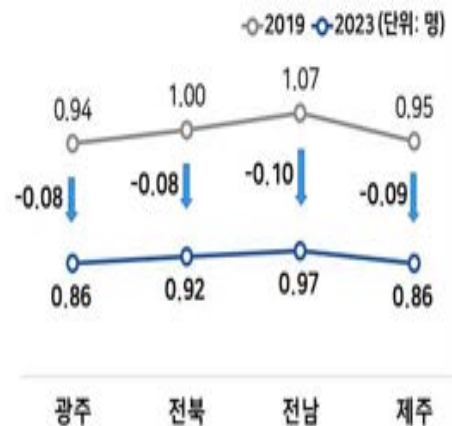
V. 자녀 및 보육

'23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19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감소함

- (자녀) '23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광주 62.5%, 전북 62.1%, 전남 64.5%, 제주 59.2%로 '19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감소함
- (맞벌이 여부별 자녀) '23년 맞벌이 신혼부부 유자녀 비중은 광주 33.3%, 전북 30.9%, 전남 30.8%, 제주 30.5%로 전국(29.0%)보다 모두 높음
-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23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광주 0.92명, 전북 1.01명, 전남 1.05명, 제주 0.93명으로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 부부보다 많음
- (보육형태) '23년 신혼부부의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형태는 어린이집(광주 50.1%, 전북 51.0%, 전남 50.7%, 제주 58.9%), 가정양육(광주 37.1%, 전북 36.5%, 전남 36.5%, 제주 33.4%) 순임

【 신혼부부의 자녀 비중 】

【 평균 자녀 수 】



보도시점 2025. 6. 23.(월) 12:00 배포 2025. 6. 23.(월) 09:00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

□ 본 자료는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임

□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한 물가 변화를 분석하였음

* 1구간(저유가): '19.1/4.~'20.2/4., 2구간(유가 상승기): '20.2/4.~'22.3/4.,
3구간(고유가): '22.3/4.~'24.4/4.

□ 변화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19.1/4.~'24.4/4.분기임

- 분기평균 증감률은 구간 내 변화를 기하평균 이용하여 계산함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책임자	과 장	강동환 (062-370-6051)
		담당자	팀 장	김영미 (062-370-6090)
		담당자	주무관	송유빈 (062-370-6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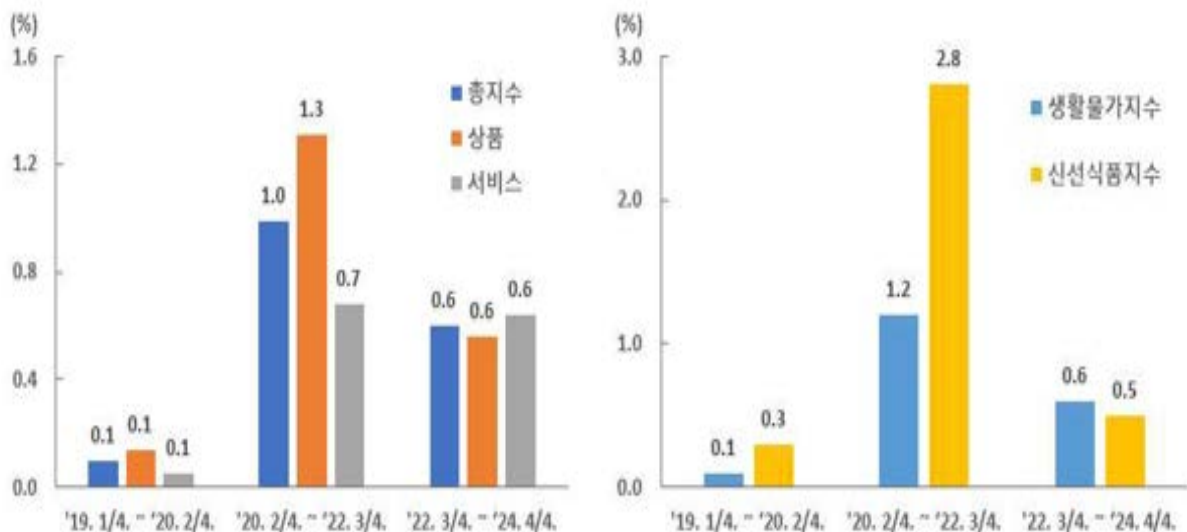
목 차

□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요약)	1
□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	2
I. 환경(국제유가·환율) 변화와 소비자물가	2
II. 소비자물가 변화	4
1.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	4
가. 총지수	4
나. 상품	5
다. 서비스	7
2. 생활물가지수	9
3. 신선식품지수	11
□ 통계표	13
◇ 부 록	
◎ 소비자물가지수 개요	18

최근 5년간(2019~2024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 변화(요약)

- '19.1/4.~'24.4/4. 기간 중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는 15.9%, 분기평균 0.6% 각각 상승
 - 상품은 19.1%, 분기평균 0.8% 각각 상승
 - 서비스는 12.9%, 분기평균 0.5% 각각 상승
- '19.1/4.~'24.4/4. 기간 중 광주광역시 생활물가는 18.2%, 분기평균 0.7% 각각 상승
 - 식품은 28.0%, 분기평균 1.1% 각각 상승
 - 식품 이외는 13.0%, 분기평균 0.5% 각각 상승
- '19.1/4.~'24.4/4. 기간 중 광주광역시 신선식품 물가는 36.5%, 분기평균 1.4% 각각 상승
 - 신선어개는 18.0%, 분기평균 0.7% 각각 상승
 - 신선채소는 55.9%, 분기평균 1.9% 각각 상승
 - 신선과실은 36.2%, 분기평균 1.4% 각각 상승

[구간별 물가 분기평균 증감률]



보도시점 2025. 7. 10.(목) 12:00 배포 2025. 7. 10.(목) 09:00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병우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오예림 (062-370-6345)

일 러 두 기

-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은 중장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 활용자료

통계명	기준시점	작성(조사)대상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11.1.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에 해당되는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국내인구이동통계	12.31.	주민등록 전입·재등록신고서
사회조사	5월	13세 이상 인구
생명표	12.31.	전국 및 시도의 성 및 연령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사망원인통계	12.3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사망

- 작성 기준 시점 및 대상 범위 차이 등의 영향으로 관련 유사 통계와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작성대상: 호남(광주·전북·전남) 및 제주지역 40 - 64세 인구

- 보건복지부 생애주기 정책과 관련해 중년층을 40 - 55세, 장년층을 56 - 64세로 구분함에 따라, 중장년은 40 - 64세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함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40 - 49세'는 40대, '50 - 59세'는 50대, '60 - 64세'는 60대로 기술함
-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활용하는 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23년 등록취업자의 포괄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전년대비 증감 해석에 유의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반올림하여 0.0이 되는 음의 증감(률)은 0.0 앞에 -를 붙여 표시함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I. 인구·가구

1. 중장년 인구	5
1-1. 시도별 중장년 인구	6
1-2. 연령별 중장년 인구	7
1-3. 중장년 인구이동	8
2. 중장년 가구	9
2-1. 시도별 중장년 가구	10
2-2. 연령별 중장년 가구	11
3. 가구원수별 중장년 가구	12
4. 가구유형별 중장년 가구	13
5.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 가구	14
6. 같이 사는 자녀의 연령	15
7. 거처유형별 중장년 가구	16

II. 경제활동

1. 등록취업자	17
2. 종사상지위별 등록취업자	18
3.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등록취업자	19
4. 등록취업여부별 변동인구	20

Ⅲ. 경제상황

1. 소득	21
2. 대출잔액	22
3. 주택소유 여부별 인구	23
4. 주택소유별 가구	24

Ⅳ. 노후·건강

1. 노후 준비 여부 및 주된 방법	25
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6
3. 주말의 주된 여가생활	27
4. 사회적 관계망	28
5. 기대여명	29
6. 주요 사망원인	30

□ 통계표	31
-------------	----

◇ 부 록

1.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개요	71
2. 주요 용어해설	72
3. '23년 등록취업자 행정자료 변동사항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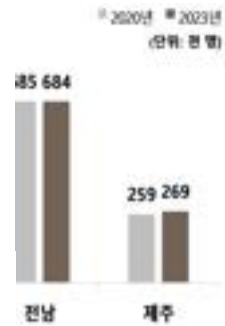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요약)

I. 인구·가구

'23년 중장년 인구는 '20년 대비 광주와 제주는 증가, 전북과 전남은 감소함

- '23년 호남·제주지역의 중장년 인구는 '20년 대비 광주(0.4%)와 제주(3.9%)는 증가, 전북(-1.3%)과 전남(-0.2%)은 감소함
- '23년 연령별 중장년 인구는 호남·제주지역 모두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60대 순으로 높음

【 중장년 인구수 (2020년, 2023년)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가구는 '20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중장년 가구수 (2020년, 2023년) 】

- '23년 호남·제주지역의 가구주가 중장년인 가구는 '20년 대비 제주(4.3%), 전남(2.4%), 광주(2.0%), 전북(1.1%) 순으로 모두 증가함
- '23년 연령별 중장년 가구는 호남·제주지역 모두 50대 가구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60대 순으로 높음

'23년 중장년 가구는 광주는 4인이상, 전북·전남은 2인, 제주는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호남·제주지역 모두 2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가구는 광주는 4인이상(26.0%), 전북(29.1%)과 전남(30.8%)은 2인, 제주는 1인(27.8%)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가구 중 2세대 가구는 광주(56.1%), 제주(50.3%), 전북(49.8%), 전남(46.9%)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년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전남(3.7%p), 전북(3.5%p), 광주(3.4%p), 제주(1.9%p) 순으로 모두 증가함

【 가구유형별 중장년 가구 비중 (2023년) 】



‘23년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 가구 비중은 광주가 55.4%로 높으며, 같이 사는 자녀의 연령은 10-1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세 이상, 10세 미만 순으로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 가구 비중은 광주(55.4%), 제주(50.4%), 전북(48.3%), 전남(44.8%) 순으로 높고, 광주는 전국(53.7%) 보다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가구의 같이 사는 자녀의 연령은 10-19세가 제주(43.8%), 전남(43.1%), 전북(42.7%), 광주(41.7%)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 가구 비중 (2020년, 2023년) 】 【 같이 사는 자녀의 연령별 비중 (2023년) 】



II. 경제활동

‘23년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20년 대비 호남·제주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별 등록취업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광주 398천 명, 전북 458천 명, 전남 447천 명, 제주 182천 명으로 나타남
 - ‘20년 대비 제주(8.8%), 전남(4.8%), 광주(3.3%), 전북(2.8%) 순으로 모두 증가함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종사상 지위별 등록취업자는 광주(78.2%), 전남(76.6%), 전북(76.2%), 제주(72.6%) 순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중 취업을 유지한 비중은 광주가 높고, ‘22년 미취업에서 ‘23년 취업으로 변동된 비중은 제주가 높음

【 등록취업자 비중 (2020년, 2023년) 】



‘23년 광주·전북 임금근로자는 제조업에, 전남·제주는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고, 광주·전북·전남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업에, 제주는 숙박·음식점업에 주로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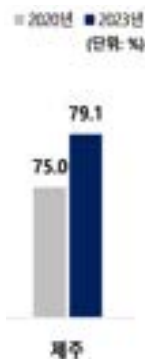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임금근로자는 광주(17.6%)와 전북(18.2%)은 제조업에, 전남(17.9%)과 제주(15.5%)는 건설업에 주로 종사함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비임금근로자는 광주(26.4%), 전북(24.6%), 전남(24.4%)은 도소매업에, 제주(23.8%)는 숙박·음식점업에 주로 종사함

Ⅲ.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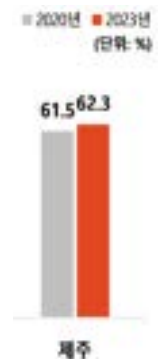
‘23년 중장년의 소득 있음의 비중은 광주, 제주, 전북, 전남 순으로 높고, 대출 있음의 비중은 제주,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소득 있음 비중은 광주(79.9%), 제주(79.1%), 전북(77.4%), 전남(75.3%) 순으로 높고, 광주는 전국(79.6%) 보다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대출 있음 비중은 제주(62.3%), 광주(58.1%), 전북(57.4%), 전남(56.1%) 순으로 높고, 전남은 전국(57.0%) 보다 낮음

【 소득 있음 비중 (2020년, 2023년) 】



【 대출 있음 비중 (2020년, 2023년) 】



‘23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인구 비중은 광주, 제주, 전북, 전남 순으로 높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가구 비중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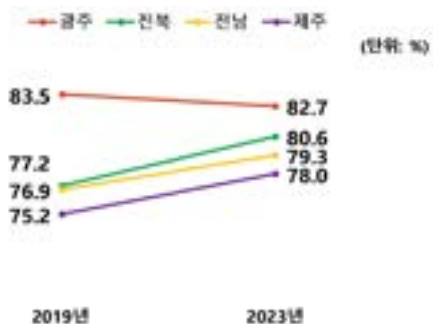
- ‘23년 호남·제주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인구 비중은 광주(46.8%), 제주(44.8%), 전북(44.5%), 전남(44.4%) 순으로 높고, 광주는 전국(44.9%) 보다 높음
- ‘20년 대비 전남(2.5%p), 광주(1.9%p), 제주(1.6%p), 전북(1.5%p) 순으로 모두 증가함
- ‘23년 호남·제주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가구 비중은 광주(65.8%), 전남(65.1%), 전북(64.6%), 제주(60.4%) 순으로 높고, 제주는 전국(63.5%) 보다 낮음
- ‘20년 대비 광주·전남(1.3%p), 제주(1.0%p), 전북(0.2%p) 순으로 모두 증가함

IV. 노후·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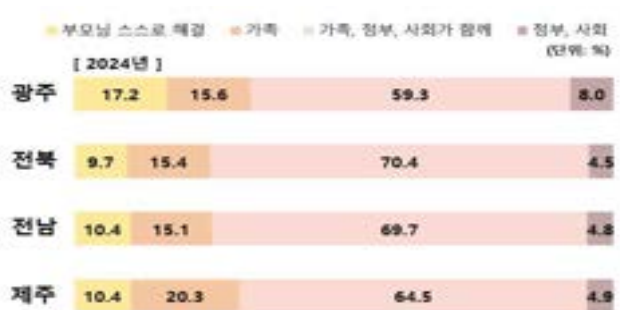
‘23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의 비중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순으로 높고, ‘24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는 호남제주지역 모두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의 비중은 광주(82.7%), 전북(80.6%), 전남(79.3%), 제주(78.0%) 순으로 높고, 호남·제주지역 모두 노후 준비 방법 중 공적연금이 가장 높음
- ‘24년 중장년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는 호남·제주지역 모두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북(70.4%), 전남(69.7%), 제주(64.5%), 광주(59.3%) 순으로 높음

【 노후준비 「준비함」 (2019년, 2023년) 】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024년) 】



‘23년 특정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가장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중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제주(81.3%), 광주(81.0%), 전북(80.9%), 전남(78.3%) 순으로 높음

‘23년 중장년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며, 2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임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사망 원인 비중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며, 광주(35.9%), 제주(33.4%), 전북(32.3%), 전남(31.2%) 순으로 높음
- ‘23년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의 기대여명은 40-60세 연령에서 제주가 가장 높고,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높음

【 주요 사망원인별 비중 (2023년) 】





보도시점 2025. 7. 24.(목) 12:00 배포 2025. 7. 24.(목) 9:00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순옥 (062-370-6101)
		담당자	팀 장	조영초 (062-370-6110)
			주무관	신수정 (062-370-6113)
			주무관	한윤희 (062-370-6115)

일 러 두 기

☐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 개요

-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을 중심으로 인구·가구, 경제활동, 가족, 건강 관련 주요 지표를 성별 관점에서 수집 및 재구성함
- 활용자료

통계명	작성(조사)대상
인구총조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동향조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사회조사	13세 이상 가구원
사망원인통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서 신고된 사망

- 작성 기준 시점 및 대상 범위 차이 등의 영향으로 관련 유사통계와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통계의 공표자료 수집·활용으로 통계표별 수록 시계열에 차이가 있음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함
 - (짝수년/5개 부문)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홀수년/5개 부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요약)	1
------------------------------	---

□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	
--------------------	--

I. 인구·가구

1. 인구 현황	4
2. 연령대별 인구	5
3. 고령 인구	6
4. 1인 가구	7

II. 경제활동

1. 경제활동 현황	8
2. 취업자 및 고용률	9
3. 연령별 취업자	10
4. 실업자 및 실업률	11

III. 가족

1. 출생	12
2. 혼인	14
3. 이혼	16
4. 가사	18

IV. 건강

1. 사망	20
2. 건강평가	21
3. 건강관리	22
4. 스트레스 정도	23

□ 통계표	24
-------------	----

통계로 보는 호남지역 남과 여(요약)

I. 인구·가구

2023년 인구는 2015년 대비 대부분 감소했지만, 전남의 남자 인구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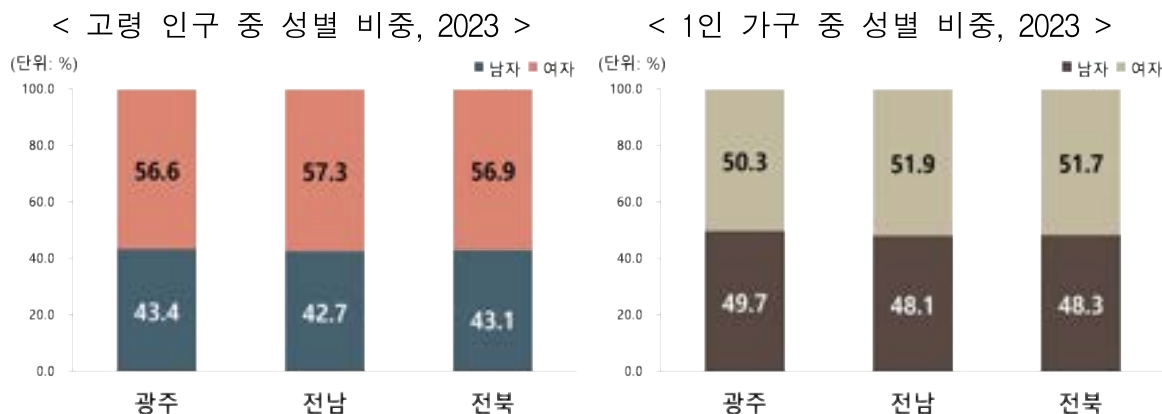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남자 인구는 전남지역만 3천 명 증가하고, 여자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함
- 2023년 호남지역의 인구는 전남(1,777천 명)이 가장 많고, 전북(1,768천 명), 광주(1,457천 명) 순임

2023년 호남지역 연령대별 인구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40~59세가 가장 높음

- 2023년 연령대별 인구 비중은 광주는 20~39세, 전남·전북은 60~79세가 각각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남전북 남녀 모두 40~5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60~79세, 20~39세 순임
- 광주 남녀 모두 40~5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20~39세, 60~79세 순임
- 2015년 대비 남녀 모두 60~79세 인구 비중은 크게 증가했고, 19세 이하 인구 비중은 크게 감소함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및 1인 가구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여자가 높음

- 2023년 고령 인구 중 여자 비중은 전남(57.3%)이 가장 많고, 전북(56.9%), 광주(56.6%) 순임
- 2023년 1인 가구 중 여자 비중은 전남(51.9%)이 가장 많고, 전북(51.7%), 광주(50.3%) 순임



II. 경제활동

2024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서 기인함

- 2024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나, 2014년 대비 여자는 전북(11.2%p), 전남(7.1%p), 광주(4.0%p) 순으로 상승함
- 2024년 호남지역 고용률은 남녀 모두 전남이 가장 높고, 전북, 광주 순임
- 2024년 연령별 취업자는 남녀 모두 광주는 50~59세가 가장 많고, 전남과 전북은 60세 이상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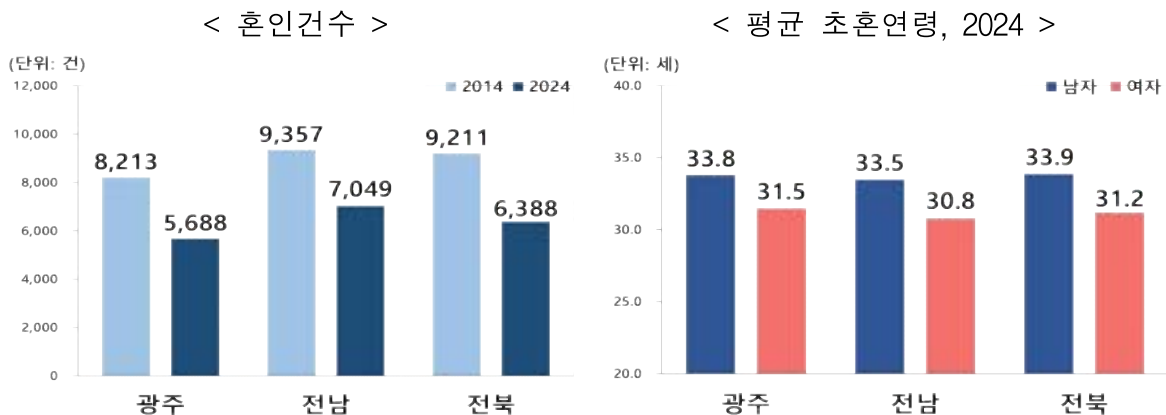
III. 가족

2023년 출생아 수는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

- 2023년 출생아 수는 모든 지역에서 남자 출생아 수가 여자보다 많음
- 2023년 합계출산율은 전남(0.97명)이 가장 높고, 전북(0.78명), 광주(0.71명) 순임

2014년 대비 2024년 혼인건수는 감소했지만,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은 상승함

- 2014년 대비 2024년 평균 초혼연령은 모든 지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오름
- 2024년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더 높음



2024년 호남지역의 이혼건수는 2014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감소함

- 2024년 이혼건수는 전남(3,473건)이 가장 많고, 조이혼율은 전북(2.0건)이 가장 높음
- 2014년 대비 호남지역 남녀 모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견해가 감소함

2024년 가사 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는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2024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남자는 광주가 68.2%로 가장 많고, 여자는 전남이 77.3%로 가장 많음
- 2024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남편은 전남이 27.7%로 가장 많고, 아내는 광주가 28.6%로 가장 많음

IV.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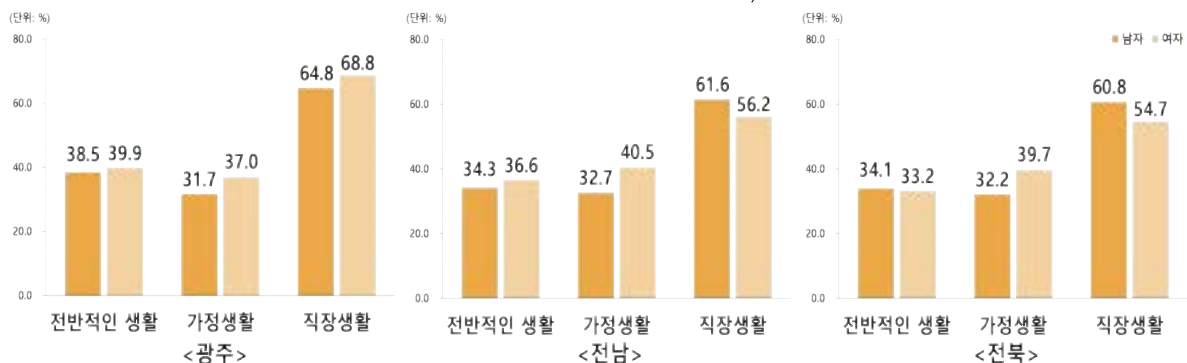
2024년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건강관리 중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이 가장 높음

- 건강상태가 ‘보통이다’ · ‘나쁘다’ 고 응답한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
-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2014년 대비 남자(29.6%p)와 여자(29.8%p) 모두 광주가 가장 많이 증가함

2014년 대비 2024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전남 여자의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비중은 증가함

- 2024년 남녀 모두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체감하는 비중은 광주에서 여자가 68.8%로 남자(64.8%)보다 높은 반면, 전남과 전북은 남자가 더 높음

< 스트레스 체감 ‘느낀다’ 비중, 2024 >



보도시점 2025. 8. 27.(수) 12:00 배포 2025. 8. 27.(수) 09:00

2023년 기준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병우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김용균 (062-370-6330)
			주무관	이준희 (062-370-6333)

일 러 두 기

□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개요

- 본 자료는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본 경영지표 현황, 조직형태·대표자 등 특성 현황, 창업·폐업 현황 등을 집계·분석하여 소상공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함
 -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하는 자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의 2019년~2023년간 자료이며, 작성 대상 및 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8개 대분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임
 - *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조사 자료를 활용해 구축한 경제통계 부문 통합 모집단 역할을 수행하는 통계등록부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작성 과정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작성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문 및 통계표에서 I. 사업체·종사자 수*, II. 사업체 매출액**은 연말 활동 사업체(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 존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III. 창업·폐업은 연중 활동 사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함
 - * 종사자 수는 유급 종사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체 대표자 및 무급 종사자는 제외함
 - ** 연말 활동사업체에 대한 연간 실적임
- 구성비 증감 등 일부 통계표 수치는 원자료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하위 분류 합이 상위 분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신고자료가 포함된 통계등록부 특성상 성·연령·매출액 등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여 통계표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요약)	1
---------------------------------	---

□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	--

I. 사업체·종사자 수

1. 시·도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3
1-1. 시·군·구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4
2. 산업별 사업체 수	5
3.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	6
4.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7
5.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8
6. 소상공인 종사자 수	9

II. 사업체 매출액

1. 소상공인 매출액	10
1-1.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	11
2. 산업별 사업체당 매출액	12
3. 대표자 성별 사업체당 매출액	13
4.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당 매출액	14
5.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15

III. 창업·폐업

1. 창업률 및 폐업률	16
2. 산업별 창업 사업체	17
3. 산업별 폐업 사업체	18
4. 대표자 성별 창업 사업체	19
5. 대표자 연령대별 창업 사업체	20
6. 5개년 생존율	21
7. 지원사업 수혜 사업체별 생존율	22

□ 통계표	23
-------------	----

◇ 부 록

1.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개요	50
2. 주요 용어 해설 및 소상공인 기준	51
3. 기업통계등록부(SBR) 개요	54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요약)

I. 사업체·종사자 수

'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전남이 가장 많음

- '23년 소상공인 시도별 사업체 수는 【소상공인 사업체 기본 현황('23년)】 전남(263천 개), 시군구별 사업체 수는 전북 전주시(89.0천 개)가 가장 많음
- '23년 소상공인 시도별 종사자 수는 전남(88천 명)이 가장 많음



【대표자 성별 구성비('23년, 전남)】



- '23년 소상공인 남자 대표자 구성비는 전남(58.9%), 광주(58.8%), 전북(58.6%), 제주(56.4%) 순으로 높음
- '23년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으며, 지역별 구성비는 전남(31.8%), 전북(31.0%), 제주(31.0%), 광주(30.8%) 순임

【지역별 50대 대표자 구성비('23년)】



II. 사업체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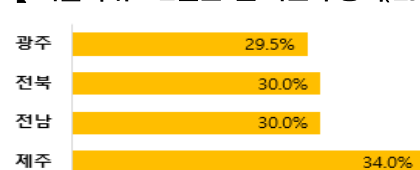
'23년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남, 사업체당 매출액은 광주가 가장 많음

- '23년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남(43.6조 원), 전북(38.6조 원) 순으로 높으며, 사업체당 매출액은 광주(166.0백만 원), 전남(165.8백만 원) 순으로 높음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23년)】



【매출액 규모 2천만 원 미만 구성비('23년)】



- '23년 소상공인 매출액 규모는 2천만 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으며, 지역별 구성비는 제주(34.0%), 전남(30.0%), 전북(30.0%), 광주(29.5%) 순임

Ⅲ. 창업·폐업

'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창업률은 전북(12.3%), 폐업률은 광주(11.7%)가 가장 높음

- '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창업률은 전북(12.3%), 광주(12.1%), 전남(11.5%), 제주(11.2%) 순으로 높음
- '23년 소상공인 사업체 폐업률은 광주(11.7%), 제주(11.1%), 전북(10.5%), 전남(10.3%) 순으로 높음
- '19년 대비 소상공인 창업률 및 폐업률은 호남·제주지역 모두 하락함

【 창업률 및 폐업률('23년) 】



'23년 창업 사업체 대표자 연령대는 제주, 광주는 40대, 전남, 전북은 50대가 많음

- '23년 창업 사업체 대표자 연령대별 구성비는 제주·광주는 40대, 전남·전북은 50대가 가장 많음
- '23년 창업 사업체 성별 구성비는 남자는 전남(55.6%), 여자는 제주(48.4%)가 가장 높음
- '19년 대비 창업 사업체의 남자 대표자 구성비는 전남, 전북 지역에서 상승함

【 창업사업체 대표자 연령대별 상위 3순위('23년) 】

구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순위	40대 (27.0%)	50대 (24.7%)	50대 (25.6%)	40대 (30.4%)
2순위	30대 (24.0%)	40대 (24.3%)	40대 (24.8%)	30대 (23.2%)
3순위	50대 (21.1%)	30대 (18.4%)	30대 (17.4%)	50대 (22.4%)

'23년 소상공인 창업 사업체 산업별 구성비는 광주, 전북, 전남은 도매 및 소매업,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음

- '23년 소상공인 창업 사업체 산업별 구성비는 광주, 전북, 전남은 도매 및 소매업,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으며, 폐업 사업체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음
- '23년 기준 1년~4년 생존율은 전남, 5년 생존율은 제주가 가장 높음

【 '23년 기준 5개년 생존율 】



보도시점 2025. 9. 18.(목) 12:00 배포 2025. 9. 18.(목) 09:00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병우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오예림 (062-370-6344)

일 러 두 기

□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 개요

-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은 귀농·귀어·귀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이 공동 작성한 귀농어·귀촌인통계 자료를 전북·전남·제주지역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음
- 귀농어·귀촌인통계는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가공통계임
 - * 주민등록자료,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어업허가등록명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신고서 등
- 귀농어·귀촌인 개념은 2015년 1월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함
 - (작성대상)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 (귀어인)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 (귀촌인) 모집단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자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원 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표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통계표 자료에서 빈도 수가 3 이하인 경우 및 관련 추론 가능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으로 마스킹 처리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본 통계의 귀농어·귀촌인(가구) 수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실제 상주하는 귀농어·귀촌인(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요약)	1
□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	
I. 귀농	
1. 귀농가구	4
1-1. 귀농가구 규모	4
1-2. 귀농가구 가구특성별 현황	6
1-3. 작물재배 귀농가구 현황	7
2. 귀농인	10
2-1.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현황	10
2-2. 귀농인 전·겸업별 현황	13
2-3. 귀농인 지역별 이동 현황	14
2-4. 시군별 귀농인 현황	16
II. 귀어	
1. 귀어가구	17
1-1. 귀어가구 규모	17
1-2. 귀어가구 가구특성별 현황	19
2. 귀어인	20
2-1.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현황	20
2-2. 귀어인 전·겸업별 현황	23
2-3. 귀어인 업종별 현황	23
2-4. 귀어인 지역별 이동 현황	24
III. 귀촌	
1. 귀촌가구	26
1-1. 귀촌가구 규모	26
1-2. 귀촌가구 가구특성별 현황	28
1-3. 귀촌가구 전입사유별 현황	29
2. 귀촌인	30
2-1. 귀촌인 현황	30
2-2. 귀촌인 지역별 이동 현황	33
2-3. 시군별 귀촌인 현황	35
□ 통계표	36
◇ 부 록	
1.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 개요	62
2. 주요 용어 해설	63
3. 「귀농어·귀촌인 통계」 작성 개요	64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귀촌인 현황 요약

I. 귀농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가구는 전남(1,516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제주(1.45명)가 많음

- '24년 귀농가구는 전남(1,516가구), 전북(903가구), 제주(140가구) 순이며, 전년 대비 제주(-40.7%), 전북(-16.1%), 전남(-14.9%) 순으로 감소함
- 귀농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제주(1.45명), 전북(1.26명), 전남(1.24명) 순이며, 전년 대비 제주(-2.7%), 전북·전남(-1.6%) 순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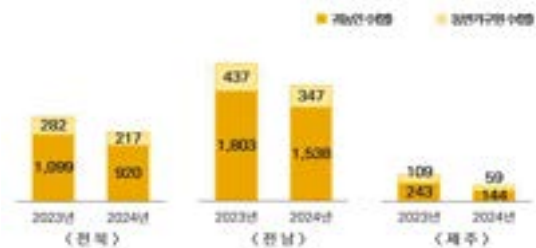
【 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인은 전남(1,538명)이 많고, 전년 대비 전북전남·제주 모두 감소함

- '24년 귀농인은 전남(1,538명), 전북(920명), 제주(144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전북·전남·제주 모두 감소함
- 동반가구원은 전남(347명), 전북(217명), 제주(59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전북·전남·제주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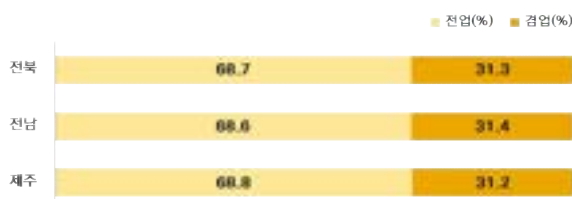
【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수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전업 귀농인 구성비는 제주(68.8%), 겸업은 전남(31.4%)이 높음

- '24년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 구성비는 제주(68.8%), 전북(68.7%), 전남(68.6%) 순으로 높음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인의 이동 유형별 구성비 중 시도 간 이동은 전남(81.4%), 시도 내 이동은 전북(43.0%)이 높음
- 시도 내 이동 중 시군 간은 전북(33.8%), 도농통합시 내는 제주(27.1%)가 높음

【 전·겸업별 귀농인 구성비, 2024년 】



【 이동 유형별 귀농인 구성비, 2024년 】



II. 귀어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어가구는 전남(194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전북(1.36명)이 많음

- '24년 귀어가구는 전남(194가구), 전북(44가구), 제주(26가구) 순이며, 전년 대비 제주(18.2%)는 증가, 전북(-33.3%)과 전남(-30.5%)은 감소함
- 귀어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전북(1.36명), 전남(1.28명), 제주(1.27명) 순이며, 전년 대비 전북(5.4%), 전남(41%), 제주(3.3%) 순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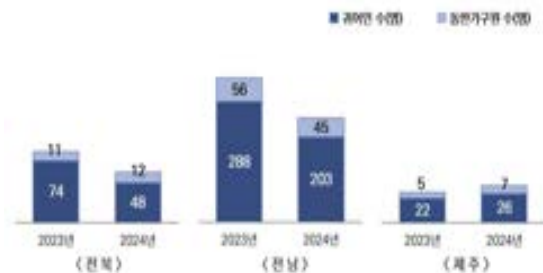
【 귀어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어인은 전남(203명)이 많고, 전년 대비 전북·전남은 감소함

- '24년 귀어인은 전남(203명), 전북(48명), 제주(26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제주(18.2%)는 증가, 전북·전남은 감소함
- 동반가구원은 전남(45명), 전북(12명), 제주(7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제주·전북은 증가, 전남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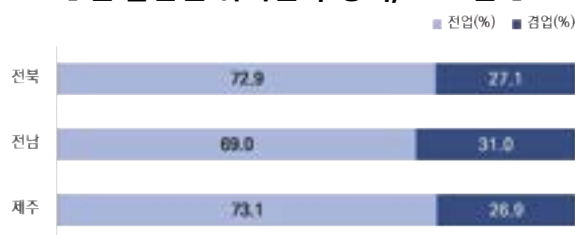
【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수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전업 귀어인 구성비는 제주(73.1%), 겸업은 전남(31.0%)이 높음

- '24년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 구성비는 제주(73.1%), 전북(72.9%), 전남(69.0%) 순으로 높음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어인의 이동 유형별 구성비 중 시도 간 이동은 전남(66.0%), 시도 내 이동은 제주(57.7%)가 높음
- 시도 내 이동 중 시군 간은 전남(20.2%), 도농통합시 내는 제주(42.3%)가 높음

【 전·겸업별 귀어인 구성비, 2024년 】



【 이동 유형별 귀어인 구성비, 2024년 】



Ⅲ. 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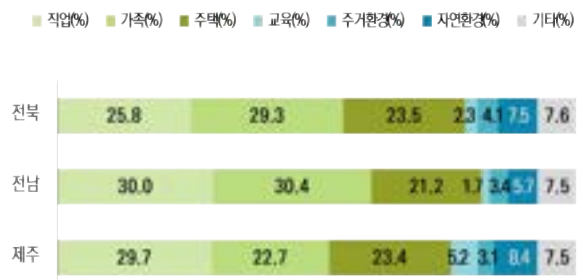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촌가구는 전남(27,635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제주(1.33명)가 많음

- '24년 귀촌가구는 전남(27,635가구), 전북(14,810가구), 제주(7,796가구) 순이며, 전년 대비 전북(-9.4%), 제주(-3.1%), 전남(-2.6%) 순으로 감소함
- 귀촌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제주(1.33명), 전북(1.25명), 전남(1.22명) 순이며, 전년 대비 전북(-3.1%)과 전남(-0.8%)은 감소, 제주에는 동일함
- '24년 귀촌가구의 주요 전입사유는 전북·전남은 가족, 제주에는 직업임

【 귀촌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 전입사유별 귀촌가구 구성비, 2024년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촌인은 전남(33,660명)이 많고, 전년 대비 전북전남제주 모두 감소함

- '24년 귀촌인은 전남(33,660명), 전북(18,517명), 제주(10,340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전북(-12.5%), 전남(-3.4%), 제주(-3.3%) 순으로 감소함
- 동반가구원은 전남(6,025명), 전북(3,707명), 제주(2,544명) 순으로 많으며, 전년 대비 전북·전남·제주 모두 감소함

【 귀촌인 수 】



'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촌인의 이동유형별 구성비 중 시도 간 이동은 전남(65.1%), 시도 내 이동은 전북(59.6%)이 높음

- '24년 귀촌인의 이동 유형별 구성비 중 전남(65.1%)·제주(53.6%)는 시도 간 이동이, 전북(59.6%)은 시도 내 이동이 높음
- 전북·전남·제주지역 동일 시도 내 시군 간 이동은 전북(44.9%), 도농통합시 내 이동은 제주(35.5%)가 높음

【 이동 유형별 귀촌인 구성비, 2024년 】



보도시점 2025. 10. 27.(월) 12:00 배포 2025. 10. 27.(월) 9:00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담당 부서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병우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김락현 (062-370-6343)

일 러 두 기

☐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혼인·이혼·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 인구정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됨
- 본 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출생·사망통계

-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로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 혼인·이혼통계

-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이혼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여,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도자료에 수록된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증감 및 증감률 계산은 명·건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올림한 것으로 통계표의 천 명·건 단위 기준으로 작성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도자료에 수록된 일부 그래프 수치는 미상이 제외되어 각 구성비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보도자료 제공

- 호남지방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

□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요약)	1
--------------------------------	---

□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	--

I. 출생

1.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5
2. 시도별 합계출산율	6
3.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평균 출산연령	7
4. 출산 순위별 출생	8
5. 출생 성비	9
6. (시·군·구)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10
7. (시·군·구) 합계출산율 및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11

II. 사망

1.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12
2.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13
3. 성별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14
4.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5
5. (시·군·구) 사망자 수 및 조(粗)사망률	17

III. 혼인

1.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18
2. 종류(초·재혼)별 혼인	19

3. 성·연령별 혼인율	20
4. 연령차별 혼인	21
5. 혼인연령	22
6. 외국인과의 혼인	23
7. (시·군·구)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24
8. (시·군·구) 외국인과의 혼인	25

IV. 이혼

1.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26
2. 성·연령별 이혼율	27
3. 이혼연령	28
4.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29
5.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30
6. 외국인과의 이혼	31
7. (시·군·구)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32
8. (시·군·구) 외국인과의 이혼	33

□ 통계표	34
-------------	----

◇ 부 록

1.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작성 개요	70
2. 「인구동향조사」 작성 개요	71
3. 주요 용어해설	72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요약)

I. 출생

'24년 호남·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4,195명으로 전년대비 1.5%(351명) 증가함

- 출생아 수는 전남(8,225명), 전북(6,780명), 광주(6,034명), 제주(3,156명) 순임
- 전년대비 전남(5.1%), 전북(2.4%)은 증가하고, 광주(-2.2%), 제주(-2.0%)는 감소함
-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제주(4.7명), 전남(4.6명), 광주(4.3명), 전북(3.9명) 순임
- 전년대비 전남(0.3명), 전북(0.1명)은 증가하고, 광주, 제주(-0.1명)는 감소함

【 출생아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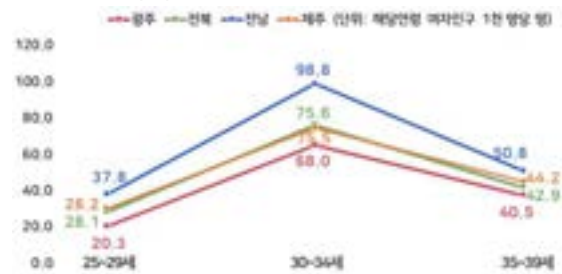
【 조출생률 】



'24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 30대 후반, 20대 후반 순으로 높음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30~34세), 30대 후반(35~39세), 20대 후반(25~29세) 순임
- 전년대비 30대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40대 초반은 감소함
-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제주(33.4세), 광주(33.3세), 전북(33.1세), 전남(33.0세) 순임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24년 】



'24년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0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합계출산율은 전남(1.03명), 제주(0.83명), 전북(0.81명), 광주(0.70명) 순임

【 시도별 합계출산율 】

Ⅱ. 사망

'24년 호남·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51,256명으로 전년대비 1.4%(726명) 증가함

- 사망자 수는 전남(20,108명), 전북(17,110명), 광주(9,136명), 제주(4,902명) 순임
- 전년대비 제주(4.8%), 광주(3.0%), 전남(1.6%)은 증가하고, 전북(-0.5%)은 감소함
- 조(粗)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전남(11.2명), 전북(9.8명), 제주(7.3명), 광주(6.5명) 순임
- 전년대비 제주(0.4명), 전남(0.3명), 광주(0.2명), 전북(0.0명) 순으로 모두 증가함

【 사망자 수 】



【 조사망률 】



'24년 연령별 사망률은 1~9세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

-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1~9세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

【 연령별 사망률, 2024년 】

'24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남이 33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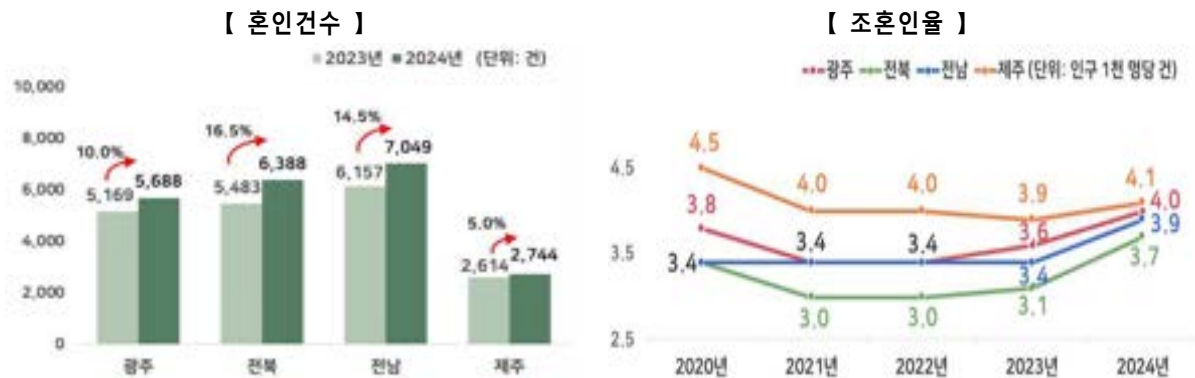
-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남(333.7명), 제주(317.7명), 전북(314.0명), 광주(308.6명) 순임

【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

Ⅲ. 혼인

'24년 호남·제주지역 혼인건수는 21,869건으로 전년대비 12.6%(2,446건) 증가함

- 혼인건수는 전남(7,049건), 전북(6,388건), 광주(5,688건), 제주(2,744건) 순임
- 전년대비 전북(16.5%), 전남(14.5%), 광주(10.0%), 제주(5.0%) 순으로 모두 증가함
-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제주(4.1건), 광주(4.0건), 전남(3.9건), 전북(3.7건) 순임
- 전년대비 전북(0.6건), 전남(0.5건), 광주(0.4건), 제주(0.2건) 순으로 모두 증가함



- 남녀 초혼 구성비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고, 재혼은 모두 감소함
-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음
-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과 동갑의 구성비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함
-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전년대비 모두 줄어듦

'24년 호남·제주지역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함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제주(13.2%), 전북(11.5%), 전남(10.4%), 광주(7.8%) 순이며, 광주는 전국(9.3%)보다 낮음
- 전년대비 전남(-1.9%p), 광주(-1.2%p), 전북(-0.8%p), 제주(-0.2%p) 모두 감소함



N. 이혼

'24년 호남·제주지역 이혼건수는 10,8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함

- 이혼건수는 전남(3,473건), 전북(3,453건), 광주(2,258건), 제주(1,648건) 순임
- 전년대비 제주(10.4%), 전북(1.0%)은 증가하고, 광주(-5.9%), 전남(-1.3%)은 감소함
- 조(粗)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제주(25건), 전북(20건), 전남(19건), 광주(16건) 순임
- 전년대비 제주(0.2건)는 증가, 광주(-0.1건)는 감소, 전북(0.0건)과 전남(-0.0건)은 유사함

【 이혼건수 】



【 조이혼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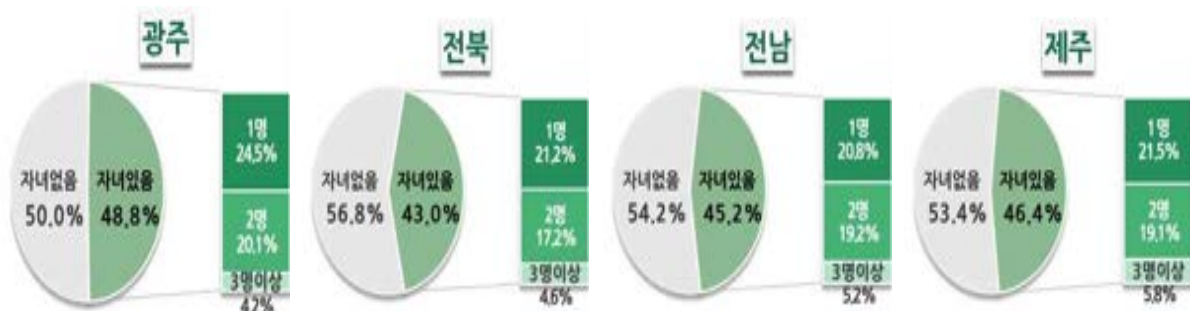


-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여자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음
- 남자는 제주·전남은 40대 후반, 전북·광주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음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20년 이상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광주·전남·제주는 5~9년, 전북은 4년 이하가 높음

'2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없는 부부보다 낮음

- '2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광주(48.8%), 제주(46.4%), 전남(45.2%), 전북(43.0%) 순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낮음
- 전년대비 제주(3.3%p), 전남(1.4%p)은 증가, 전북(-2.3%p), 광주(-1.5%p)는 감소함
-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명, 3명 이상보다 높음

【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구성비, 2024년 】



보도시점 2025. 11. 20.(목) 12:00 배포 2025. 11. 20.(목) 09:00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병우 (062-370-6301)
		담당자	팀 장	최환준 (062-370-6340)
			주무관	윤내열 (062-370-6342)

일 러 두 기

□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개요

- 본 자료는 전북·전남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가속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는 KOSIS, 국가데이터처 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상대적인 비를 지수화한 것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단 계	낮음	보통	주의	위험	고위험
지방소멸위험지수	1.5 이상	1.0~1.5 미만	0.5~1.0 미만	0.2~0.5 미만	0.2 미만
구분	고위험 지역				
전북(7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13개)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9페이지 표 비위험은 지방소멸지수 낮음, 보통, 주의를 포함한 것
- 본 자료에서 활용한 산업 분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서비스업은 국가데이터처 고시(제2018-390호), 제조업 기술업종은 OECD(2011) 기술 집약도로 분류하였음

* 서비스업 해당 대분류(16개):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G(도매 및 소매업)~U(국제 및 외국기관)

** 제조업 기술업종 세부 분류는 [부록 3. 기술업종 분류, p103] 참고

- 분석에 활용한 기초자료 시점 및 분류 기준 차이, 통계적 비밀보호기법 적용 등 영향으로 관련 유사 통계와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통계표 수치가 반올림한 값인 경우, 하위 분류 합이 상위 분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 없음,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함

□ 보도자료 제공

-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https://mods.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요약)	1
□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I. 소멸 위험지수 변화	
1. 전국 소멸 위험지수 변화	7
2. 전북·전남 소멸 위험지수 변화	9
II. 인구·가구	
1. 연평균 인구 성장률	10
2. 유소년 비율	11
3. 청년 비율	12
4. 고령화 비율	13
5. 외국인 등록 인구	14
6. 국내 순이동률	15
7. 청년 순이동률	16
8. 주간 인구지수	17
9. 조(粗)혼인율	18
10. 합계출산율	19
11. 조(粗)출생률	20
12. 조(粗)사망률	21
13. 청년 1인 가구 비율	22
14. 고령 1인 가구 비율	23
III. 사회·환경	
1. 빈집 비율	24
2. 도로 포장률	25
3.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26
4.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27
5.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8
6. 초등학교 학생 수	29
7.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30
8. 노인 천 명당 여가 복지시설 수	31
9. 지역 안전 등급	32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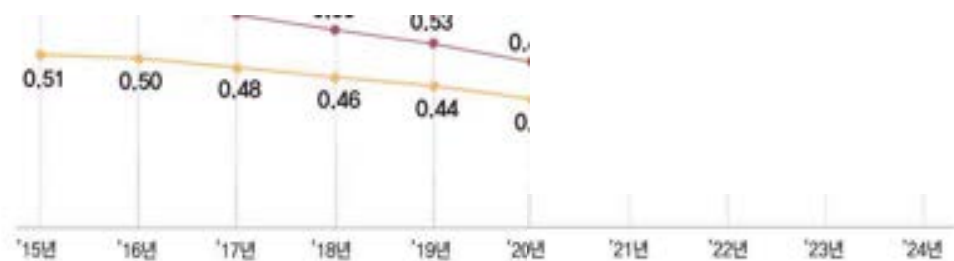
IV. 경제·고용

1. 지역내총생산	36
2. 1인당 지역내총생산	37
3. 재정자립도	38
4. 재정자주도	39
5. 경제활동 참가율	40
6. 고용률	41
7. 실업률	42
8.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	43
9.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44
10. 기술업종별 사업체 구성비	45
11. 기술업종별 종사자 구성비	46

□ 통계표	47
-------------	----

◇ 부 록

1.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 개요	101
2. 주요 용어 해설	102
3. 기술업종 분류	103



* 지방소멸위험지수 : 주안동특인구 기준으로 20세~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상대적 비율

전북·전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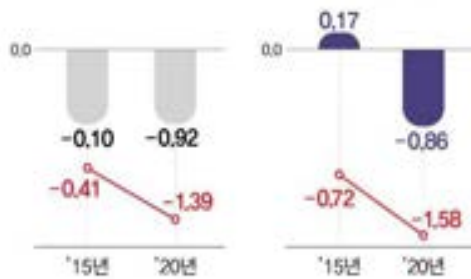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인구·가구

인구성장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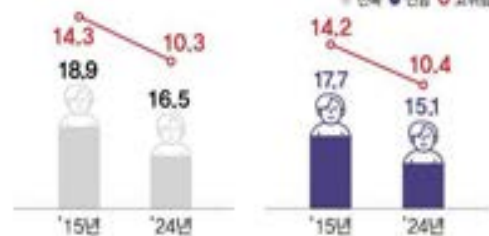
전북 ● 전남 ○ 고위험



청년 비율

(단위 : %)

전북 ● 전남 ○ 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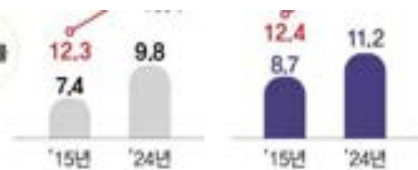
주간인구지수

(단위 : 천 명, %)

전북 ● 전남 ○ 고위험



조사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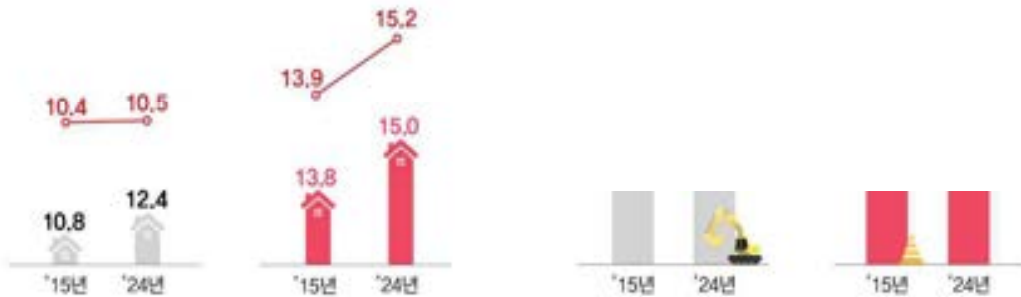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사회·환경

빈집 비율

(단위 : %)

전북 전남 고위험



의사 수

(단위 : 인구 천 명당 명)

전북 전남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수

(단위 : 인구 천 명당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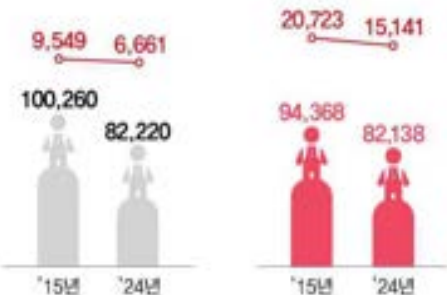
전북 전남 고위험



초등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전북 전남 고위험



사설학원 수

(단위 : 인구 천 명당 개)

전북 전남 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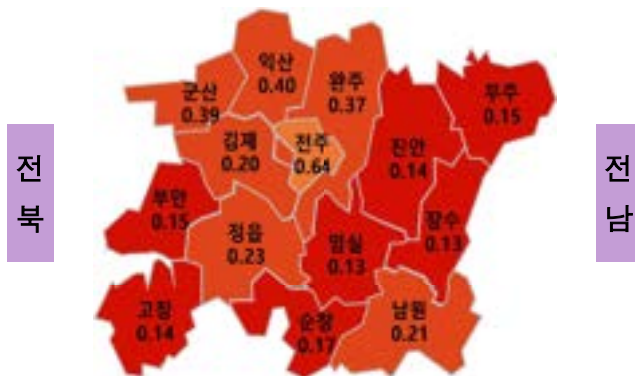
전북·전남권 인구 감소지역 변화상(요약)

I. 전북·전남 소멸 위험지수 변화

'24년 전국 위험 진입 지역 8개 광역 시도에는 전북(0.38), 전남(0.32)도 포함됨

- ※ 광역시·도중 위험 진입 지역 :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4년 전북(0.38) 및 전남(0.32)은 위험 진입 지역으로 분류되며, 소멸 위험도가 높아지는(소멸 지수↓) 추세임
- '24년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 수는 전북 7개(50.0%), 전남 13개(59.1%)로 나타남

【 전북·전남권 시군별 지방 소멸 위험지수(2024년) 】



구분	낮음	보통	주의	위험	고위험
	1.5 이상	1.0~1.5 미만	0.5~1.0 미만	0.2~0.5 미만	0.2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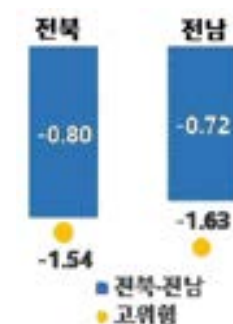
II. 인구가구

지난 10년간 고위험 지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전북 -1.54%, 전남 -1.63%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15~'24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전북 -0.80%, 전남 -0.72%이며, 전국 (-0.07%) 대비 감소 폭이 큼
- 같은 기간 중 고위험 지역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전북 -1.54%, 전남 -1.63%이고, 전북·전남지역 전체 대비 전북 0.96%p, 전남 0.86%p 감소함

【 연평균 인구 성장률 '15~'24년 】

(단위: %)



'24년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 고령화 비율은 전북 39.3%, 전남 39.4%이며 청년 비율은 전북 10.3%, 전남 10.4%로 나타남

○ 고위험 지역 고령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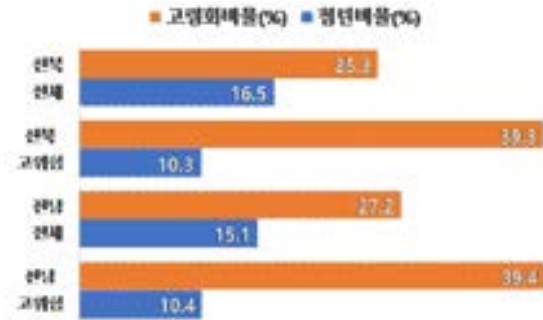
(전북) '15년 29.7% → '24년 39.3%

(전남) '15년 30.7% → '24년 39.4%

○ '24년 전북·전남 청년 비율은 전북 16.5%, 전남 15.1%이며, 전북·전남 모두 전국 (19.3%) 대비 낮으며, 하락 추세를 보임

○ '24년 고위험 지역 전체 대비 고령화 비율은 전북 14.0%p, 전남 12.2%p 높고, 청년 비율은 전북 6.2%p, 전남 4.7%p 낮음

【 고령화·청년 비율(2024년) 】



'24년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 청년 순이동률은 전북 -5.21%, 전남 -5.29%로 나타남

○ '24년 전북·전남 청년 순이동률은 전북 -2.72%, 전남 -2.58%이며, 두 지역 모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순유출로 나타남

○ '24년 고위험 지역 청년 순이동률은 전북 -5.21%, 전남 -5.29%로 두 지역 모두 순유출 나타났으며, 전북·전남지역 전체보다 전북 2.49%p, 전남 2.71%p 높음

【 청년 순이동률(2024년) 】

(단위: %)



'20년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 주간 인구지수는 전북 95.2%, 전남 94.8%로 나타남

○ '20년 전북·전남지역 주간 인구지수는 전북 100.0%, 전남 102.2%이며, 전남은 상주인구보다 통근·통학하는 주간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전남 지역 주간 인구지수(2015, 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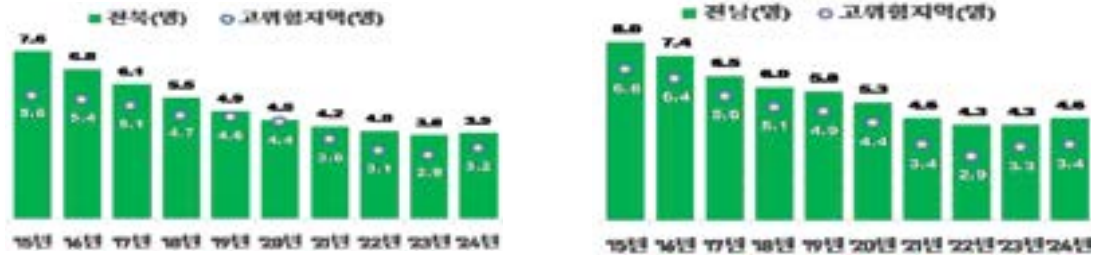


'24년 조(粗)출생률 전남권 6곳*은 전국 4.7명보다 높게 나타남

* 영광(7.3), 나주(6.7), 광양(6.1), 무안(5.9), 순천(5.3), 강진(5.1)

- '24년 전북·전남 조출생률은 전북 3.9명, 전남 4.6명이며, 두 지역 모두 전국(4.7명) 대비 낮음
- '24년 고위험 지역 조출생률은 전북 3.2명, 전남 3.4명이며, 전북·전남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전남 1.2명, 전북 0.7명)

【전북·전남 조출생률】



'24년 고위험 지역 조(粗)사망률 전북(16.4명), 전남(17.0명)으로 전국 7.0명보다 높게 나타남

- '24년 전북·전남지역 조사망률은 전북 9.8명, 전남 11.2명이며, 두 지역 모두 전국(7.0명) 대비 높음
- '24년 고위험 지역 조사망률은 전북 16.4명, 전남 17.0명이며, 전북·전남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전북 6.60명, 전남 5.79명)

【전북·전남 조사망률】

(단위: 인구 천 명당 명)



'24년 고위험 지역 고령 1인 가구 전북 22.6%, 전남 23.5% 청년 1인 가구 전북·전남 3.0%

- '24년 전북·전남지역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전북 8.5%, 전남 5.9%이며, 전북·전남은 전국(10.2%) 대비 낮음
- '24년 전북·전남지역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전북 14.1%, 전남 16.1%이며, 전북·전남 모두 전국(10.3%) 대비 높음

【고령·청년 1인 가구(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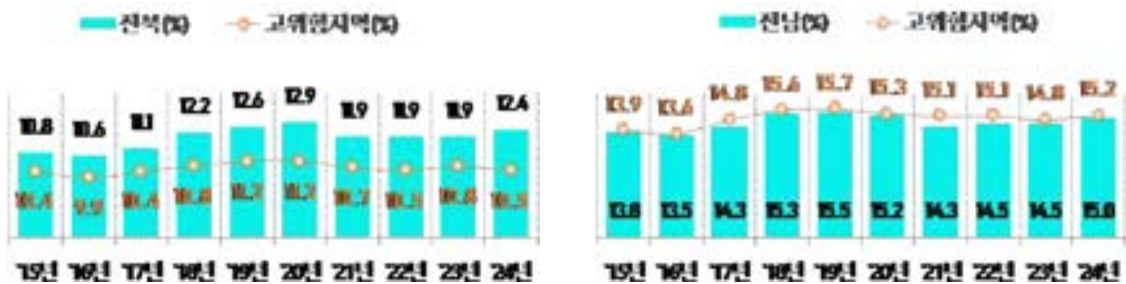


Ⅲ. 사회·환경

‘24년 고위험 지역 빈집 비율은 전북 10.5%, 전남 15.2%로 전국 8.0%보다 높음

- ‘24년 빈집 비율은 전북 12.4%, 전남 15.0%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전국 8.0%보다 높음
- ‘24년 고위험 지역 빈집 비율은 전북 10.5%, 전남 15.2%로 나타났으며, 15년 대비 전북 0.1%p, 전남 1.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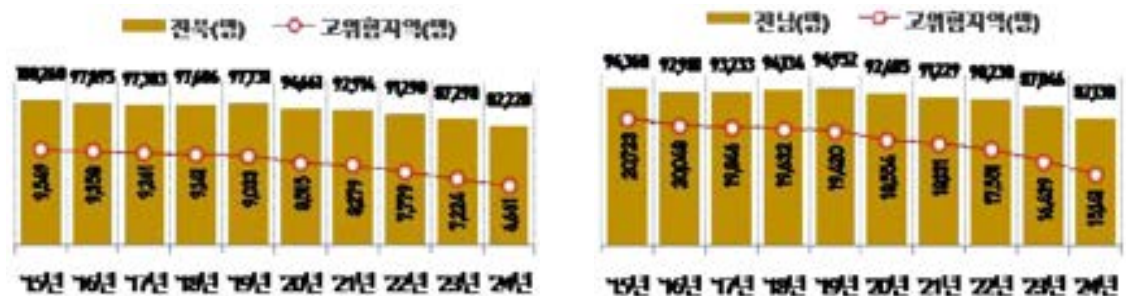
【빈집 비율】



‘24년 전북·전남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각 3.3% 수준

- ‘24년 전북 학생 수는 82,220명, 전남은 82,138명으로 전북·전남 두 지역 모두 전국 학생 수 대비 3.3% 수준을 보임
- ‘24년 고위험 지역 학생 수는 전북·전남지역 모두 꾸준히 감소함

【초등학교 학생 수】



‘24년 전남은 지역 안전 등급 3개 분야에서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이 낮음

- ‘24년 전북은 2등급 분야가 3개(범죄, 자살, 감염병)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및 생활안전은 3등급, 화재는 4등급을 보임
- ‘24년 전남은 5등급 분야가 3개(교통사고, 화재, 감염병)로 전체적인 안전 등급이 낮은 상태며, 범죄는 1등급, 생활안전 및 자살은 3등급을 보임

IV. 경제·고용

'22년 고위험 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북 35,058천 원, 전남 35,179천 원으로 전국(45,045천 원) 보다 적음

- '2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북 34,425천 원, 【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2년) 】 전남 34,375천 원이며, 전북은 전국(45,045천 원) 대비 10,620천 원 적음



- '22년 고위험 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북 35,058천 원, 전남 35,179천 원이며, 전북·전남지역 전체 대비(전남 19,196천 원, 전북 633천 원) 적음

'24년 고위험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북·전남 모두 70% 이상을 보임

- '24년 전북·전남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북 65.8%, 전남 68.2%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24년 전북·전남 지역 고용률은 전국 63.3%보다 높은 전북 64.8%, 전남 66.5%로 나타남

- '24년 고위험 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북 73.6%, 전남 73.4%로 나타남

- '24년 고위험 지역 고용률은 전북 73.2%, 전남 72.8%로 전체 지역보다 높음



'24년 실업률은 전북 1.6%, 전남 2.5%로 나타남

- '24년 실업률은 전북 1.6%, 전남 2.5%로 나타남

- '24년 고위험 지역 실업률은 전북 0.5%, 전남 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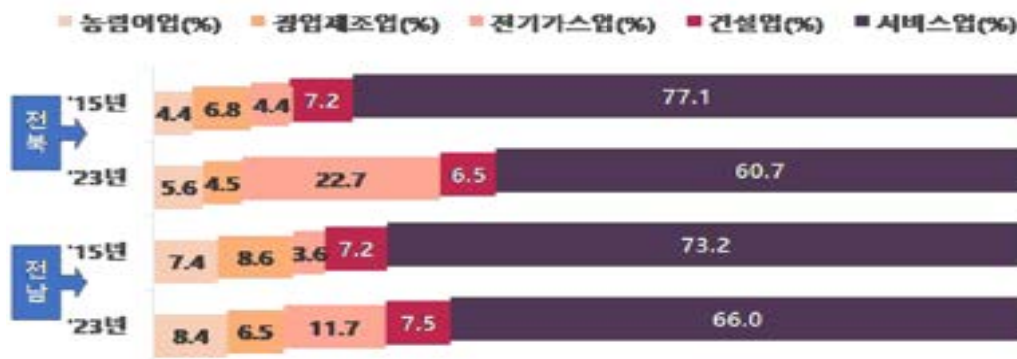
【 실업률 】



‘23년 고위험 지역 사업체 감소 폭은 서비스업(전북-16.4%p, 전남-7.2%p)이 가장 큼

- ‘23년 전북·전남지역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는 서비스업 전북 75.0%, 전남 75.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23년 고위험 지역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는 전북 지역 전체 대비 광업·제조업, 서비스업은 적고, 농림어업·전기가스업은 많음, 전남지역은 서비스업중은 적고 나머지 업종은 많음

【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2023년) 】



‘23년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은 저기술 업종 구성비가 가장 높음

- ‘23년 전북·전남지역 기술업종별 사업체 구성비는 저기술업종이 전북 52.3%, 전남 53.7%로 가장 높으며, 전북·전남은 전국(40.5%) 대비 높음
- ‘23년 고위험 지역 기술업종별 사업체 구성비도 저기술 업종이 가장 높으며, 전북·전남지역 전체 대비 전북 24.6%p, 전남 9.3%p로 높음

【 전북·전남 고위험 지역 기술업종별 사업체 구성비(2023년) 】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25. 12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머 리 말

제주도는 지난 10년 동안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기후 및 환경 문제의 대두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삶의 방식은 물론 산업 활동, 고용 구조, 복지 수요, 교육 환경, 안전과 환경 관리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속도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소득증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대상의 정보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는 각종 경제·사회 현상을 수치로 나타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제주의 변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 중 제주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지표 60여종을 선정한 후, 인구, 농어업, 고용 및 소득, 관광, 교통 등 8개 부문으로 재구성하여 관련 정책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제주도를 만드는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장 **박 인 천**



일 러 두 기

1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개요

- 제주지역의 지난 10여 년간 인구·고용·소득·물가·관광·교통 등에 대한 각 부문별 변화상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 2024년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된 최근 자료와 비교·분석하였습니다.

* 자산 및 부채는 최근 자료인 2025년 자료를 사용함

2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표시된 자료의 출처와 책자 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으며, 보고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기관명을 표기하였습니다.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0 : 단위 미만

- : 해당 값이 없거나 계산 불능

P : 잠정치

3 보도자료 제공

- 본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arhn>) > 새소식 > 보도자료

- 본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 출처기관 또는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064-728-5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주 01

2025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요약 06

II.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제 1 장	인구·면적	09
제 2 장	농·어업	15
제 3 장	고용·소득·수출입·물가	25
제 4 장	광·제조업·서비스업·에너지·건설	32
제 5 장	관광	39
제 6 장	보건·복지	45
제 7 장	교육	52
제 8 장	교통·사건·사고·환경	60

III. 통 계 표

제 1 장	인구·면적	
1 - 1.	인구	71
1 - 2.	주민등록인구	72
1 - 3.	등록외국인	73
1 - 4.	인구이동	74
1 - 5.	인구동태(출생·사망·혼인·이혼)	75
1 - 6.	면적(지목별)	76
제 2 장	농·어업	
2 - 1.	농가 및 농가인구	77
2 - 2.	경지이용	78
2 - 3.	식량작물 생산량(정곡기준)	79
2 - 4.	채소 생산량	80
2 - 5.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량	81

2 - 6.	어가 및 어가인구	82
2 - 7.	품종별 어획량	83
2 - 8.	어업별 어획량	84
2 - 9.	어선현황	85
2 - 10.	해녀현황	86

제 3 장 고용·소득·수출입·물가

3 - 1.	경제활동인구	87
3 - 2.	산업별 취업자	88
3 - 3.	직업별 취업자	89
3 - 4.	지역내총생산(GRDP)	90
3 - 5.	자산 및 부채	91
3 - 6.	수출입 실적	92
3 - 7.	소비자물가지수	93

제 4 장 광·제조업·서비스업·에너지·건설

4 - 1.	광업·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4
4 - 2.	광공업생산지수	95
4 - 3.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96
4 - 4.	서비스업 생산지수	98
4 - 5.	전력사용	99
4 - 6.	주택건설	100
4 - 7.	토지거래	101

제 5 장 관 광

5 - 1.	관광객	102
5 - 2.	내국인 관광객(목적별)	103
5 - 3.	외국인 관광객(국적별)	104
5 - 4.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105
5 - 5.	관광여행 만족도	106
5 - 6.	관광사업체	107

제 6 장 보건·복지

6 - 1.	요양기관	108
6 - 2.	의료인력	109
6 - 3.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110
6 - 4.	등록장애인	111
6 - 5.	노인복지시설	112
6 -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3
6 - 7.	건강보험 적용인구	114

제 7 장 교 육

7 - 1.	유치원	115
7 - 2.	초등학교	116
7 - 3.	중학교	117
7 - 4.	고등학교	118
7 - 5.	전문대학	119
7 - 6.	대학교	120
7 - 7.	사교육 참여율	121
7 - 8.	공공도서관	122

제 8 장 교통·사건·사고·환경

8 - 1.	자동차 등록대수	123
8 - 2.	자동차 등록대수(연료별)	124
8 - 3.	주차장 현황	125
8 - 4.	교통사고	126
8 - 5.	교통사고(음주·무면허·뺑소니)	127
8 - 6.	자동차 단속 및 처리(위반사항)	128
8 - 7.	범죄발생 및 검거율	129
8 - 8.	화재발생	130
8 - 9.	폐기물발생	131
8 - 10.	기상	132

부 록	134
-----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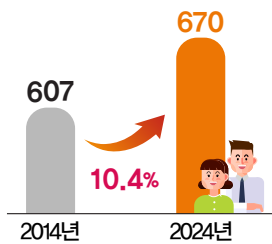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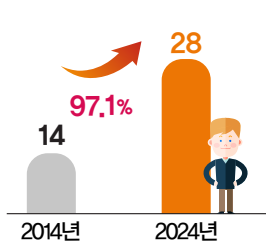
주민등록인구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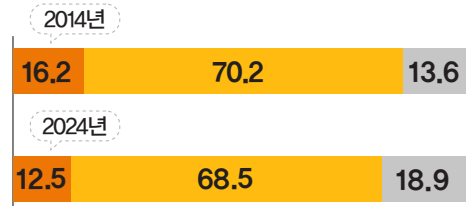
등록외국인

(단위 : 천 명)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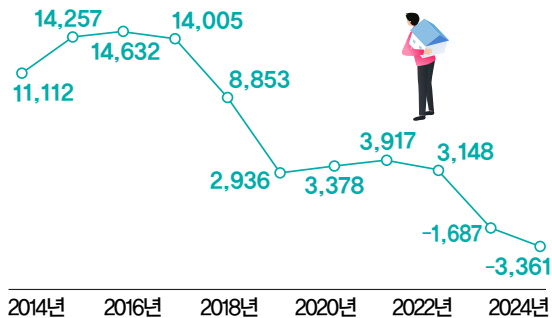
■ 14세 이하 ■ 15~64세 ■ 65세 이상
(단위 : %)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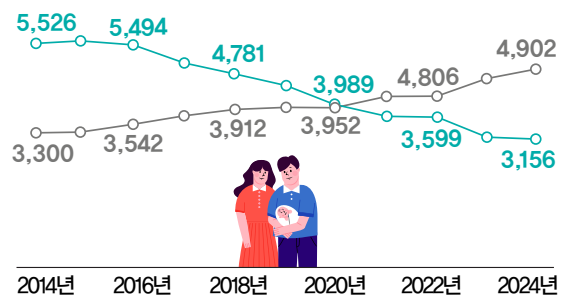
* 순이동 : 전입 - 전출

(단위 : 명)



출생아 수·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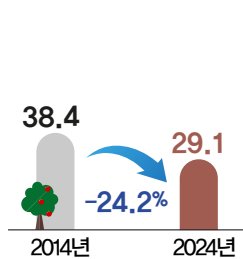
○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단위 : 명)



농·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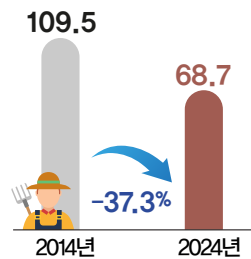
농가

(단위 :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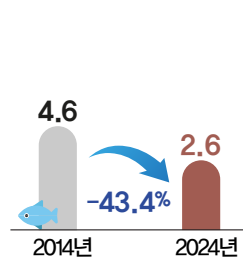
농가인구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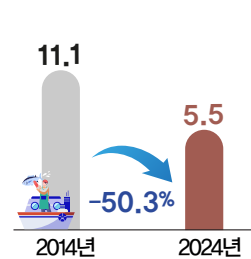
어가

(단위 : 천 가구)



어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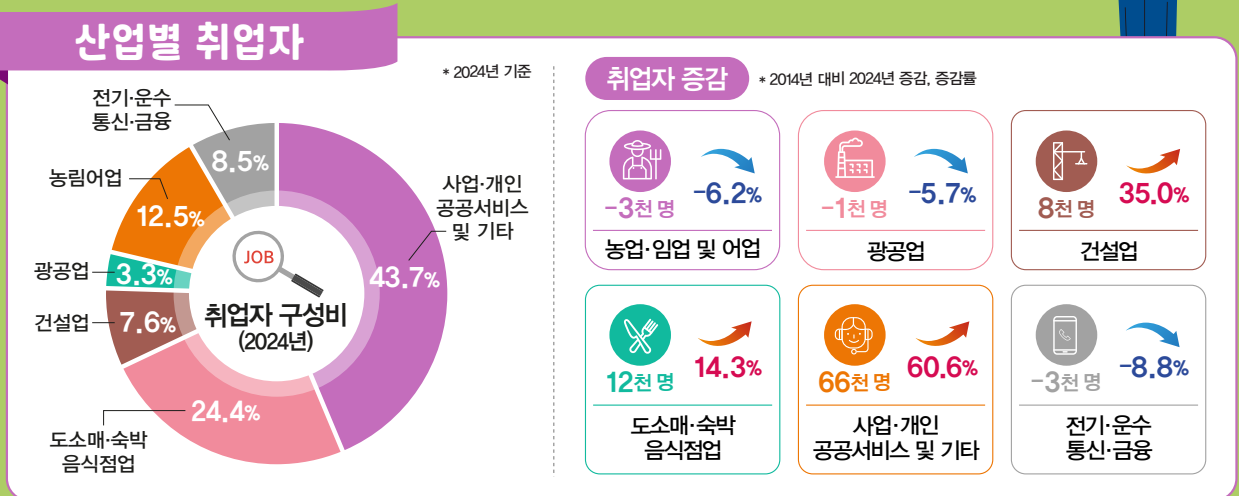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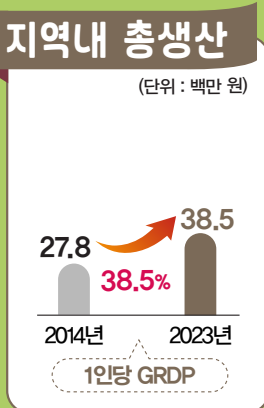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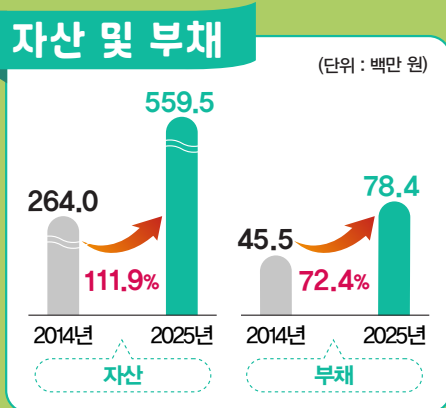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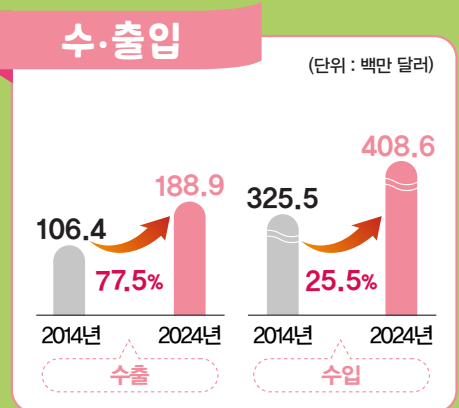
지역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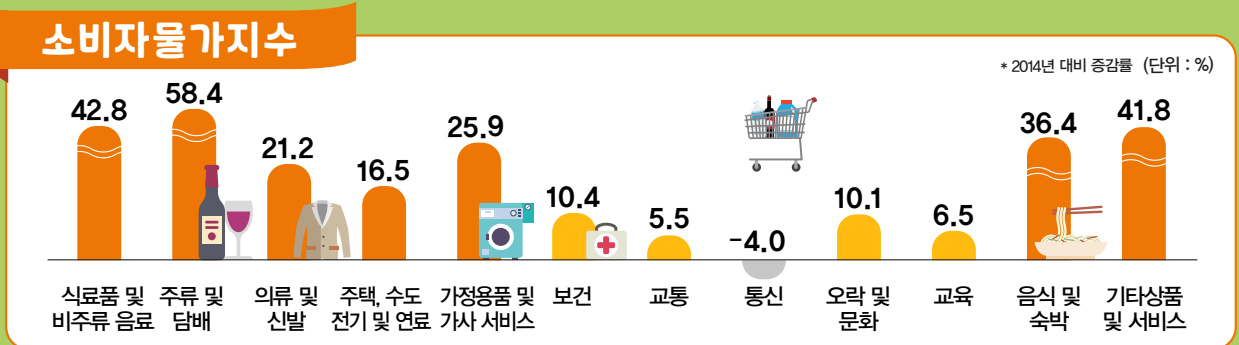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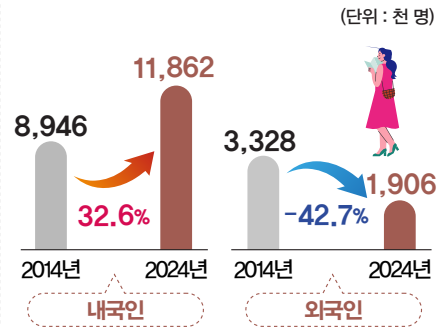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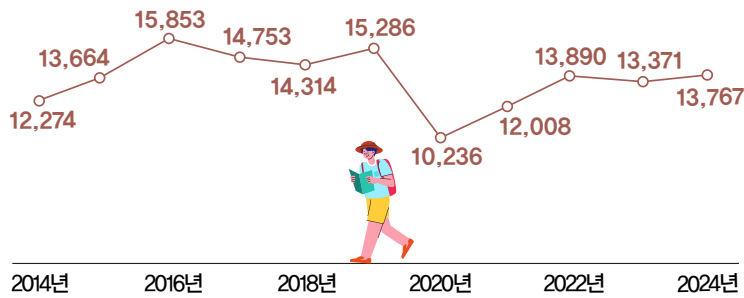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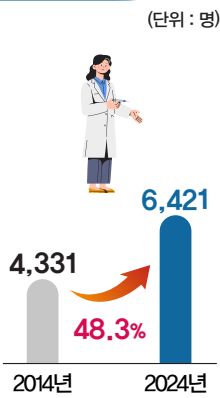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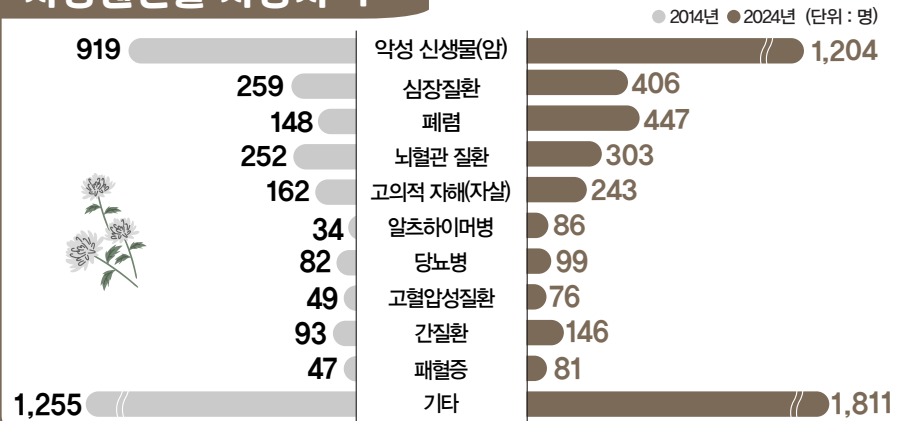
관광객



의료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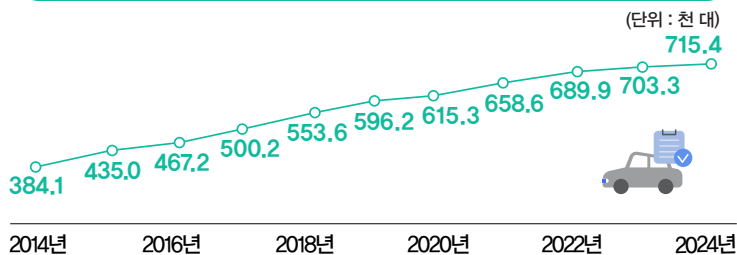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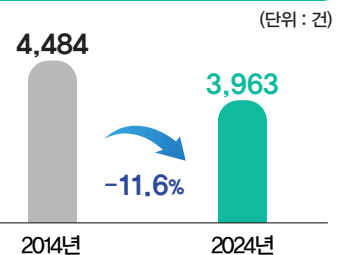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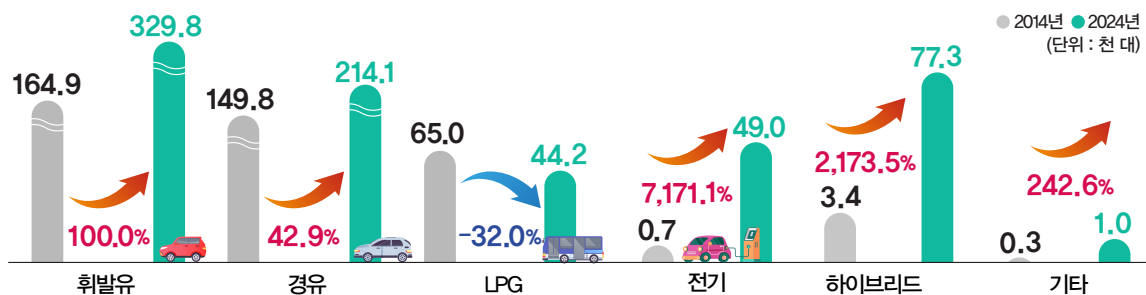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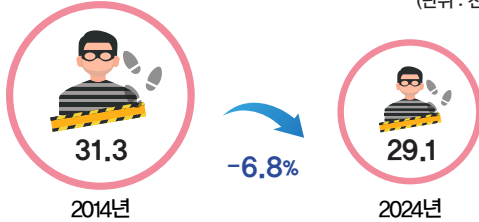
차종별 등록대수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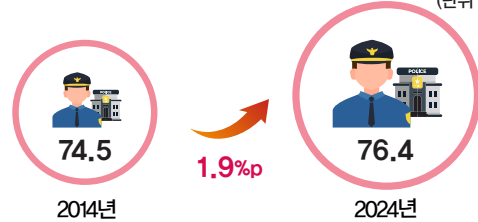
발생 건수

(단위 : 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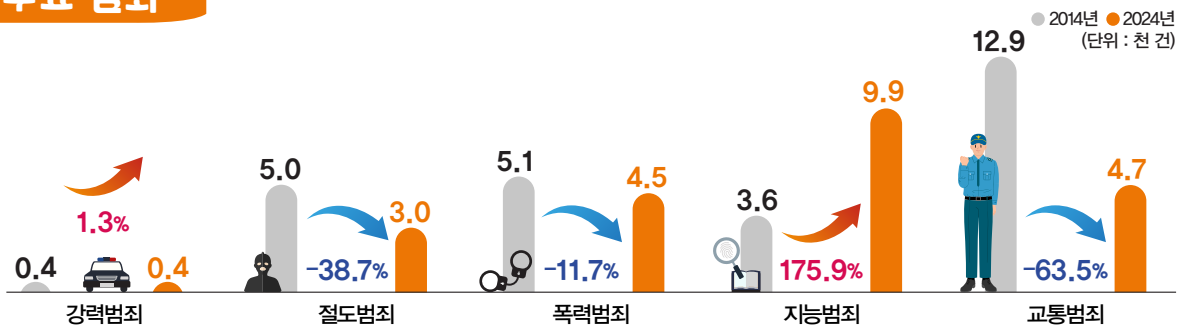


검거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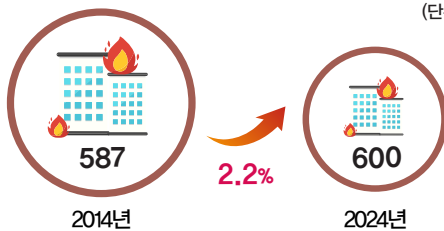
주요 범죄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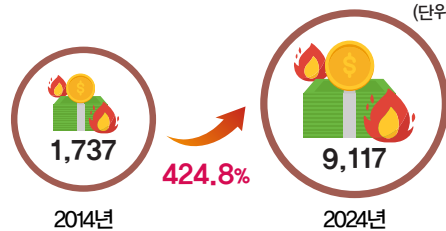
발생 건수

(단위 : 건)



재산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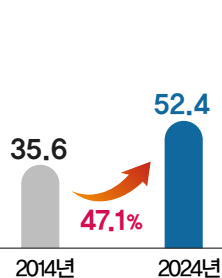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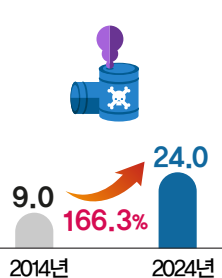
폐기물

(단위 :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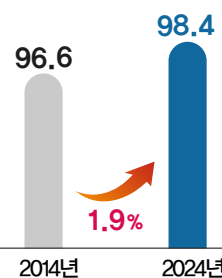
생활계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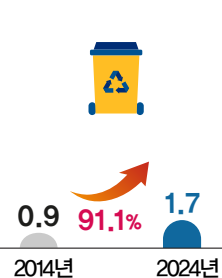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2025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요약

인구

- '24년 제주 인구는 698,358명으로 '14년 대비 76,808명(12.4%) 증가
 - '24년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70,368명으로 '14년 대비 63,022명(10.4%) 증가
 - '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9%로 '14년 대비 5.4%p 증가
 - '24년 등록외국인은 27,990명으로 '14년 대비 13,786명(97.1%) 증가
- '24년 순이동은 -3,361명으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더 많이 나타남
- '24년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사망자 수 4,902명 보다 적게 나타남
 - '24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14년 대비 0.7명 감소

농어업

- '24년 농가는 29.1천 가구로 '14년 대비 9.3천 가구(-24.2%) 감소
 - '24년 농가인구는 68.7천 명으로 '14년 대비 40.8천 명(-37.3%) 감소
- '24년 어가는 2.6천 가구로 '14년 대비 2.0천 가구(-43.4%) 감소
 - '24년 어가인구는 5.5천 명으로 '14년 대비 5.6천 명(-50.3%) 감소

고용

- '24년 경제활동인구는 410천 명으로 '14년 대비 81천 명 증가
 - '24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8천 명으로 '14년 대비 18천 명 증가
- '24년 취업자는 400천 명으로 '14년 대비 79천 명 증가
 - '24년 고용률은 69.3%로 '14년 대비 2.0%p 상승
- '24년 실업자는 10천 명으로 '14년 대비 3천 명 증가
 - '24년 실업률은 2.3%로 '14년 대비 0.3%p 상승

소득

- '23년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은 26.0조 원으로 '14년 대비 60.6% 증가
○ '23년 도민 1인당 GRDP는 38.5백만 원으로 '14년 대비 38.5% 증가
- '25년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5,946만 원으로 '14년 대비 2억 9,548만 원 증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843만 원으로 '14년 대비 3,295만 원 증가
* '24년 대비 '25년 가구당 평균 자산(3,545만 원) 및 부채(250만 원) 증가

물가

- '24년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7(2020=100)로 '14년 대비 21.8% 상승
○ 지출목적별로 보면 '14년 대비 통신(-4.0%)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모두 상승
* '24년 부문별 물가 상승률 : 주류 및 담배(58.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42.8%), 기타 상품
및 서비스(41.8%), 음식 및 숙박(36.4%),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25.9%) 등

관광

- '24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767천 명으로 '14년 대비 1,493천 명(12.2%) 증가
○ '24년 내국인 관광객은 11,862천 명으로 '14년 대비 2,916천 명(32.6%) 증가
○ '24년 외국인 관광객은 1,906천 명으로 '14년 대비 1,423천 명(-42.7%) 감소
* 국적별로 살펴보면 '14년 대비 중국 관광객(-1,476천 명), 말레이시아 관광객(-51천 명), 일본
관광객(-18천 명), 싱가포르 관광객(-9천 명) 등이 감소
- '24년 제주 관광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82.5점으로 '20년 대비 1.6점 감소
○ 항목별 만족도는 자연경관(90.9점)이 가장 높고, 물가(71.1점)는 가장 낮음

교통

- '24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715.4천 대로 '14년 대비 331.3천 대(86.3%) 증가
○ '24년 전기차 등록대수는 49.0천 대로 '14년 대비 48.3천 대(7,171.1%) 증가
- '24년 교통사고는 3,963건으로 '14년 대비 521건(-11.6%) 감소
○ '24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5,744명으로 나타남

동 남 청

24. 최근 10년간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	235
25. 2024년 동남권 가구의 자산 · 부채 · 소득 변화	241
26.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249
27. 동남권 50+ 인구 일자리의 오늘과 내일	257
28.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	264
29.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2015년~2024년)	273
30. 동남권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	283
31. 통계로 보는 동남권 청년의 삶 2025	293
32.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현황.....	302
33. 동남권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	309
34. 데이터로 본 동남권 이커머스 시장	320



보도시점 2025. 6. 9.(월) 10:00 배포 2025. 6. 9.(월) 10:00

최근 10년간(2015~2024년)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

담당 부서	통계청 울산사무소	책임자	소 장	박준오 (052-279-4001)
		담당자	팀 장	심채연 (052-279-4110)
		담당자	주무관	김재완 (052-279-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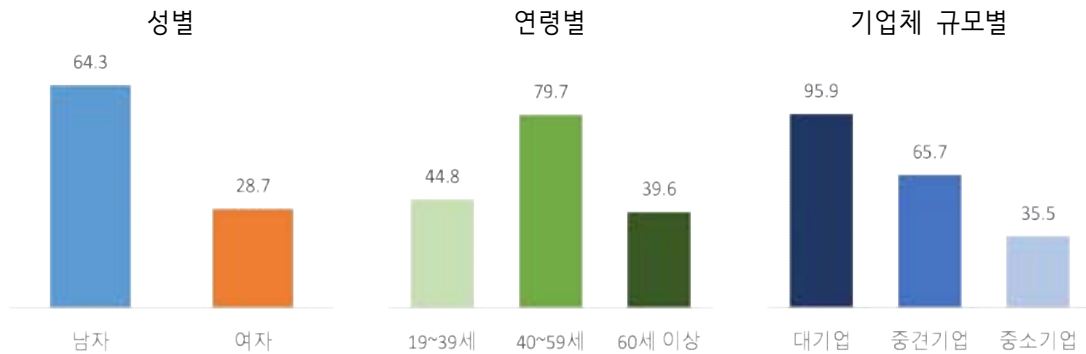
일 러 두 기

□ 분석 배경

- '24년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정책수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분석」 보도자료를 작성 및 공표

<'22년 특성별 제조업 상시근로자(특고제외) 연간 근로소득(중앙값)>

(단위: 백만원)



- 분석결과 제조업 근로소득은 성별, 연령별, 기업체 규모별 등에서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 분석 목적

-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과 인구(성별, 연령별 등) 및 취업 특성별(종사상 지위 등)로 제공하여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이해를 높이고, 제조업 고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분석대상 및 이용자료

- 분석대상: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 이용자료: 통계청 '15~'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자료 이용시 유의 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 및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값 없음, 「0.0」: 단위 미만의 값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 최근 10년간 울산광역시 제조업 변화

1.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총괄)

가. 연도별 변화 1

나. 17개 시도별 비교 2

2. 인구 특성별 변화

가. 성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3

나. 연령대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5

다. 교육정도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7

3. 취업 특성별 변화

가. 종사상지위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9

나. 종사자규모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11

다. 월평균 임금수준별 제조업 임금근로자 13

I.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변화(총괄)

- (연도별) '24년 울산광역시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17만2천명으로, '15년 대비 3만1천명 감소
- (시도별) '24년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울산광역시가 36.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15년 대비 6.9%p 감소, 전국 2.5%p 감소)

II. 인구 특성별 변화

- (성별) '24년 울산광역시 남자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14만9천명('15년 대비 2만8천명 감소), 여자는 2만3천명('15년 대비 3천명 감소)
 - '24년 남자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울산광역시가 51.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4.8%p 감소(전국 1.5%p 감소)
 - '24년 여자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울산광역시가 12.7%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고, '15년 대비 4.2%p 감소(전국 2.7%p 감소)
- (연령대별) '24년 울산광역시 40세 미만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5만6천명('15년 대비 2만9천명 감소), 40~60세 미만은 9만9천명('15년 대비 1만2천명 감소), 60세 이상은 1만7천명('15년 대비 9천명 증가)
 - '24년 울산광역시 40세 미만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38.4%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5.6%p 감소(전국 3.1%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40~60세 미만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41.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4.8%p 감소(전국 1.2%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20.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2.9%p 감소(전국 1.5%p 증가)
- (교육정도별) '24년 울산광역시 중졸 이하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8천명('15년 대비 6천명 감소), 고졸은 8만4천명('15년 대비 1만9천명 감소), 대졸 이상은 8만명('15년 대비 7천명 증가)
 - '24년 울산광역시 중졸 이하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7.4%p 감소(전국 5.5%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고졸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42.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6.4%p 감소(전국 3.9%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34.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8.1%p 감소(전국 0.4%p 감소)

Ⅲ. 취업 특성별 변화

- (종사상지위별) '24년 울산광역시 제조업 상용근로자 수는 15만8천명('15년 대비 2만9천명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4천명('15년 대비 2천명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상용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43.8%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10.2%p 감소(전국 4.0%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임시·일용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13.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0.4%p 감소(전국 3.8%p 감소)
- (종사자규모별) '24년 울산광역시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임금근로자 수는 9만5천명('21년 대비 5천명 증가), 300인 이상은 7만7천명('21년 대비 8천명 증가)
 - '24년 울산광역시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26.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21년 대비 0.9%p 증가(전국 0.9%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74.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21년 대비 0.2%p 감소(전국 0.7%p 증가)
- (임금수준별) '24년 울산광역시 월평균 200만원 미만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4천명('15년 대비 2만명 감소), 200~400만원 미만 7만9천명('15년 대비 1만명 감소), 400만원 이상 8만9천명('15년 대비 1천명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월평균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4.8%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고, '15년 대비 10.8%p 감소(전국 10.3%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월평균 200~4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34.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13.0%p 감소(전국 6.9%p 감소)
 - '24년 울산광역시 월평균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비중은 58.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15년 대비 15.0%p 감소(전국 1.0%p 증가)



보도시점 2025. 6. 17.(화) 12:00 배포 2025. 6. 17.(화) 09:00

2024년 동남권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변화

- 2020년 동남권 가구와의 비교 분석 -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 은 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신 연 주 (051-850-3351)
		담당자	주무관 박 준 환 (051-850-3355)

일 러 두 기

□ 분석 목적

- 본 내용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항목 분석을 통해 동남권 가구의 경제적 삶(well-being) 및 재무건전성 등을 측정하기 위함

*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분석 내용

- 2024년도 동남권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현황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하고 2020년 대비 증감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와 성장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모든 시·도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분석 연도 및 기준 시점

항목	분석 연도	
	2020년도	2024년도
자산, 부채	2020. 3. 31.기준	2024. 3. 31. 기준
소득	2019. 1. 1. ~ 12.31.	2023. 1. 1. ~ 12.31.

- 본문 통계표의 '순위' 항목은 17개 시·도의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 해당 값이 위치한 순위를 나타냄
- 본문 통계표의 '상대수준'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각 분석 단위의 값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

□ 유의사항

- 자산, 부채, 소득 및 순자산 등의 대푯값으로는 평균과 중앙값을 사용함
 - 자산 및 부채의 중앙값은 보유가구에 대해서만 산출된 금액임
- 표본조사 결과로 상대표준오차(1.0%~25.0%)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
- 실물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조사(면접방식) 결과로 금융기관의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와는 작성방법, 포괄범위 등이 달라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 표시는 공표단위 미만을 나타냄
- 해당 보도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 게시함

목 차

□ 요약	1
□ 본문	
I. 총괄	
1. 2024년도 종합 개요	4
II. 자산 현황 및 분석	
1. 자산 평균	5
2. 자산 중앙값	6
3. 금융자산 평균	6
3-1. 저축액 평균	7
3-2. 전·월세 보증금 평균	7
4. 실물자산 평균	8
4-1. 부동산 평균	8
III. 부채·순자산 현황 및 분석	
1. 부채 평균	9
2. 부채 중앙값	10
3. 금융부채 평균	10
4. 순자산 평균	11
5. 순자산 중앙값	11

목 차

IV. 가구소득 현황 및 분석

1. 가구소득 평균	12
1-1. 근로소득 평균	13
1-2. 사업소득 평균	13
1-3. 재산소득 평균	14
1-4. 이전소득 평균	14
2. 가구소득 중앙값	15

V. 가계 재무건전성

1. 금융부채/저축액	16
2. 부채/자산	16
3. 저축액/가구소득	17
4. 금융부채/가구소득	17
5. 저축액/자산	18
6. 부동산/자산	18

◇ 부록

1.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20
2.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21

부산 가구의 자산·부채·소득[요약]

□ 2024년 기준 연간 부산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287만원, 부채는 8,048만원, 순자산은 3억 7,239만원, 가구소득은 6,259만원임

○ (자산) 2020년 이후 연평균 5.5% 증가하여 전국 평균(4.9%)보다 높은 증감률 기록
 - 금융자산(7.6%), 실물자산(4.9%), 순자산(5.7%) 모두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각각 높음
 - 자산(2.0%) 및 순자산(1.0%) 중앙값 증감률이 평균 증감률보다 각각 낮음

○ (부채) 2020년 이후 연평균 4.6% 증가하여 전국 평균(2.5%)보다 높은 증감률 기록
 - 부채 중앙값 증감률은 부채 평균 증감률(4.6%)보다 높은 8.8% 기록

○ (소득) 2023년 평균 가구소득은 6,259만원으로 전국 평균(4.8%)보다 낮은 3.5% 증가
 - 사업소득(6.8%)은 근로소득(3.0%)과 재산소득(-0.1%) 대비 높은 연평균 증감률 기록

○ (가계의 재무건전성)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5.5%로 2020년 대비 11.8%p 하락하였으나 상대수준은 110.5로 여전히 높은 수준

2024년 부산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현황

(단위: 만원, %, 전국=100)

	자산 (A)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B)	금융부채 (C)	순자산 (A-B)	가구소득	금융부채/저축액	부채/자산 (B/A)
부산	45,287	10,484	34,803	8,048	6,207	37,239	6,259	75.5	17.8
연평균 증감률 ¹⁾	5.5	7.6	4.9	4.6	3.8	5.7	3.5	-	-
상대수준 ²⁾	83.8	78.4	85.6	88.2	93.5	82.9	87.1	110.5	105.2
전국	54,022	13,378	40,644	9,128	6,637	44,894	7,185	68.4	16.9

주: 1) 2020-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가구소득의 경우 2019-2023년임

2)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각 분석단위의 값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

울산 가구의 자산·부채·소득(요약)

□ 2024년 기준 연간 울산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150만원, 부채는 7,049만원, 순자산은 3억 8,101만원, 가구소득은 7,853만원임

○ (자산) 2020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하여 전국 평균(4.9%)보다 낮은 증감률 기록
- 금융자산(1.9%), 실물자산(4.0%), 순자산(3.9%) 모두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각각 낮음

○ (부채) 전국 평균(2.5%)보다 낮은 1.0% 증감률을 기록
- 부채 평균은 7,049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77.2 수준임

○ (소득) 2023년 평균 가구소득의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4.8%)보다 낮은 4.7%
- 가구소득 평균(7,853만원), 가구소득 중앙값(6,376만원) 모두 전국 평균보다 각각 높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국이 2020년 대비 10.9%p 감소한 반면 울산은 4.2%p 증가, 상대수준은 2020년 대비 18.1p 증가한 92.9 기록

2024년 울산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현황

(단위: 만원, %, 전국=100))

	자산 (A)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B)	금융부채 (C)	순자산 (A-B)	가구소득	금융부채/저축액	부채/자산 (B/A)
울산	45,150	10,804	34,345	7,049	5,923	38,101	7,853	63.5	15.6
연평균 증감률 ¹⁾	3.5	1.9	4.0	1.0	4.7	3.9	4.7	-	-
상대수준 ²⁾	83.6	80.8	84.5	77.2	89.2	84.9	109.3	92.9	92.4
전국	54,022	13,378	40,644	9,128	6,637	44,894	7,185	68.4	16.9

주: 1) 2020-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가구소득의 경우 2019-2023년임

2)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각 분석단위의 값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

경남 가구의 자산·부채·소득(요약)

□ 2024년 기준 연간 경남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8,053만원, 부채는 5,741만원, 순자산은 3억 2,312만원, 가구소득은 6,194만원임

○ (자산) 2020년 이후 연평균 4.8% 증가하며 전국 평균(4.9%)과 비슷한 수준

- 금융자산(8.6%), 순자산(7.2%)의 연평균 증감률은 전국 평균보다 각각 높음
- 순자산(5.3%)의 중앙값 증감률은 전국 순자산 중앙값의 증감률(4.4%)보다 높음

○ (부채) 2020년 이후 연평균 5.1% 감소하여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부채 감소

- 상대수준은 2020년 85.6에서 2024년 62.9로 22.7p 감소

○ (소득) 2023년 평균 가구소득은 6,194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86.2 수준

- 사업소득(5.8%), 재산소득(10.2%)의 증감률은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각각 높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20년 대비 40.0%p 감소하였고

상대수준도 2020년 대비 40.4p 하락하여 동남권에서 가장 낮은 73.6 기록

2024년 경남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현황

(단위: 만원, %, 전국=100)

	자산 (A)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 (B)	금융부채 (C)	순자산 (A-B)	가구소득	금융부채/저축액	부채/자산 (B/A)
경남	38,053	10,562	27,491	5,741	4,692	32,312	6,194	50.3	15.1
연평균 증감률 ¹⁾	4.8	8.6	3.6	-5.1	-5.7	7.2	3.7	-	-
상대수준 ²⁾	70.4	79.0	67.6	62.9	70.7	72.0	86.2	73.6	89.3
전국	54,022	13,378	40,644	9,128	6,637	44,894	7,185	68.4	16.9

주: 1) 2020-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가구소득의 경우 2019-2023년임

2)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각 분석단위의 값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최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인력 확보 등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은 동남권의 저출생 지표를 인구현황,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4개 영역, 32개 지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양동희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기획보도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 인구현황

- (인구규모) '23년 동남권 인구*는 744만 6천 명으로, '00년 대비 2.5% 감소
* 유소년인구(82만 4천명) 및 생산연령인구(506만 7천명)는 각각 47.9%, 8.3% 감소
* 고령인구(155만 6천명)는 191.5% 증가
- (추계인구) '52년 동남권 인구는 587만 5천 명으로, '22년 대비 23.7% 감소할 것으로 전망

II. 출산현황

- (합계출산율) '23년 동남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14년 대비 0.53명 감소
- (모(母)의 평균출산연령) '23년 동남권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은 33.5세로, '14년 대비 1.5세 상승
-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23년 동남권의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율은 39.8%로, '15년 대비 9.4%p 증가
- (평균초혼연령) '23년 동남권의 평균초혼연령은 남편 33.9세, 아내 31.5세로, '14년 대비 각각 1.6세 상승

Ⅲ. 결정요인

- (결혼에 대한 견해) '24년 동남권 미혼 남녀 중 '결혼을 해야 한다'는 33.4%,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5.4% 비율로 응답
 -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에 대한 견해) '24년 동남권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1.7%로, '18년 대비 1.6%p 감소
- (청년층 고용률) '24년 동남권 청년층 고용률은 66.4%로, '15년 대비 4.4%p 상승
 - － 청년층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69.4%, 임시·일용근로자 19.0% 등 임
- (신혼부부 주택소유·임대료 비율) '23년 동남권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율은 47.8%로 '15년 대비 2.7%p 감소
 - － 동남권 신혼부부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9.0%로, '20년 대비 2.3%p 증가

Ⅳ. 정책제도

- (저출생 대책) '24년 동남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주거지원(31.6%), 청년 일자리 지원(24.2%) 순으로 나타남
- (난임시술 지원) '23년 동남권 난임시술 진료자 수는 16,065명, 진료 금액은 284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사용률) '23년 동남권 출생아 부모의 '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1.8%로, '15년 대비 14.8%p 증가
- (기혼여성 고용률) '24년 동남권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0.1%로, '16년 대비 9.7%p 상승

【붙임】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세부내용) 1부.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전현주 (051-850-3362)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일 러 두 기

□ 분석목적

- (정확한 현황 파악) 출생아 수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료 제공)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지역 맞춤형 대응 기반 마련을 목적

□ 분석내용 [4개 영역, 32개 지표]

- (지표선정) 「저출생 통계지표*」를 참고하여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개 영역, 32개 지표로 구성하여 동남권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
 - * 통계청은 2024년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 지표체계 구축
- (자료분석) 저출생의 복합적 원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계열 및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동남권 저출생 현상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분석대상

- (활용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교육부 「보육통계」 등
- (작성기간) 2015~2024년(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라 상이)
- (작성범위) 전국,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포함)

□ 이용시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 방법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 게시

일 러 두 기

□ 작성 지표 및 자료원

영역	지표명	활용 자료	분석기간
Ⅰ. 동남권 인구 현황	연령계층별 인구	통계청「인구총조사」	2000~2023
	유소년인구 비중 및 유소년부양비	통계청「인구총조사」	2000~2023
	추계인구	통계청「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비중 및 부양비	통계청「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
Ⅱ. 출산현황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4~2023
	합계출산율		
	모(母)의 평균출산연령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통계청「신혼부부통계」	2015~202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4~2023
	평균초혼연령		
	저체중아 출생 비율		
Ⅲ. 결정요인	결혼에 대한 견해	통계청「사회조사」	2016, 2024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통계청「사회조사」	2022, 2024
	자녀에 대한 견해	통계청「사회조사」	2018, 2024
	이상적인 자녀 수	통계청「사회조사」	2024
	청년층 인구 비중	통계청「인구총조사」	2015~2023
	청년층 고용률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5~2024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4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4
	신혼부부 가구의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2020~2023
	신혼부부 주택소유 비율	통계청「신혼부부통계」	2015~202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5~2024
	자녀 교육비 부담도	통계청「사회조사」	2016~2024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통계청「사회조사」	2016, 2024
	부모별 자녀 돌봄 분담 실태	여성가족부「가족실태조사」	2020, 2023
Ⅳ. 정책제도	저출생 대책	통계청「사회조사」	2024
	임대주택 공급 현황	국토교통부「임대주택통계」	2014~2023
	난임시술 지원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난임시술)」	2019, 2023
	보육시설 이용률	교육부「보육통계」	2015~2024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청「육아휴직통계」	2015~2023
	기혼여성 고용률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16~2024
	초등학생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15~2024

목 차

I. 동남권 인구 현황

1. 연령계층별 인구	1
2. 유소년인구 비중 및 유소년부양비	2
3. 추계인구	3
4.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비중 및 부양비	4

II. 출산현황

1.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5
2. 합계출산율	6
3. 모(母)의 평균출산연령	7
4.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8
5.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9
6. 평균초혼연령	10
7. 저체중아 출생 비율	11

III. 결정요인

1. 결혼에 대한 견해	12
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3
3. 자녀에 대한 견해	14
4. 이상적인 자녀 수	15
5. 청년층 인구 비중	16
6. 청년층 고용률	17
7.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18
8.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분포	19
9. 신혼부부 가구의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
10. 신혼부부 주택소유 비율	21
1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2
12. 자녀 교육비 부담도	23
1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4
14. 부모별 자녀 돌봄 분담 실태	25

IV. 정책제도

1. 저출생 대책	26
2. 임대주택 공급 현황	27
3. 난임시술 지원 현황	28
4. 보육시설 이용률	29
5. 육아휴직 사용률	30
6. 기혼여성 고용률	31
7. 초등학생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	32

동남권 저출생과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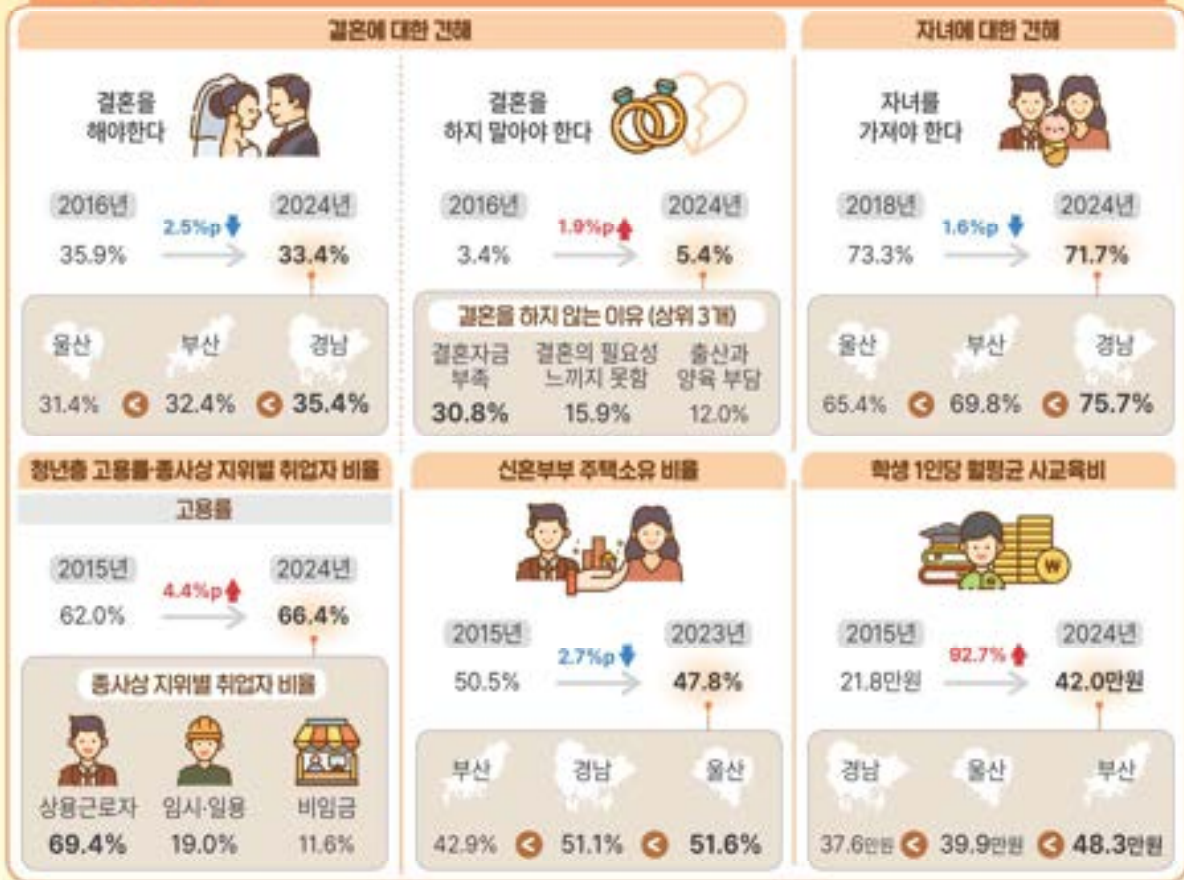
I. 동남권 인구현황



II. 출산현황



III. 결정요인



IV. 정책제도





보도시점 2025. 7. 22.(화) 12:00 배포 2025. 7. 22.(화) 09:00

동남권 50⁺ 인구 일자리의 오늘과 내일

최근 10년(2015, 2024년) 50세 이상 인구의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 현황과 변화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신연주 (051-850-3351)
		담당자	주무관	김규한 (051-850-3353)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인구감소, 청년인구 지역 유출,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적 변화 가속 진행중

* 전국('24.12월) 대비 부산('21년), 경남('23년), 울산('27년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층 인력의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 고령층 고용시장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60~64세 연령층은 71.9세, 75~79세 연령층은 82.3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4)

□ 분석 목적

- 지속적인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지역경제활동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파악**
- 5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 현황과 추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고용·노동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은퇴연령 전후의 연령층이 갖는 경제활동 관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분석대상 및 이용자료

- 분석대상: 50세 이상 연령층을 5세 단위로 구분
-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시도 단위 및 전국
- 이용자료

부문	출처	자료명	기준시점
I.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년 기준
II. 경제활동 현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2015년, 2024년
III. 산업별 인력 수급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5년, 2025년 ^{점정}

* 부문별 원자료 출처에 따라 산업분류, 직업분류의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음

□ 자료 이용시 유의 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 및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별 통계 산출 기준(기준시점, 가중치 등) 차이로 통계자료별 유사 항목 간 통계값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값 없음, 「0.0」: 단위 미만의 값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1~3

□ 동남권 50+ 인구 일자리의 오늘과 내일

I.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1. 인구구조 변화	4
2. 50세 이상 연령대 세분화 추계	5
3. 기대여명	6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현황	7

II. 경제활동 현황

1. 50세 이상 취업자 현황	8
2. 50세 이상 고용률 현황	9
3. 50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현황	10
3-1. 50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11
3-2. 50세 이상 산업별 '남자' 취업자 수 증감	13
3-3. 50세 이상 산업별 '여자' 취업자 수 증감	14
4. 50세 이상 직업별 취업자 현황	15
5-1. 50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소득 분포	17
5-2.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분포	18

III. 산업별 인력 수급 현황

1.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 현황	20
2-1. 부산 지역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	21
2-2. 울산 지역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	22
2-3. 경남 지역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	23

부산 50세 이상 취업자의 경제활동 현황 [요약]

- 인구구조 변화: 50세 이상 인구(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년})
 - '25년 부산 전체 인구의 49%(1,587천 명)에서 '50년 64%(1,621천 명)로 증가 전망
 - 50~64세^{생산연령층}(262천 명) 감소, 65세 이상^{고령층}(296천 명) 증가로 추계
- 50세 이상 경제활동 현황^{'15년 vs '24년}
 - (취업자 수) '24년 790.7천 명으로 '15년(673.3천 명)에 비해 117.4천 명 증가
 - (고용률) '24년 50.5%로 '15년(50.7%)에 비해 0.2%p 감소
 - (산업별) 「보건·복지(101.0천 명)」, 「농림어업(11.1천 명)」, 「건설(9.8천 명)」 순으로 증가
 - (직업별) 「사무(37천 명)」, 「전문가(24천 명)」, 「서비스(23천 명)」 순으로 증가
-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25년 잠정}
 - 부산의 산업별 부족 인력은 전체 15천여 명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294명)」, 「광·제조업(3,115명)」 등에서 부족

부산 50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2015, 2024)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증감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농림 어업	광제조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지원 부동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복지	그 외 산업 ^{주1)}
50세 이상	117.4	11.1	-18.0	7.2	9.8	-6.6	2.5	3.1	4.5	101.0	2.7
부 산											
50~54	-18.9	-0.3	-13.3	-3.8	3.2	-10.3	-1.3	2.2	-2.1	8.1	-1.3
55~59	-23.1	0.5	-14.0	-4.4	1.3	-5.9	-6.3	-0.9	3.1	8.9	-5.3
60~64	35.0	3.3	2.1	1.9	1.9	2.1	4.0	-1.0	0.7	16.0	4.0
65~69	49.6	2.0	4.1	4.8	3.0	4.3	3.1	1.2	1.8	21.5	3.8
70~	74.8	5.5	3.1	8.8	0.4	3.2	3.1	1.5	1.0	46.6	1.5
전국(50세~)	3,545.1	174.0	419.6	416.7	317.6	207.4	228.5	206.7	222.3	1,086.5	265.8

출처: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2015, 2024)」

주1) 대분류(10차 산업분류)의 E, M, N, R, S, T, U 산업을 포함

울산 50세 이상 취업자의 경제활동 현황 [요약]

- 인구구조 변화: 50세 이상 인구(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년})
 - '25년 울산 전체 인구의 45%(493천 명)에서 '50년 66%(559천 명)로 증가 전망
 - 50~64세^{생산연령층}(106천 명) 감소, 65세 이상^{고령층}(172천 명) 증가로 추계
- 50세 이상 경제활동 현황^{'15년 vs '24년}
 - (취업자 수) '24년 271.8천 명으로 '15년(195.2천 명)에 비해 76.6천 명 증가
 - (고용률) '24년 56.5%로 '15년(55.4%)에 비해 1.1%p 증가
 - (산업별) 「보건·복지(21.7천 명)」, 「광업·제조업(11.7천 명)」, 「사업지원·부동산(8.4천 명)」 순으로 증가
 - (직업별) 「단순노무(21천 명)」, 「전문가(17천 명)」, 「장치조작(15천 명)」 순으로 증가
-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25년 잠정}
 - 울산의 산업별 부족 인력은 전체 6천여 명이며, 「광·제조업(2,454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43명)」 등에서 부족

울산 50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2015, 2024)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증감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농림어업	광제조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지원 부동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복지	그 외 산업 ^{주1)}
50세 이상	76.6	-0.3	11.7	8.0	2.5	5.1	8.4	8.0	5.9	21.7	5.6
50~54	-4.3	-0.3	-5.4	0.1	-1.2	-4.7	-4	2.4	1.0	2.9	1.1
55~59	19.7	-0.3	6.8	1.7	-1.5	3.8	0.7	-0.2	3.0	5.0	0.7
60~64	27.0	0.2	7.0	3.1	3.4	3.8	2.5	1.4	1.5	2.8	1.2
65~69	16.4	0.1	2.4	1.4	1.4	0.7	3.9	1.8	0.5	2.5	1.7
70~	17.8	0.0	0.9	1.6	0.5	1.5	1.6	2.6	-0.2	8.5	0.8
전국(50세~)	3,545.1	174.0	419.6	416.7	317.6	207.4	228.5	206.7	222.3	1,086.5	265.8

출처: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2015, 2024)」

주1) 대분류(10차 산업분류)의 E, M, N, R, S, T, U 산업을 포함

경남 50세 이상 취업자의 경제활동 현황 [요약]

- 인구구조 변화: 50세 이상 인구(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2년})
 - '25년 경남 전체 인구의 49%(1,575천 명)에서 '50년 69%(1,839천 명)로 증가 전망
 - 50~64세^{생산연령층}(275천 명) 감소, 65세 이상^{고령층}(538천 명) 증가로 추계
- 50세 이상 경제활동 현황^{'15년 vs '24년}
 - (취업자 수) '24년 930.6천 명으로 '15년(653.6천 명)에 비해 **277천 명 증가**하여 동남권에서 가장 많이 증가
 - (고용률) '24년 60.7%로 '15년(56.4%)에 비해 **4.3%p 증가**
 - (산업별) 「보건·복지(81.6천 명)」, 「농림어업(37.8천 명)」, 「광·제조업(32.5천 명)」 순으로 증가
 - (직업별) 「단순노무(74천 명)」, 「서비스(51천 명)」, 「농림어업(37천 명)」 순으로 증가
- 산업별 인력 수요 현황^{'25년 잠정}
 - 경남의 산업별 부족 인력은 전체 18천여 명이며, 「광·제조업(9,12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405명)」 등에서 부족

경남 50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2015, 2024)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증감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농림 어업	광제조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사업지원 부동산	공공 행정	교육	보건 복지	그 외 산업 ^{주1)}
50세 이상	277.0	37.8	32.5	18.6	15.4	20.8	15.1	19.4	17.1	81.6	18.6
경남 50~54	14.2	-2.3	0.1	1.6	0.4	-10.0	-3	2.3	5.8	10.5	6.1
55~59	42.0	-3.2	7.3	1.0	6.6	4.3	2.4	4.1	5.6	8.0	5.8
60~64	71.0	10.1	12.9	7.4	2.7	12.3	5.1	3.8	2.9	12.0	2.0
65~69	75.4	14.4	9.7	6.6	4.4	10.7	6.6	4.3	1.5	14.8	2.5
70~	74.3	18.8	2.5	2.0	1.4	3.5	1.2	5.0	1.4	36.4	2.2
전국(50세~)	3,545.1	174.0	419.6	416.7	317.6	207.4	228.5	206.7	222.3	1,086.5	265.8

출처: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2015, 2024)」

주1) 대분류(10차 산업분류)의 E, M, N, R, S, T, U 산업을 포함



보도시점 2025. 7. 29.(화) 12:00 배포 2025. 7. 29.(화) 09:00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신명옥 (051-850-3363)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각 생애단계별 1인가구의 인구·주거·일자리·생활 및 주관적 의식을 시도별로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분석대상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만 19~39세	만 40~64세	만 65세 이상

- (1인가구 정의)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작성범위) 전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활용 자료 및 분석 기간

부문	자료명	분석 기간	자료 출처
I. 현황	인구주택총조사(전수)	2010, 2015, 202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표본)	2020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2015, 2023	
II. 경제적 특성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2023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3	
III. 생활 및 주관적 의식	사회조사	2023	통계청
		2024	
	가족실태조사	2023	여성가족부

□ 이용 시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공표된 통계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기에 항목의 상대표준오차(RSE)가 $25\% \leq RSE < 50\%$ 인 경우 「*」, $50\% \leq RSE$ 인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 표시는 공표 단위 미만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1
---	----	--	---

□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

I. 현황

1. 가구원수별 가구	4
2. 성별 1인가구	5
3. 연령대별 1인가구	6
3-1. 청년층 연령대별 1인가구	6
3-2. 중장년층 연령대별 1인가구	7
3-3. 고령층 연령대별 1인가구	8
4. 혼인상태별 1인가구	9
5. 거주종류별 1인가구	10
6. 점유형태별 1인가구	11

II. 경제적 특성

1. 고용률	12
2. 실업률	13
3.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14
4. 산업별 취업자	15
5. 직업별 취업자	16

목 차

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7
7.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8
8. 월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	19
9.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	20

Ⅲ. 생활과 주관적 의식

1. 주관적 만족도	21
2. 건강 평가	22
3. 건강 관리	23
4. 스트레스 정도	24
5. 사회적 관계망	25
5-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25
5-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26
5-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27
6. 야간 보행의 안전도	28
7.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29
8. 전반적인 생활 환경	30
9.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31
10. 1인가구 이유	32

□ 통계표	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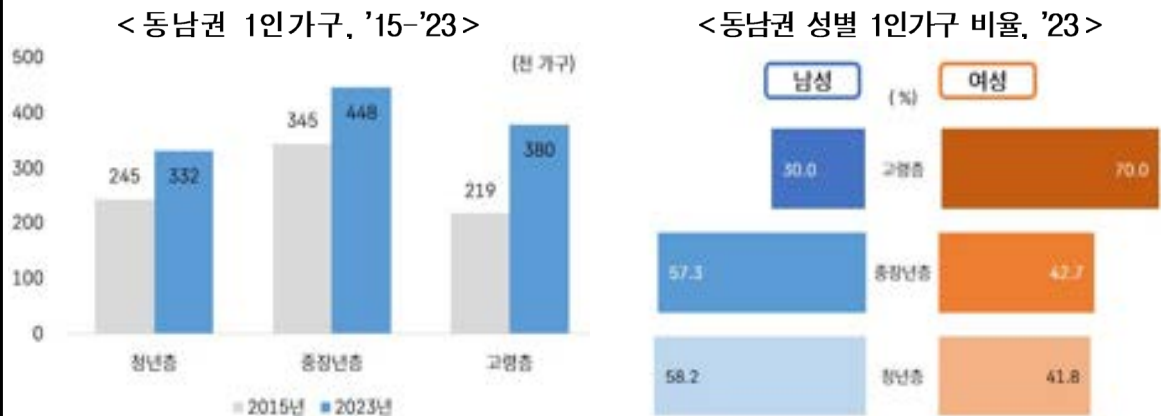
동남권 1인가구의 생애단계별 현황 및 특성(요약)

I. 현황

□ '23년 동남권 1인가구 비중은 청년층^만 19~39세은 54.1%(332천 가구), 중장년층^만 40~64세은 25.6%(448천 가구), 고령층^만 65세 이상은 39.7%(380천 가구)로 나타남

○ '15년 대비 청년층 1인가구 비중은 16.2%p 증가(86천 가구), 중장년층은 5.8%p 증가(103천 가구), 고령층은 4.7%p 증가(161천 가구)

□ (성별) '23년 동남권 1인가구는 청년층(男 58.2%, 女 41.8%)과 중장년층(男 57.3%, 女 42.7%)은 남성이 많고, 고령층(男 30.0%, 女 70.0%)은 여성이 많음



□ (거처종류별) '23년 동남권 청년층 1인가구의 거처종류는 단독주택(111천 가구, 33.3%), 중장년층은 아파트(188천 가구, 42.0%), 고령층은 단독주택(178천 가구, 47.0%)이 가장 많음

□ (점유형태별) '23년 동남권 청년층 1인가구의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167천 가구, 56.9%), 중장년층 자기집(158천 가구, 39.2%), 고령층 자기집(185천 가구, 62.4%)이 가장 많음



II. 경제적 특성

- (고용률) '23년 동남권 1인가구의 취업자 수는 중장년층(293천 명), 청년층(232천 명), 고령층(110천 명) 순이며 고용률은 청년층(76.1%), 중장년층(68.8%), 고령층(30.7%) 순으로 높음
- (실업률) '23년 동남권 1인가구의 실업자 수는 청년층(12천 명), 중장년층(11천 명), 고령층(3천 명) 순이며 실업률은 청년층(4.9%), 중장년층(3.7%), 고령층(2.4%) 순으로 높음

<동남권 취업자 및 고용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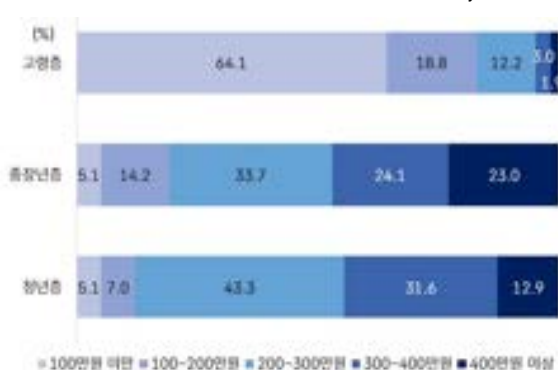


<동남권 실업자 및 실업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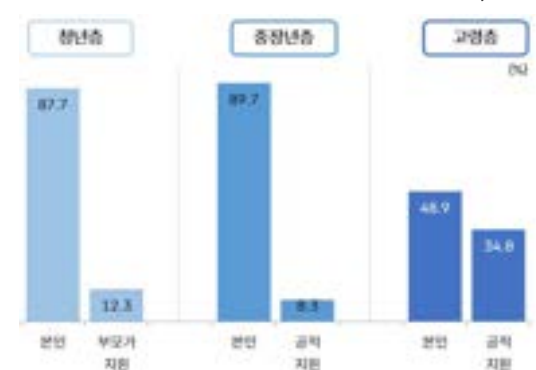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23년 동남권 1인가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청년층 '정규교육기관 통학'(58.5%), 중장년층 '쉬었음'(49.4%), 고령층 '육아·가사'(50.1%)의 응답 비중이 높음
- (월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 '23년 동남권 1인가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200~300만원 미만(각각 43.3%, 33.7%), 고령층에서는 100만원 미만(64.1%)이 가장 많음
-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 '23년 동남권 1인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 1순위는 '본인'이며, 2순위는 청년층 '부모가 지원'(12.3%), 중장년층과 고령층 '공적 지원'(각각 8.3%, 34.8%)임

<동남권 월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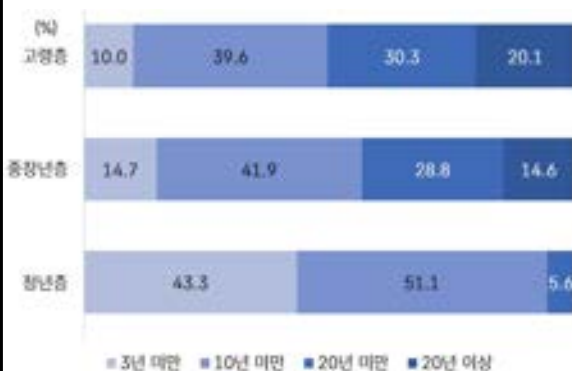
<동남권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 상위 2순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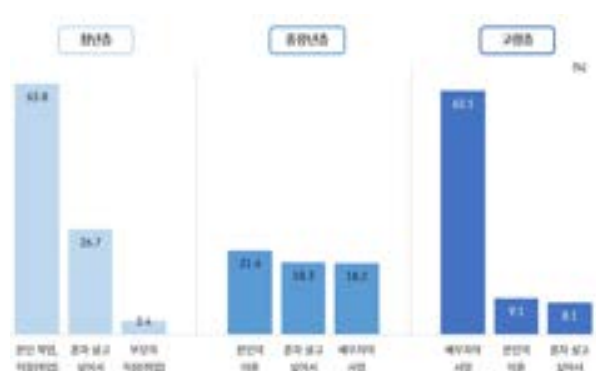
Ⅲ. 생활과 주관적 인식

- (주관적 만족도) '24년 동남권 1인가구 중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청년층(48.5%), 고령층(36.4%), 중장년층(32.3%) 순으로 높음
- (건강평가) '24년 동남권 1인가구 중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청년층(75.8%), 중장년층(50.6%), 고령층(28.6%) 순으로 높음
- (스트레스 정도) '24년 동남권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중장년층(43.7%), 고령층(32.4%), 청년층(27.9%) 순으로 높음
-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24년 동남권 청년층 및 중장년층 1인가구는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가 주로 매체에서 사건·사고 접함(각각 38.7%, 40.1%), 고령층은 인적이 드물(45.8%)이라고 응답함
-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23년 동남권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고령층(12년 3개월), 중장년층(9년 10개월), 청년층(4년 2개월) 순임
 -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이 청년층은 10명 중 9명 정도가 10년 미만이고, 고령층은 2명 중 1명이 10년 이상임
- (1인가구 이유) '23년 동남권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청년층은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63.8%), 중장년층은 본인의 이혼(21.4%), 고령층은 배우자의 사망(62.1%)임

< 동남권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23 >



< 동남권 1인가구 이유 상위 3순위, '23 >



보도시점 2025. 8. 26.(화) 12:00 배포 2025. 8. 26.(화) 9:00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 (2015년~2024년)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1)
		담당자	팀 장	신연주 (051-850-3351)
			주무관	김명주 (051-850-3352)

일 러 두 기

- ☐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는 부산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변화가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부산지역의 주요상권 생태계를 지리정보(GIS)를 이용하여 작성
 -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상권 및 전통시장' 정보를 활용
 - '15년~'23년은 연간자료, '24년은 분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잠정치(p)가 있는 '24년(4분기) 자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항목별 자료 제공 범위가 매출액은 '15년~'23년, 그 외 항목은 '15년~'24년^p임
 - 작성 대상은 기업통계등록부의 상권 정보가 있는 개인사업체
 - 산업분류는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통계표 자료 중 마스킹(*) 처리는 개인 또는 사업체 정보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값이 없고, 「0.0」은 단위 미만 값을 의미하고, 「p」 표시는 잠정 값임
 -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보도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서 보실 수 있음

일 러 두 기

□ 상권 설정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365'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2023년 구축한 기준 활용

상권 설정 기준(소상공인진흥공단)

- 1단계: 카드매출액, 유동인구, 업소밀도 등을 활용하여 공간 자기 상관 분석을 통해 구역 생성
- 2단계: 경계영역의 중심점 기준 인근 시설물 정보(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를 활용하여 상권 명칭을 부여하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검증

- 부산광역시 55개 상권명

상권명		상권명	
중구	남포역7번 (출구)	해운대구	센텀119안전센터
	남포역8번 (출구)		씨클라우드호텔(시외터미널)
	부산역7번 (출구)		장산역13번 (출구)
	자갈치역8번 (출구)		장산역3번 (출구)
동구	범일역10번 (출구)		장산역4번 (출구)
	범일역1번 (출구)		좌동재래시장
	범일역6번 (출구)		한화리조트(시외터미널)
	부산역7번 (출구)	사하구	괴정역8번 (출구)
	부산진역7번 (출구)		장림골목시장
영도구	(부산)영도우체국		하단역11번 (출구)
부산진구	당감초등학교		하단역12번 (출구)
	범일역10번 (출구)		하단역1번 (출구)
	범일역1번 (출구)	금정구	부산대역3번 (출구)
	(부산)가평우편취급국		(부산)서동우체국
	서면역13번 (출구)		온천1동주민센터
	서면역7번 (출구)	연제구	거제역10번 (출구)
	서면역8번 (출구)		시청역7번 (출구)
	양정역3번 (출구)		연산역12번 (출구)
	전포역8번 (출구)		연산역7번 (출구)
동래구	사직1동주민센터	수영구	광민지구대
	수안역3번 (출구)		광일맨션 정류장
	온천1동주민센터		남천역1번 (출구)
남구	경성대·부경대역1번 (출구)		수영역4번 (출구)
	대연역5번 (출구)		수영역7번 (출구)
	대연역6번 (출구)	사상구	사상역6번 (출구)
	(부산)용호동우체국		서감초등학교
북구	(경부선)화명역고용(복지)센터(정류장)	기장군	기장시외터미널
	덕천역1번 (출구)		정관신도시시장
	덕천역4번 (출구)	합계	총 55개* 상권
	덕천역6번 (출구)		(구·군별 중복 상권 4개 있음)
	북부산우체국		

※ 간결한 표현을 위해 일부 상권명의 경우 약칭을 사용

목 차

□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요약)	1
----------------------------	---

I.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변화

1.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사업체 수	5
2.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종사자 수	7
3.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사업체당 매출액	9
4.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개업사업체 수	11
5. 부산지역 주요상권(55개) 폐업사업체 수	13

II. 원도심(중구·동구) 주요상권 변화

1. 원도심 주요상권 사업체 수	15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비중	16
3. 영업기간별 사업체 비중	16
4.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17
5. 개업사업체 현황	18
6. 폐업사업체 현황	19
7.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20
7-1. 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21

III. 서면 일대(부산진구) 주요상권 변화

1. 서면 일대 주요상권 사업체 수	22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비중	23
3. 영업기간별 사업체 비중	23

4.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24
5. 개업사업체 현황	25
6. 폐업사업체 현황	26
7.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27
7-1. 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28

IV. 해운대구·수영구 주요상권 변화

1. 해운대구·수영구 주요상권 사업체 수	29
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비중	30
3. 영업기간별 사업체 비중	31
4.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32
5. 개업사업체 현황	33
6. 폐업사업체 현황	34
7.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35
7-1. 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36

□ 통계표	37
-------------	----

□ 부록

1. 기업통계등록부(SBR) 개요	48
--------------------------	----

부산지역 주요상권 변화(요약)

부산지역 55개 상권의 변화

- (사업체 수) '24년 94,686개로 '15년(92,336개)에 비해 2,350개(2.5%) 증가
 - 규모면에서 보면, '24년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 「서면역8번(9,289개)」, 중구 「남포역7번(8,748개)」 상권 순임
 - * '15년은 「남포역7번(10,269개)」, 「서면역8번(8,921개)」 순이었음
 - 55개 중 '15년 대비 부산진구 「전포역8번(1,018개)」 상권의 사업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수영구 「광일맨션 정류장(292.6%)」 상권이 가장 높음
 - 55개 중 중구 「남포역7번(-1,521개)」 상권의 사업체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동구 「범일역1번 (-24.6%)」, 금정구 「온천동주민센터(-24.6%)」 상권이 가장 높음
- (종사자 수) '24년 52,634명으로 '15년(47,374명)에 비해 5,260명(11.1%) 증가
 - '15년 대비 부산진구 「서면역8번(772명)」 상권의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부산진구 「전포역8번(103.9%)」 상권이 가장 높음
- (매출액) '23년 162.5백만 원으로, '15년(140.6백만 원)에 비해 15.6% 증가
 - '23년 사상구 「서감초등학교」 상권이 604.2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동구 「범일역10번」 상권이 78.2백만원으로 가장 낮음
 - '15년 대비 부산진구 「가평우편취급국(89백만 원)」 상권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수영구 「수영역7번(66.7%)」 상권이 가장 높음
- (개업사업체 수) '24년 9,692개로, '15년(11,806개)에 비해 17.9% 감소
 - '24년 부산진구 「서면역8번」 상권이 가장 많은 985개 개업함
- (폐업사업체 수) '24년 8,934개로, '15년(11,704개)에 비해 23.7% 감소
 - '24년 부산진구 「서면역8번」 상권이 가장 많은 964개 폐업함
 - '15년 대비 부산진구 「전포역8번」 상권이 가장 많은 154개 사업체가 폐업하여 증가율 119.4% 기록

원도심(중구·동구) 주요상권 변화

- (사업체 수) '15년 대비 중구 3개 상권은 13.9% 감소, 동구 2개 상권은 19.6% 감소
 - 규모면에서 가장 큰 중구 「남포역7번」 상권은 '15년 10,269개 사업체에서 매년 감소하여 '24년 8,748개임
 - 동구 「범일역1번」 상권이 '15년 대비 가장 높은 24.6% 감소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비중) '24년 종사자 수 '0명'인 사업체 비중은 중구는 86.1%이고 동구는 91.4%임
-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23년 동구 「범일역1번」 상권은 78.1%가 5천만원 미만이고, 중구 「자갈치8번」 상권은 12.9%가 5억원 이상임

【 원도심 주요상권 사업체 수 】

												(단위: 개, %)	
상권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p	'15년 대비 증감	'15년 대비 증감률
중구	남포역7번	10,269	10,136	10,071	10,028	9,775	9,523	9,348	9,485	9,353	8,748	-1,521	-14.8
	남포역8번	602	615	616	634	643	628	586	532	535	512	-90	-15.0
	자갈치역8번	1,904	1,914	1,803	1,800	1,807	1,726	1,721	1,642	1,656	1,733	-171	-9.0
	계(3개 상권)	12,775	12,665	12,490	12,462	12,225	11,877	11,655	11,659	11,544	10,993	-1,782	-13.9
동구	범일역1번	3,407	3,380	3,349	3,276	3,191	3,171	3,094	2,999	2,950	2,569	-838	-24.6
	부산역7번	1,506	1,450	1,416	1,424	1,399	1,381	1,407	1,412	1,434	1,381	-125	-8.3
	계(2개 상권)	4,913	4,830	4,765	4,700	4,590	4,552	4,501	4,411	4,384	3,950	-963	-19.6

【 QGIS로 본 원도심 주요상권 】

【 중구 】



【 동구 】



서면 일대(부산진구) 주요상권 변화

- (사업체 수) 부산진구 4개 주요상권은 '15년 대비 5.0% 증가
 - '15년 대비 「서면역13번」 상권은 9.8% 감소하였고
 - 「서면역7번(1.5%)」, 「서면역8번(4.1%)」 상권은 큰 변화 없으며
 - 「전포역8번」 상권은 76.1%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비중) '24년 84.0%가 종사자 수 '0명'인 사업체임
-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서면역13번」 상권의 10.1%가 '5억원 이상'임
- (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15년에 비해 '비알코올 음료점업(155.3%)'과 '외국식 음식점업(88.0%)'의 증가가 두드러짐

【 서면 일대 주요상권 사업체 수 】

(단위: 개, %)

상권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p	'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서면역13번	5,078	4,875	4,705	4,700	4,598	4,593	4,635	4,705	4,768	4,581	-497	-9.8
서면역7번	3,591	3,494	3,583	3,666	3,685	3,693	3,679	3,884	3,804	3,644	53	1.5
서면역8번	8,921	9,180	9,268	9,102	9,360	9,540	9,382	9,753	9,741	9,289	368	4.1
전포역8번	1,337	1,362	1,399	1,468	1,554	1,674	1,919	2,105	2,272	2,355	1,018	76.1
계(4개 상권)	18,927	18,911	18,955	18,936	19,197	19,500	19,615	20,447	20,585	19,869	942	5.0

【 QGIS로 본 서면 일대 주요상권 】

해운대구·수영구 주요상권 변화

- (사업체 수) '15년 대비 해운대구 3개 상권은 162% 증가, 수영구 3개 상권은 80.8% 증가
 - '15년 대비 해운대구 「센텀119안전센터(-3.9%)」 상권은 감소하고, 「씨클라우드호텔(31.5%)」, 「한화리조트(6.1%)」 상권은 증가
 - 수영구 3개상권 모두 '15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광일맨션 정류장」 상권이 831개 증가하여, 292.6%의 높은 증가율 기록
- (매출액규모별 사업체 비중) 해운대구와 수영구 모두 '15년에 비해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사업체 비중이 늘었음
- (음식점업 사업체 현황) '15년에 비해 수영구 상권은 '비알코올 음료점업(214.3%)'과 '외국식 음식점업(167.9%)'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해운대구·수영구 주요상권 사업체 수 】

(단위: 개, %)

상권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a	'15년 대비 증감	'15년 대비 증감률
해운대구	센텀119안전센터	737	773	771	808	842	866	839	850	708	-29	-3.9
	씨클라우드호텔	1,876	2,301	2,356	2,298	2,312	2,531	2,486	2,655	2,788	591	31.5
	한화리조트	1,371	1,404	1,467	1,532	1,613	1,705	1,806	2,005	1,786	83	6.1
	계(3개 상권)	3,984	4,478	4,594	4,601	4,733	5,078	5,158	5,499	5,424	645	16.2
수영구	광민지구대	827	828	838	823	900	963	1,105	1,151	1,143	288	34.8
	광일맨션 정류장	284	265	609	892	918	1,011	1,028	1,046	1,044	831	292.6
	수영역7번 출구	645	636	636	633	653	699	769	733	741	300	46.5
	계(3개 상권)	1,756	1,729	2,083	2,348	2,471	2,673	2,902	2,930	2,928	1,419	80.8

【 QGIS로 본 해운대구·수영구 주요상권 】



보도시점 2025. 9. 23.(화) 12:00 배포 2025. 9. 23.(화) 09:00

동남권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이하영 (051-850-3364)

일 러 두 기

□ 분석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취업자 특성,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여 지역 사회 통합 및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 대상 및 작성 범위

- (분석 대상) 통계 자료마다 외국인 정의 및 구분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장기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함

< 활용자료원별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

구분	활용자료원 (작성기관)	장기체류외국인(90일 초과) 대상	기준시점	비고
1	출입국자및 체류외국인통계 (법무부)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매년 12. 31.	-
2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통계청·법무부)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5세 이상, 상주인구 기준)	'24. 5. 15.	귀화자 제외
3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 (통계청)	외국인 상주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 3개월 이상 국내 체류인구, 특별조사구* 제외)	매년 11. 1.	15세 이상 인구만 작성

* 해외주재공관, 교도소, 소년원, 군부대 등에 거주하는 인구

- (작성 범위) 전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체류자격) 보도자료의 체류자격은 ①비전문취업(E-9), ②방문취업(H-2), ③전문인력(E-1~E-7), ④유학생(D-2, D-4-1, D-4-7), ⑤영주(F-5), ⑥결혼이민(F-6), ⑦재외동포(F-4)*로 구분함

* 재외동포 중 91일 이상 체류를 위해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일 러 두 기

○ (산업분류)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함

구분	구분	산업분류
1	농림어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제조업	B. 광업, C. 제조업
3	건설업	F. 건설업
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L. 부동산업 ~ U. 국제 및 외국기관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함

구분	종사상지위	정 의
1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근로자
3	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대표자나 사업자로 신고된 자

○ (소득)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의 소득은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을 의미하며, 모든 일자리 소득의 총합이 아님에 유의

□ 이용 시 주의 사항

- 이 자료는 자료별 작성 시점, 작성 기준 차이 등으로 관련 유사 통계와 결과가 다를 수 있음. 특히,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에서 활용하는 기초자료원의 변동으로 과거자료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대표준오차(RSE)가 $25\% \leq RSE < 50\%$ 이면 「*」, $50\% \leq RSE$ 이면 「**」 표시를 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 이 보도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소식 > 보도자료 > 지역통계

목 차

□ 요약	1
1. 동남권 외국인 현황	6
1-1. 외국인 규모	6
1-2.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7
1-3. 체류자격별 외국인	8
1-4. 성 및 연령별 외국인	9
1-5. 국적별 외국인	10
2. 동남권 외국인의 시군구 및 체류자격별 분포	11
2-1. 시군구별 외국인 분포	11
2-2. 비전문취업 분포	13
2-3. 방문취업 분포	15
2-4. 전문인력 분포	17
2-5. 유학생 분포	19
2-6. 영주 분포	21
2-7. 결혼이민자 분포	23
2-8. 재외동포 분포	25
3.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27
3-1. 외국인 취업자	27
3-2.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28
3-3. 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29
3-4.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의 평균 소득	30
3-5. 직업 및 소득 만족도	31
3-6. 이직 여부 및 직장 변경 사유	32
4. 동남권 외국인의 한국 생활	33
4-1. 한국 생활 만족도	33
4-2.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	34
4-3. 차별 경험 및 이유	35
4-4. 한국 체류기간	36
4-5.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 연장 방법	37
□ 부록	38

동남권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요약)

1. 동남권 외국인 현황

- (외국인) '24년 동남권 외국인은 21만 5천 명으로, '15년(17만 명) 대비 4만 5천 명 증가함
- 동남권 시도별 외국인은 경남(117천 명), 부산(63천 명), 울산(34천 명) 순임
- (체류자격별) '24년 동남권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중은 비전문취업(26.7%), 재외동포(13.5%), 유학생(12.3%) 순임
- 부산은 유학생(29.7%)이, 울산과 경남은 비전문취업(각각 21.1%, 34.7%)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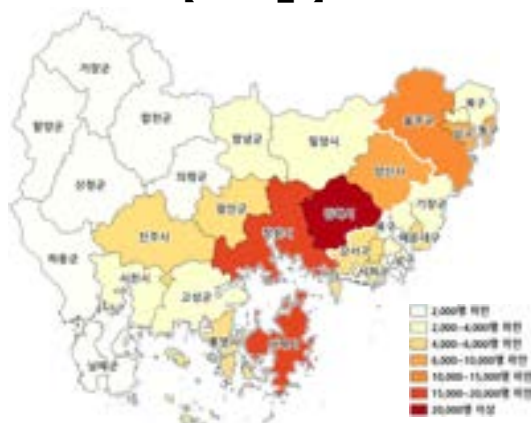
【 동남권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중(2015년, 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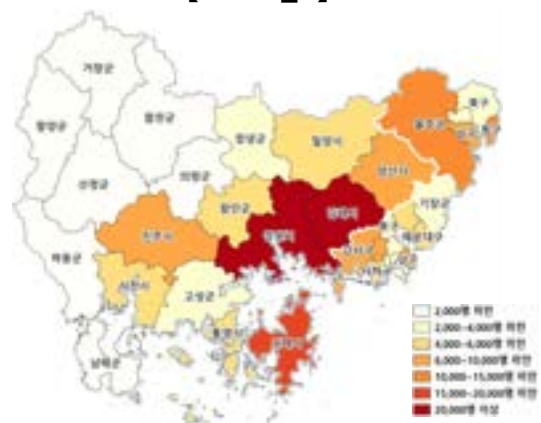
- (성·연령별) '24년 동남권 외국인의 성별 비중은 남자(64.6%)가 여자(35.4%)보다 29.2%p 높고, 연령대별 비중은 30대(32.3%), 20대(29.5%), 40대(14.8%) 순임
- 부산은 20대(37.1%), 울산과 경남은 30대(각각 32.5%, 35.8%)가 가장 많음
- (국적별) '24년 동남권 외국인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22.2%), 한국계 중국(12.4%), 중국(7.6%) 순이고, '15년 대비 '24년 베트남의 비중이 5.2%p 증가함
- 부산과 경남은 베트남(각각 24.3%, 22.2%)이, 울산은 한국계 중국(27.8%)이 가장 많음

2. 동남권 시군구별 외국인 분포

【 2015년 】



【 2024년 】



3.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 (취업자) '23년 동남권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97,972명**이고, 외국인 중 취업자 비중은 **59.5%**로, '15년 대비 5.4%p 감소함
 - 취업자 비중은 **울산(67.0%)**, 경남(62.9%), 부산(49.0%) 순임
- (산업별) '23년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59.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7%),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2%) 순임
 - 광·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67.4%)**, 울산(57.1%), 부산(41.0%) 순임
- (종사상지위별) '23년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시근로자(76.8%)**, 일용근로자(12.7%), 자영업자(10.5%) 순임
 - 상시근로자 비중은 **경남(79.6%)**, 부산(72.9%), 울산(72.6%) 순임
- (산업별 평균 소득) '23년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평균 소득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천 1백만 원)**, 광·제조업(3천만 원), 건설업(2천 5백만 원) 순임
 - 부산과 울산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각각 3천 3백만 원, 3천 2백만 원)이, 경남은 **광·제조업**(3천만 원)이 가장 높음
- (직업·소득 만족도) '24년 동남권 외국인 취업자 중 본인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2%**이고, 본인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65.0%**임

4. 동남권 외국인의 한국 생활

- (한국 생활 만족도) '24년 동남권 외국인 중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83.2%**임
- (한국 생활 어려운 점) '24년 동남권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37.4%**), 어려운 점 없음(**26.9%**), 외로움(**17.0%**) 순임
- (차별 경험) '24년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동남권 외국인은 **17.2%**이며, 차별받은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43.2%)**, 한국어 능력(**41.2%**), 외모(**11.9%**) 순임
- (체류기간) '24년 동남권 외국인의 한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26.6%)**, 5년 이상 10년 미만(**26.1%**), 10년 이상(**20.0%**) 순임
- (체류 희망) '24년 체류자격 만료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동남권 외국인은 **88.9%**이며, 체류 연장 방법은 **체류 기간 연장(68.0%)**, 체류자격 변경(**11.6%**), 영주 자격 취득(**11.5%**) 순임

부산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요약]

1. 부산 체류자격별 외국인

- '24년 부산 체류자격별 외국인은 유학생(29.7%), 비전문취업(15.0%), 재외동포(11.8%) 순이며, 유학생 수는 '15년(6,992명) 대비 '24년 18,794명으로 11,802명 증가함

【 부산 체류자격별 외국인 】

(단위: 명, %, %p)

	2015년		2024년		20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계	46,000	(100.0)	63,290	(100.0)	17,290	-	37.6
등록외국인	39,991	(86.9)	55,805	(88.2)	15,814	(1.2)	39.5
비전문취업	9,981	(21.7)	9,497	(15.0)	-484	(-6.7)	-4.8
방문취업	2,367	(5.1)	590	(0.9)	-1,777	(-4.2)	-75.1
전문인력	2,606	(5.7)	3,811	(6.0)	1,205	(0.4)	46.2
유학생	6,992	(15.2)	18,794	(29.7)	11,802	(14.5)	168.8
영주	3,019	(6.6)	3,843	(6.1)	824	(-0.5)	27.3
결혼이민	5,566	(12.1)	6,429	(10.2)	863	(-1.9)	15.5
기타	9,460	(20.6)	12,841	(20.3)	3,381	(-0.3)	35.7
재외동포	6,009	(13.1)	7,485	(11.8)	1,476	(-1.2)	24.6

2. 부산 구·군별 외국인 분포

- '24년 부산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7,820명), 강서구(7,193명) 순이고, '15년 대비 증가율은 남구(103.8%), 서구(82.7%) 순으로 높음

【 2015년 】



【 2024년 】



3. 부산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 (취업자) '23년 부산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23,640명이고, 외국인 중 취업자 비중은 49.0%임
- (산업별) '23년 부산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4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1%),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2%) 순임
- (산업별 평균 소득) '23년 부산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평균 소득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천 3백만 원), 광·제조업(3천만 원) 순임

울산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요약)

1. 울산 체류자격별 외국인

- '24년 울산 체류자격별 외국인은 비전문취업(21.1%), 재외동포(19.1%), 전문인력(15.1%) 순이며, 전문인력 수는 '15년(1,175명) 대비 '24년 5,147명으로 3,972명 증가함

【 울산 체류자격별 외국인 】

(단위: 명, %, %p)

	2015년		2024년		20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계	32,477	(100.0)	34,168	(100.0)	1,691	-	5.2
등록외국인	26,183	(80.6)	27,642	(80.9)	1,459	(0.3)	5.6
비전문취업	6,286	(19.4)	7,223	(21.1)	937	(1.8)	14.9
방문취업	6,410	(19.7)	1,107	(3.2)	-5,303	(-16.5)	-82.7
전문인력	1,175	(3.6)	5,147	(15.1)	3,972	(11.4)	338.0
유학생	1,051	(3.2)	1,630	(4.8)	579	(1.5)	55.1
영주	2,179	(6.7)	3,254	(9.5)	1,075	(2.8)	49.3
결혼이민	2,630	(8.1)	2,947	(8.6)	317	(0.5)	12.1
기타	6,452	(19.9)	6,334	(18.5)	-118	(-1.3)	-1.8
재외동포	6,294	(19.4)	6,526	(19.1)	232	(-0.3)	3.7

2. 울산 구·군별 외국인 분포

- '24년 울산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울주군(11,318명), 동구(10,630명) 순이고, '15년 대비 외국인은 동구(51.1%), 북구(10.2%)에서만 증가함

【 2015년 】



경남 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요약)

1. 경남 체류자격별 외국인

- '24년 경남 체류자격별 외국인은 비전문취업(34.7%), 재외동포(12.7%), 전문인력(9.0%) 순이며, 전문인력 수는 '15년(2,918명) 대비 '24년 10,566명으로 7,648명 증가함

【 경남 체류자격별 외국인 】

(단위: 명, %, %p)

	2015년		2024년		2015년 대비 증감	
계	91,749	(100.0)	117,270	(100.0)	25,521	-
등록외국인	82,316	(89.7)	102,333	(87.3)	20,017	(-2.5)
비전문취업	40,056	(43.7)	40,717	(34.7)	661	(-8.9)
방문취업	8,182	(8.9)	1,890	(1.6)	-6,292	(-7.3)
전문인력	2,918	(3.2)	10,566	(9.0)	7,648	(5.8)
유학생	1,635	(1.8)	5,902	(5.0)	4,267	(3.3)
영주	3,156	(3.4)	5,578	(4.8)	2,422	(1.3)
결혼이민	8,039	(8.8)	9,510	(8.1)	1,471	(-0.7)
기타	18,330	(20.0)	28,170	(24.0)	9,840	(4.0)
재외동포	9,433	(10.3)	14,937	(12.7)	5,504	(2.5)

2. 경남 시·군별 외국인 분포

- '24년 경남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30,130명), 창원시(21,540명) 순이고, '15년 대비 증가율은 밀양시(126.1%), 거창군(84.0%) 순으로 높음

【 2015년 】



【 2024년 】



3. 경남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 (취업자) '23년 경남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57,141명이고, 외국인 중 취업자 비중은 62.9%임
- (산업별) '23년 경남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6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1.8%), 건설업(7.6%) 순임
- (산업별 평균 소득) '23년 경남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평균 소득은 광·제조업(3천만 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천 8백만 원) 순임

보도시점 2025. 10. 29.(수) 12:00 배포 2025. 10. 29.(수) 09:00

통계로 보는 동남권 청년의 삶 2025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전현주 (051-850-3362)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최근 청년층의 고용,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의 삶의 질과 지역 정착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동남권 청년 삶의 전반적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대상

- 청년 대상 연령은 만 19~39세*로 정의하였으나, 인용한 통계에 따라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음. 또한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하고, 작성 연도와 주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기 바람

* 청년기본법: 만 19~34세, 부산 청년기본조례: 만 18~39세, 울산·경남 청년기본조례: 만 19~39세

□ 분석내용

- (지표 구성) 동남권 청년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7개 영역 31개 지표로 구성
- (활용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
- (작성기간) 2015~2024년(최근 10년간, 자료에 따라 상이)
- (작성범위) 전국,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포함)

□ 이용시 주의사항

- 상대표준오차(RSE)가 $25\% \leq RSE < 50\%$ 이면 「*」, $50\% \leq RSE$ 이면 「**」 표시를 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_」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 이 보도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소식 > 보도자료 > 지역통계

일 러 두 기

□ 지표체계 및 활용자료원

영역	지표명	활용자료	청년연령	분석기간
Ⅰ. 인구학적 배경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만 19~39세	2015~2024
	청년 인구 순이동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만 19~39세	2015~2024
	혼인 상태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만 19~39세	2015, 2024
	부모 동거 청년	국가데이터처 「청년통계등록부」	만 19~39세	2015~2023
Ⅱ. 경제적 여건	청년 연간 소득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만 19~34세	2021, 2023
	청년 부채			
	청년 자산			
	소비생활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5~2023
Ⅲ. 일자리	고용률 및 실업률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만 19~39세	2015~202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2015, 2024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쉬었음' 청년			2015~2024
	일자리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5~2023
	번아웃 경험률	국무조정실 「청년삶실태조사」	만 19~34세	2022, 2024
Ⅳ.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망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5, 2023
	외로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만 19~39세	2015~2024
	대인관계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5~2023
	여가 시간 및 여가 비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만 19~39세	2016~2023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정도			2016, 2023
	여가 활동 만족도			2016~2023
Ⅴ. 주거 · 안전	거처 종류	국가데이터처 「청년통계등록부」	만 19~39세	2015, 2023
	청년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40세	2017~2023
	1인당 주거 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에 대한 불안 정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6~2024 2020~2024
Ⅵ. 의식 · 가치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만 19~39세	2021~2024
	공정성 인식			
	계층 이동성			
	차별에 대한 인식			
Ⅶ. 주관적 웰빙	대인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만 19~39세	2024
	삶의 만족도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9~39세	2015~2024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1

I. 인구학적 배경

1.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4
2. 청년 인구 순이동 5
3. 혼인 상태 6
4. 부모 동거 청년 7

II. 경제적 여건

1. 청년 연간 소득 8
2. 청년 부채 9
3. 청년 자산 10
4. 소비생활 만족도 11

III. 일자리

1. 고용률 및 실업률 12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13
3. 비경제활동인구 14
 - 3-1.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4
 - 3-2.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 ‘쉬었음’ 청년 5
4. 일자리 만족도 16
5. 번아웃 경험률 17

IV. 사회적 관계

1. 사회적 관계망 18
2. 외로움 19
3. 대인관계 만족도 20
4. 여가 시간 및 여가 비용 21
5. 일(학업)-여가생활 균형 정도 22
6. 여가 활동 만족도 23

V. 주거 · 안전

1. 거주 종류 24
2. 청년 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5
3. 1인당 주거 면적 26
4. 주거환경 만족도 27
5. 범죄에 대한 불안 정도 28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29

VI. 의식 · 가치관

1. 공정성 인식 30
2. 계층 이동성 31
3. 차별에 대한 인식 32
4. 대인 신뢰도 33

VII. 주관적 웰빙

1. 삶의 만족도 34

부산 청년의 삶(요약)

I. 인구학적 배경

-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24년 부산 청년(만 19~39세) 인구는 75만 7천 명이고, 부산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은 23.7%로, '15년 대비 4.7%p 감소
- (부모 동거 청년) '23년 부산 청년 중 부모 동거 비율은 42.3%로, '15년 대비 8.0%p 감소

II. 경제적 여건

- (연간 소득) '23년 부산 청년의 평균 소득은 2,324만 원으로, '21년 대비 257만 원 증가
- (부채) '23년 말 기준 부산 청년의 평균 부채는 1,235만 원으로, '21년 대비 388만 원 증가

III. 일자리

- (고용률 및 실업률) '24년 부산 청년의 고용률은 67.3%로, '15년 대비 6.3%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5.0%로 '15년 대비 3.0%p 하락
- (활동상태 '쉬었음' 청년) '24년 부산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비율은 19.6%로, '15년 대비 6.7%p 상승
- (번아웃 경험률) '24년 부산 청년 중 번아웃 경험 비율은 39.2%로, '22년 대비 15.0%p 증가

IV. 사회적 관계

- (대인관계 만족도) '23년 부산 청년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61.2%로, '17년 대비 6.9%p 증가
- (여가 활동 만족도) '23년 부산 청년 중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77.1%로, '16년 대비 19.2%p 증가

V. 주거·안전

- (거처종류) '23년 부산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1.6%로, '15년 대비 3.9%p 증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24년 부산 청년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4.2%로, '20년 대비 6.3%p 증가

VI. 의식·가치관

- (공정성 인식) '24년 부산 청년 중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5%로, '21년 대비 7.3%p 감소
- (대인 신뢰도) '24년 부산 청년의 대인 신뢰도는 66.1%로, '15년 대비 4.0%p 감소

VII.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24년 부산 청년 중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1.3%로, '16년 대비 4.1%p 감소

울산 청년의 삶(요약)

I. 인구학적 배경

-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24년 울산 청년(만 19~39세) 인구는 25만 2천 명이고, 울산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은 23.5%로, '15년 대비 6.2%p 감소
- (부모 동거 청년) '23년 울산 청년 중 부모 동거 비율은 42.2%로, '15년 대비 1.0%p 증가

II. 경제적 여건

- (연간 소득) '23년 울산 청년의 평균 소득은 2,693만 원으로, '21년 대비 898만 원 증가
- (부채) '23년 말 기준 울산 청년의 평균 부채는 2,660만 원으로, '21년 대비 2,066만 원 증가

III. 일자리

- (고용률 및 실업률) '24년 울산 청년의 고용률은 64.1%로, '15년 대비 1.9%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6.8%로 '15년 대비 0.9%p 상승
- (활동상태 '쉬었음' 청년) '24년 울산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비율은 21.2%로, '15년 대비 11.4%p 상승
- (번아웃 경험률) '24년 울산 청년 중 번아웃 경험 비율은 42.0%로, '22년 대비 14.7%p 증가

IV. 사회적 관계

- (대인관계 만족도) '23년 울산 청년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7.2%로, '17년 대비 6.1%p 증가
- (여가 활동 만족도) '23년 울산 청년 중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84.0%로, '16년 대비 14.4%p 증가

V. 주거·안전

- (거처종류) '23년 울산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8.0%로, '15년 대비 4.6%p 증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24년 울산 청년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8%로, '20년 대비 7.6%p 증가

VI. 의식·가치관

- (공정성 인식) '24년 울산 청년 중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3%로, '21년 대비 13.3%p 감소
- (대인 신뢰도) '24년 울산 청년의 대인 신뢰도는 48.3%로, '15년 대비 30.5%p 감소

VII.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24년 울산 청년 중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2.5%로, '16년 대비 5.5%p 감소

경남 청년의 삶(요약)

I. 인구학적 배경

- (청년 인구 규모 및 비중) '24년 경남 청년(만 19~39세) 인구는 64만 6천 명이고, 경남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은 20.6%로, '15년 대비 6.1%p 감소
- (부모 동거 청년) '23년 경남 청년 중 부모 동거 비율은 40.4%로, '15년 대비 0.3%p 증가

II. 경제적 여건

- (연간 소득) '23년 경남 청년의 평균 소득은 2,578만 원으로, '21년 대비 573만 원 증가
- (부채) '23년 말 기준 경남 청년의 평균 부채는 1,806만 원으로, '21년 대비 1,156만 원 증가

III. 일자리

- (고용률 및 실업률) '24년 경남 청년의 고용률은 66.2%로, '15년 대비 3.1%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4.3%로 '15년과 동일
- (활동상태 '쉬었음' 청년) '24년 경남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비율은 22.0%로, '15년 대비 10.3%p 상승
- (번아웃 경험률) '24년 경남 청년 중 번아웃 경험 비율은 41.0%로, '22년 대비 5.3%p 증가

IV. 사회적 관계

- (대인관계 만족도) '23년 경남 청년의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8.5%로, '17년 대비 1.7%p 감소
- (여가 활동 만족도) '23년 경남 청년 중 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59.9%로, '16년과 동일

V. 주거·안전

- (거처종류) '23년 경남 청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64.6%로, '15년 대비 6.7%p 증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정도) '24년 경남 청년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5%로, '20년 대비 0.7%p 감소

VI. 의식·가치관

- (공정성 인식) '24년 경남 청년 중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9.7%로, '21년 대비 8.7%p 감소
- (대인 신뢰도) '24년 경남 청년의 대인 신뢰도는 50.2%로, '15년 대비 17.4%p 감소

VII.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24년 경남 청년 중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6.2%로, '16년 대비 1.7%p 증가



보도시점 2025. 11. 19.(수) 12:00 배포 2025. 11. 19.(수) 09:00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현황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신연주 (051-850-3351)
		담당자	주무관	김규한 (051-850-3353)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동남권 여성 고용률은 전국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24년 하반기 기준 여성 고용률: 전국(55.6%), 부산(50.5%), 울산(49.1%), 경남(54.8%)

□ 분석목적

- 전국 대비 동남권 각 시도별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취업자수, 비경제 활동인구 등의 현황 비교 및 지역별 여성 고용 현황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각종 연구 등의 기초자료 마련

□ 분석대상 및 이용자료

- 분석대상: 15세 이상 여성인구(연령층 5세 단위 구분)
-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시도 단위 및 전국
- 이용자료

부문	출처	자료명	기준시점*
I.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변화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2015년, 2024년
II. 취업자 특성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2015년, 2024년
III. 경력단절 여성 현황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2015년, 2024년

*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는 4월 기준, 하반기는 10월 기준 마이크로데이터

□ 자료 이용시 유의 사항

- 이 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 원시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최신 산업분류와 직업분류가 소급적용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수치 비교시 유의
* 2024년 하반기(11차 산업분류, 8차 직업분류), 그 외(10차 산업분류, 7차 직업분류)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 및 증감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별 통계 산출 기준(기준시점, 가중치 등) 차이로 통계자료별 유사 항목 간 통계값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 통계표의 단위 미만의 값은 '상대오차수준(오차가 전체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값 비교보다는 추세 참고 목적으로 활용
* 지역별고용조사 제공용 마이크로데이터는 상대오차수준 계산이 불가함
-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아래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값 없음, 「0.0」 또는 「0」: 단위 미만의 값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1~3

□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현황

I.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변화와 현황

1. 동남권 여성 고용률 현황	4
2. 연령대별 여성 인구 변화	5
3.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변화	6
4.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변화	7
5. 성별 고용률 차이 변화	9
6.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10

II. 취업자 특성

1. 산업별 취업자	11	
1-1. 산업별 여성 취업자	11	
1-2. 주요산업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12	
가. 제조업	나. 도매 및 소매업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마. 교육 서비스업	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직업별 여성 취업자	18	
2-1. 직업별 여성 취업자	18	
2-2. 주요직군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19	
가. 전문가	나. 사무	다. 서비스
라. 판매	마. 단순노무	
3.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및 소득수준	24	
3-1.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	24	
3-2. 여성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별 소득수준	25	

Ⅲ. 경력단절 여성 현황

1. 경력단절여성 규모	26
2.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	27
3.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28
4. 경력단절 기간	29

〈부산〉 여성 경제활동 변화 및 현황 [요약]

□ 여성 경제활동 현황('24년^{하반기} 기준)

- (15세 이상 여성 인구) '24년 1,520천명으로 '15년(1,552천명) 대비 33천명(-21%) 감소
- (취업자수) '24년 768천명으로 '15년(742천명) 대비 26천명(3.5%) 증가
- (고용률) '24년 50.5%로 '15년(47.8%) 대비 2.7%p 상승

□ 주요 연령층 경제활동 변화('15년, '24년)

- (25~29세) 부산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24년 기준 77.4%를 기록
 - (산업별) '숙박·음식점업' 5.1천명 증가, '금융·보험업' 2.3천명 감소
 - (직업별) '서비스' 5.6천명, '전문가' 2.8천명 증가, '판매' 0.9천명 감소
- (30~34세) '15년 대비 고용률이 11.0%p 상승하여 가장 증가폭이 큼
 - (산업별) '보건·복지' 6.2천명 증가, '교육' 4.7천명, '도소매업' 2.3천명 감소
 - (직업별) '기능원' 1.4천명 증가, '단순노무' 1.8천명, '판매' 1.2천명 감소

□ 경력단절여성 현황('24년^{상반기} 기준)

- 15~54세 기혼여성은 440.1천명이고 비취업자는 153.5천명임
 -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71.1천명이고 '15년(117.0천명) 대비 45.9천명 감소

〈울산〉 여성 경제활동 변화 및 현황 [요약]

□ 여성 경제활동 현황('24년^{하반기} 기준)

- (15세 이상 여성 인구) '24년 464천명으로 '15년(475천명) 대비 11천명(-23%) 감소
- (취업자수) '24년 228천명으로 '15년(204천명) 대비 24천명(11.7%) 증가
- (고용률) '24년 49.1%로 '15년(43.0%) 대비 6.2%p 상승

□ 주요 연령층 경제활동 변화('15년, '24년)

- (50~54세) 울산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24년 기준 65.9%를 기록
 - (산업별) '공공행정 23천명 증가, '보건복지 20천명 증가, '숙박음식점업 27천명 감소
 - (직업별) '전문가 3.5천명, '사무 3.3천명, '기능원 1.4천명 증가
- (55~59세) '15년 대비 고용률이 16.9%p 상승하여 가장 증가폭이 큼
 - (산업별) '보건복지 5.6천명, '교육 2.7천명 증가, '숙박음식점업 0.7천명 감소
 - (직업별) '전문가 4.5천명, '사무 2.4천명, '판매 2.3천명 증가

□ 경력단절여성 현황('24년^{상반기} 기준)

- 15~54세 기혼여성은 180.3천명이고 비취업자는 79.7천명임
 -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34.2천명으로 '15년(77.7천명) 대비 43.5천명 감소

〈경남〉 여성 경제활동 변화 및 현황 [요약]

□ 여성 경제활동 현황('24년^{하반기} 기준)

- (15세 이상 여성 인구) '24년 1,408천명으로 '15년(1,403천명) 대비 5천명(0.4%) 증가
- (취업자수) '24년 771천명으로 '15년(715천명) 대비 56천명(7.8%) 증가
- (고용률) '24년 54.8%로 '15년(51.0%) 대비 3.8%p 상승

□ 주요 연령층 경제활동 변화('15년, '24년)

- (50~54세) 경남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24년 기준 71.6%를 기록
 - (산업별) '보건복지 7.6천명 증가, '도소매업 7.1천명, '숙박음식점업 6.7천명 감소
 - (직업별) '사무' 8.5천명, '전문가' 5.4천명 증가, '판매' 6.0천명 감소
- (35~39세) '15년 대비 고용률이 21.0%p 상승하여 가장 증가폭이 큼
 - (산업별) '제조업' 3.7천명, '공공행정' 1.8천명 증가, '도소매업' 2.5천명 감소
 - (직업별) '사무' 4.7천명 증가, '서비스', '판매' 각 2.4천명 감소

□ 경력단절여성 현황('24년^{상반기} 기준)

- 15~54세 기혼여성은 494.6천명이고 비취업자는 166.8천명임
 -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80.5천명으로 '15년(133.6천명) 대비 53.0천명 감소



보도시점 2025. 11. 25.(화) 12:00 배포 2025. 11. 25.(화) 09:00

동남권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신명옥 (051-850-3363)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확대,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중요성 인식 등에 따라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이에 남녀의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 및 일-생활 균형에 관한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각 시도별로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대상

- (작성범위) 전국, 수도권,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활용 자료 및 분석 기간

부문	자료명	분석 대상	분석 기간	자료 출처
I. 일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만 15세 이상	2014, 2024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만 10세 이상	2014, 2024	
	사회조사	만 13세 이상	2013, 2017, 2023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편)	전 국민	2015, 2023	
II. 가정생활	생활시간조사	만 10세 이상	2014, 2024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3세 이상	2013, 2014, 2023, 2024	
III. 여가생활	생활시간조사	만 10세 이상	2014, 2019, 2024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조사	만 13세 이상	2013,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만 15세 이상	2016, 2023	
IV. 일-생활 균형	생활시간조사	만 10세 이상	2014, 2024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만 13세 이상		

일 러 두 기

□ 용어 해설

○ 시간(량) 및 비율

구분	설명	비고
전체 평균시간	전체 대상자의 평균 시간 *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특정 한 행동에 사용된 시간량의 합 우리나라 국민 10세 이상
행위자 비율(%)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 우리나라 국민 10세 이상 $\times 100$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들의 평균 시간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들의 시간량의 합 특정 행동을 10분 이상 한 사람

○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24 기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의무시간	일	법인·정부기관·비영리단체 등의 일, 가계비법인기업의 일, 무급가족 일, 일 관련 활동, 구직 및 창업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일
	이동	일 관련 이동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여가시간	교제 및 참여활동	교제활동, 참여활동, 종교활동, 의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행동, 기타 여가활동

□ 이용 시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공표된 통계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기에 항목의 상대표준오차(RSE)가 $25\% \leq RSE < 50\%$ 인 경우 「*」, $50\% \leq RSE$ 인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 표시는 공표 단위 미만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보도자료는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d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소식 > 보도자료 > 지역통계

목 차

□ 요약	1
□ 동남권의 ‘일-생활 균형(WLB)’ 은 어떨까	
I. 일	
1. 경제활동상태	7
1-1. 고용률	7
1-2. 실업률	8
2. 기업체 규모별 등록취업자	9
3. 등록취업자의 근로·사업소득	10
4. 평일 일한 시간(구직활동 포함)	11
5. 평일 일 관련 출·퇴근 시간	12
6. 고용의 안정성	13
7. 근로여건 만족도	14
7-1. 근로시간 만족도	14
7-2.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15
II. 가정생활	
1. 평일 가정관리 시간	16
2. 평일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	18
3. 가사분담 만족도	20
4.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21
5.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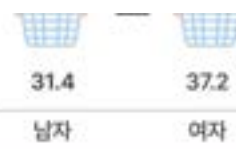
목 차

Ⅲ. 여가생활

1. 평일 교제 및 참여활동 시간	23
2. 평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24
3. 월평균 여가 비용	25
4. 여가 시간 만족도	26
5. 여가생활 만족도	27
5-1.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28
6. 문화·여가 생활 여건	29

Ⅳ. 일-생활 균형

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30
2. 시간 압박 느끼는 정도	31
2-1. 줄이고 싶은 활동	32
3. 스트레스 정도	33
3-1. 직장생활 스트레스	33
3-2. 가정생활 스트레스	34



부산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요약)

I. 일

- ☐ (고용률) '24년 부산 남자의 고용률은 66.5%, 여자는 49.7%로 남자가 여자보다 16.8%p 높음
- ☐ (일한 시간) '24년 부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6시간 55분, 여자는 5시간 56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9분 더 많음
-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23년 부산에서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남자 35.8%, 여자는 36.7%임

II. 가정생활

- ☐ (가정관리 시간) '24년 부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1시간 15분, 여자는 2시간 33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18분 더 많음
- ☐ (가사분담 견해) '24년 부산에서 가사를 '아내가 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차이 10.3%p)가,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더 높음(차이 10.6%p)

III. 여가생활

- ☐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24년 부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4시간 8분, 여자는 3시간 32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6분 더 많음
- ☐ (월평균 여가 비용) '23년 부산 남자의 월평균 여가 비용은 28만 원, 여자는 21만 원으로 7만 원 차이 남
- ☐ (여가생활 만족도) '23년 부산은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자(33.2%)가 남자(32.7%)보다 0.5%p 높음

IV. 일-생활 균형

-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23년 부산은 '일을 우선시한다' 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9.1%p 높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 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7.7%p 높음
- ☐ (스트레스) '24년 부산은 직장생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0.8%p 높고, 가정생활은 여자가 남자보다 5.8%p 높음



울산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요약)

I. 일

- ☐ (고용률) '24년 울산 남자의 고용률은 70.2%, 여자는 48.6%로 남자가 여자보다 21.6%p 높음
- ☐ (일한 시간) '24년 울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7시간 20분, 여자는 5시간 52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시간 28분 더 많음
-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23년 울산에서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남자 28.6%, 여자는 32.1%임

II.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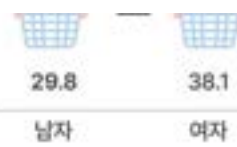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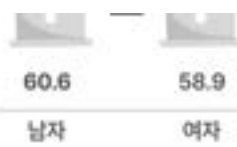
- ☐ (가정관리 시간) '24년 울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1시간 13분, 여자는 2시간 53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40분 더 많음
- ☐ (가사분담 견해) '24년 울산에서 가사를 '아내가 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차이 11.4%p)가,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높음(차이 11.2%p)

III. 여가생활

- ☐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24년 울산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4시간 1분, 여자는 3시간 31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0분 더 많음
- ☐ (월평균 여가 비용) '23년 울산 남자의 월평균 여가 비용은 29만 원, 여자는 18만 원으로 11만 원 차이 남
- ☐ (여가생활 만족도) '23년 울산은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자(33.2%)가 여자(28.8%)보다 4.4%p 높음

IV. 일-생활 균형

-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23년 울산은 '일을 우선시한다' 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13.5%p 높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 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12.3%p 높음
- ☐ (스트레스) '24년 울산은 직장생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1.2%p 높고, 가정생활은 여자가 남자보다 13.9%p 높음



경남의 '일-생활 균형(WLB)'은 어떨까(요약)

I. 일

- ☐ (고용률) '24년 경남 남자의 고용률은 70.7%, 여자는 54.7%로 남자가 여자보다 16.0%p 높음
- ☐ (일한 시간) '24년 경남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7시간 9분, 여자는 5시간 28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시간 41분 더 많음
-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만족도) '23년 경남에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남자 35.9%, 여자는 35.0%임

II. 가정생활

- ☐ (가정관리 시간) '24년 경남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1시간 5분, 여자는 2시간 41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36분 더 많음
- ☐ (가사분담 견해) '24년 경남에서 가사를 '아내가 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차이 10.0%p)가,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높음(차이 9.6%p)

III. 여가생활

- ☐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24년 경남 남자의 평일 행위자 평균 시간은 4시간 11분, 여자는 3시간 57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4분 더 많음
- ☐ (월평균 여가 비용) '23년 경남 남자의 월평균 여가 비용은 28만 원, 여자는 18만 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만 원 차이 남
- ☐ (여가생활 만족도) '23년 경남은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자(35.5%)가 여자(32.1%)보다 3.4%p 높음

IV. 일-생활 균형

-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23년 경남은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13.2%p 높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10.7%p 높음
- ☐ (스트레스) '24년 경남은 직장생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1.7%p 높고, 가정생활은 여자가 남자보다 8.4%p 높음



보도시점 2025. 12. 16.(화) 12:00 배포 2025. 12. 16.(화) 09:00

데이터로 본 동남권 이커머스 시장

- 2014년 대비 2023년 변화를 중심으로 -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 은 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신 연 주 (051-850-3351)
		담당자	주무관 박 준 환 (051-850-3355)

일 러 두 기

□ 추진 배경

- 동남권 청년 유출과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아이디어 기반 산업 ‘이커머스’*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911)과 전자상거래 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47912)을 합쳐 이커머스로 지칭

□ 분석 내용

- 2014년 대비 동남권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 추이와 지역¹⁾ 간 격차를 진단하고, 부울경 내 연령대별²⁾ 분석을 통해 세대별 특징 도출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모든 시·도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 분석 대상 산업

산업명	내용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1)	-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 예시: 소셜 커머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 유의사항

- 분석 대상은 ‘개인사업체’에 한정함
- 구간별 매출액 분석의 경우 국세청 세금 기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
 -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 시계열적 연속성을 위해 산업분류는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본문 통계표의 ‘상대수준’은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각 분석 단위의 값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표
- ‘생존율’ 분석 시, 대표자 연령은 2023년 시점을 기준으로 함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보도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ardn>)에 게시함

목 차

□ 요약	1
□ 본문	
I. 이커머스 산업 동향	4
II. 이커머스 사업체 일반 현황	
1. 전체 사업체 수	5
2. 대표자 성별 사업체 비중	6
3. 창업 사업체 수	7
4. 폐업률	8
5. 생존율	9
6. 평균 매출액	10
6-1. 권역별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11
6-2. 동남권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12
III. 시도별 사업체 현황	
1. 시도별 사업체 수 추이	13
2. 최근 5년('19-'23년) 시도별 평균 매출액 추이	14
□ 통계표	15
□ 부록	20

부산 이커머스 시장[요약]

□ '23년 기준 부산 전체 사업체 수는 49,041개로 '14년 대비 403.5% 증가

○ (전체 사업체 수) '23년 사업체 수는 49,041개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음

- 대표자 연령대는 '30대'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별 구성은 여성이 57.8%로 남성 42.2%보다 높게 나타남

○ (창업) '23년 창업 사업체 수는 11,301개로 '14년 대비 586.6% 증가

- '40대'(1,086.1%)와 '50대 이상'(985.0%)이 '14년 대비 대폭 증가함

○ (폐업률) '23년 폐업률은 29.3%로 '14년 대비 13.5%p 감소

- '40대'가 24.9%로 가장 낮고 '29세 이하'가 36.2%로 가장 높음

○ (생존율)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29.4%로 전국 평균(34.1%) 대비 낮음

- 5년 생존율 기준 '40대'가 43.8%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가 17.6%로 가장 낮음

※ n년 생존율: (2023-n)년 창업사업체 중 2023년 말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 / (2023-n)년 창업사업체 수 x 100

○ (매출액) '23년 평균 매출액은 60.5백만원으로 '14년 대비 3.0백만원 감소

-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규모는 '1억 400만원 이상'이 1,759개로 '14년 대비 347.6% 증가

2014년 대비 2023년 부산 이커머스 시장

(단위: 개, %, %p, 백만원)

	전체 사업체 수	창업 사업체 수	폐업률	평균 매출액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수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2014년	9,740	1,646	42.8	63.5	819	6,553	393
2023년	49,041	11,301	29.3	60.5	2,995	28,826	1,759
증감·증감률	403.5	586.6	-13.5	-3.0	265.7	339.9	347.6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울산 이커머스 시장[요약]

□ '23년 기준 울산 전체 사업체 수는 11,814개로 '14년 대비 724.4% 증가

○ (전체 사업체 수) '23년 사업체 수는 11,814개 '14년 대비 724.4% 증가

- 대표자 연령대는 '30대'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별 구성은 여성이 57.2%로 남성 42.8%보다 높게 나타남

○ (창업) '23년 창업 사업체 수는 3,116개로 '14년 대비 1,001.1% 증가

- '40대'(1,930.6%)와 '50대 이상'(2,007.7%)이 '14년 대비 대폭 증가함

○ (폐업률) '23년 폐업률은 34.4%로 '14년 대비 18.4%p 감소

- '40대'가 28.8%로 가장 낮고 '29세 이하'가 43.8%로 가장 높음

○ (생존율)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17.6%로 전국 평균(34.1%) 대비 낮음

- 5년 생존율 기준 '40대'가 25.2%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가 6.0%로 가장 낮음

※ n년 생존율: (2023-n)년 창업사업체 중 2023년 말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 / (2023-n)년 창업사업체 수 x 100

○ (매출액) '23년 평균 매출액은 29.8백만원으로 '14년 대비 0.1백만원 감소

-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규모는 '1억 400만원 이상'이 298개로 '14년 대비 893.3% 증가

2014년 대비 2023년 울산 이커머스 시장

(단위: 개, %, %p, 백만원)

	전체 사업체 수	창업 사업체 수	폐업률	평균 매출액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수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2014년	1,433	283	52.8	29.9	49	846	30
2023년	11,814	3,116	34.4	29.8	402	7,168	298
증감·증감률	724.4	1,001.1	-18.4	-0.1	720.4	747.3	893.3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경남 이커머스 시장[요약]

□ '23년 기준 경남 전체 사업체 수는 32,181개로 '14년 대비 624.1% 증가

○ (전체 사업체 수) '23년 사업체 수는 32,181개로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음

- 대표자 연령대는 '30대'가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별 구성은 여성이 57.6%로 남성 42.4%보다 높게 나타남

○ (창업) '23년 창업 사업체 수는 8,065개로 '14년 대비 834.5% 증가

- '40대'(1,415.0%)와 '50대 이상'(1,339.4%)이 '14년 대비 대폭 증가함

○ (폐업률) '23년 폐업률은 30.9%로 '14년 대비 14.5%p 감소

- '40대'가 27.1%로 가장 낮고 '29세 이하'가 39.6% 가장 높음

○ (생존율)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26.9%로 전국 평균(34.1%) 대비 낮음

- 5년 생존율 기준 '40대'가 35.2%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가 14.5%로 가장 낮음

※ n년 생존율: (2023-n)년 창업사업체 중 2023년 말까지 생존한 사업체 수 / (2023-n)년 창업사업체 수 x 100

○ (매출액) '23년 평균 매출액은 44.2백만원으로 '14년 대비 16.8백만원 증가

-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규모는 '1억 400만원 이상'이 1,040개로 '14년 대비 738.7% 증가

2014년 대비 2023년 경남 이커머스 시장

(단위: 개, %, %p, 백만원)

	전체 사업체 수	창업 사업체 수	폐업률	평균 매출액	매출액 구간별 사업체 수		
					4,800만 원 미만	4,800만원 ~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2014년	4,444	863	45.4	27.4	200	3,365	124
2023년	32,181	8,065	30.9	44.2	1,462	18,581	1,040
증감·증감률	624.1	834.5	-14.5	16.8	631.0	452.2	7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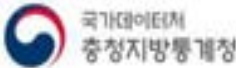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총 청 청

- 35. 최근 10년간 충남지역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 329
- 36.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 338



	보도자료	
---	------	--

보도시점 2025.12.11.(목) 12:00 배포 2025.12.11.(목) 10:00

최근 10년간 충남지역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

담당 부서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백순미 (042-366-8150)
		담당자	팀 원	신동민 (042-366-8164)
			청년인턴	손현동 (042-366-8165)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최근 10년간 충남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작성하였음

※ 농촌과 도시 구분은 읍면지역을 농촌으로 동지역을 도시로 간주하며, 농업인은 농림어업총조사(농림어업조사)의 정의 기준을 준용함

□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작성 기준시점 및 대상 범위 차이 등의 영향으로 관련 유사 통계와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인구총조사」,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업면적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산물생산조사」, 「농가경제조사」, 「사회조사」,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고용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도시계획변경」 등

- 생애주기별 연령층은 청년층(20세~39세), 중장년층(40세~64세), 고령층(6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수록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 내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감(률)은 원자료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천 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와는 다를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 「0.0」 표시는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보도자료 제공

- 충청지방통계청(<https://mods.go.kr/arcc>)→새소식→보도자료에 게시

목 차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의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요약)	i
--	---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의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	
--------------------------------------	--

I. 충남지역 농촌 환경 1

1. 농촌인구	1
2. 농업인구	2
3. 연령층별 농업인구	3
4. 귀농인구	4
5. 외국인 근로자	5

II. 농업인의 소득 및 자산 7

1. 경작가능면적	7
2. 논 경지이용	8
3. 밭 경지이용	9
4. 영농형태	10
5. 논벼 10a당 소득	11
6. 논벼, 마늘, 양파, 콩,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12

7. 농가소득	17
8. 농가자산	18
9. 농업의존도 및 농업소득률	19
III. 충남지역 건강 및 의료	20
1. 의료시설 수	20
2. 진료 방문 횟수 및 진료비	22
3. 사망자 수 및 사망원인	23
4. 의료시설 접근성	25
IV. 농업인의 여가 및 사회적 관계망	26
1. 농업인 여가생활	26
2. 체육시설	27
3. 사회적 관계망	28
□ 통계표	29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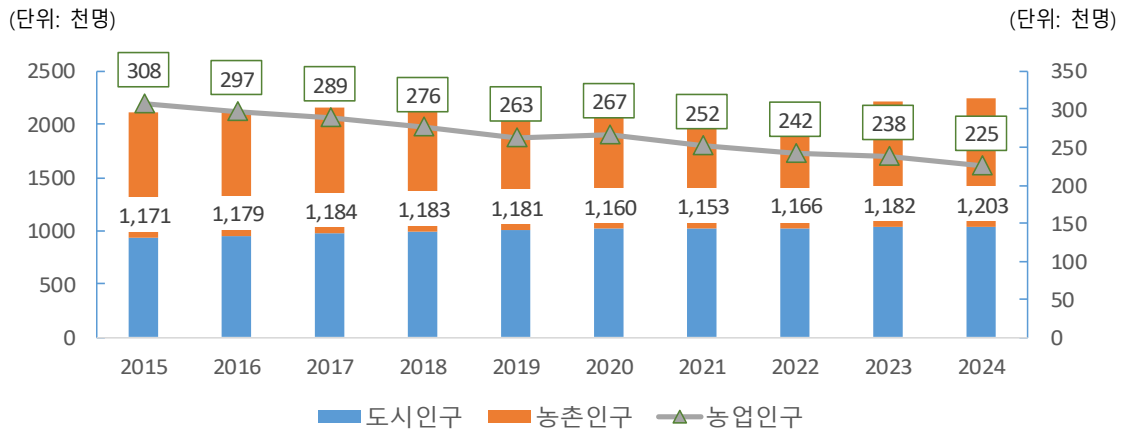
© 2025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최근 10년간 충남지역 농촌, 농업인의 삶의 변화요약

농촌 및 농업인구

2024년 기준 충남 지역 농촌 인구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1,203천 명으로 총인구 대비 53.8% 차지, 농업인구는 2015년 대비 27.0% 감소한 225천 명

- 2024년 기준, 충남지역 농촌 인구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1,203천 명으로 총인구(2,238천 명) 대비 53.8%, 농업인구는 10.1% 차지
- 2024년 충남 지역 농업인구는 2015년 대비 27.0% 감소한 225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구 대비 11.2% 차지, 9개 도 중 4위임



연령층별 농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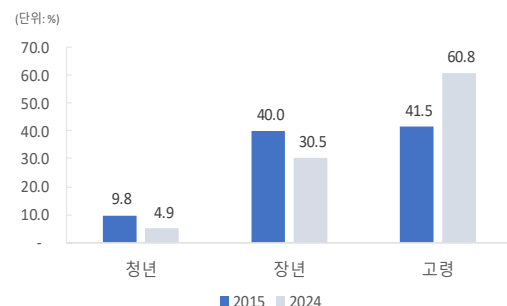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충남의 전체 농업인구 중 청년층 4.9%, 장년층 30.5%, 고령층은 60.8%로 2015년 대비 각각 4.9%p, 9.5%p 감소하고 고령층은 19.3%p 증가함

- '24년충남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10.1%로 '15년 대비 4.5%p 감소
- 청년층 4.9%, 장년층 30.5%, 고령층은 60.8% 차지함

(단위: %)

	농업인구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2015	14.6	9.8	40.0	41.5
2024	10.1	4.9	30.5	60.8

<연령층별 농업인구 변화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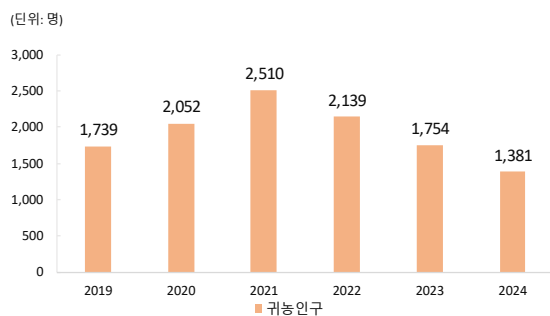


농촌 유입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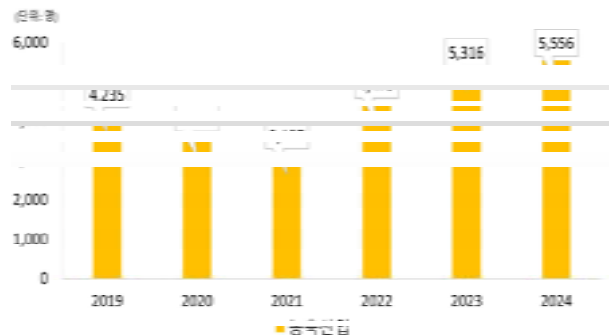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충남 귀농 인구는 2015년 대비 37.4% 감소한 1,381명이며
충남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4,235명 대비 31.2% 증가한 5,556명**

- (귀농인구) 2024년 충남 지역 귀농인구는 2015년 대비 37.4% 감소한 1,381명으로 2021년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외국인 근로자) 2024년 충남 지역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대비 31.2% 증가한 5,5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귀농인구 현황>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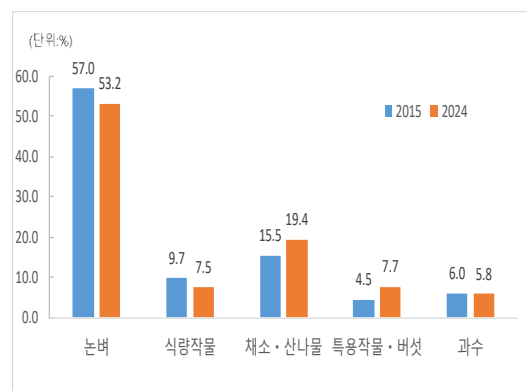


영농형태

2024년 충남 주요 영농형태는 논벼 53.2%, 채소·산나물 19.4%, 식량작물 7.5% 순으로 논벼가 절반 이상을 차지, 2015년 대비 3.8%p 감소

- 2024년 충남 영농형태는 주로 논벼 53.2%, 채소·산나물 19.4% 순으로 높고, 2015년 대비 논벼, 식량작물은 각각 3.8%p, 2.2%p 감소한 반면 채소·산나물과 특용작물·버섯은 각각 3.9%p, 3.2%p 증가

<주요 영농형태 변화: 201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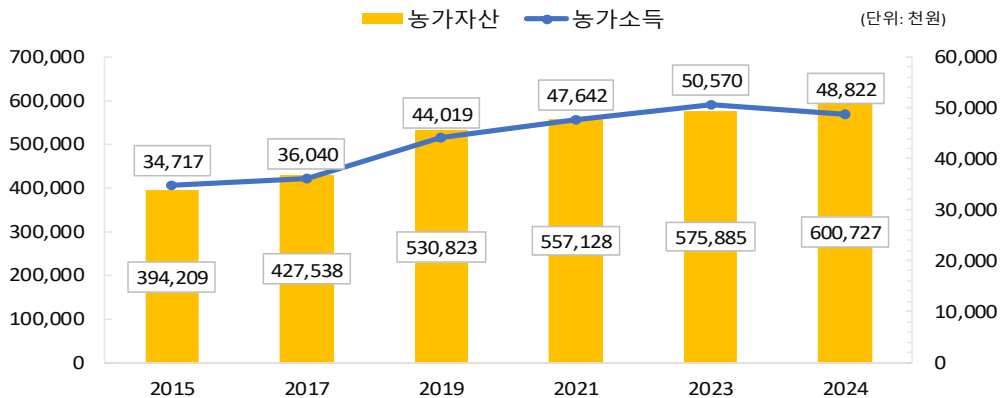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2015	57.0	9.7	15.5	4.5	6.0
2024	53.2	7.5	19.4	7.7	5.8

- 충남 주요 영농형태인 논벼의 10a 당 소득은 611천원으로 2015년 556천원 대비 9.8% 증가함

농업인의 소득 및 자산

2024년 기준 충남 지역 농가소득은 48,822천 원으로 2015년 대비 40.6% 증가, 농가 자산은 600,727천 원으로 2015년 대비 5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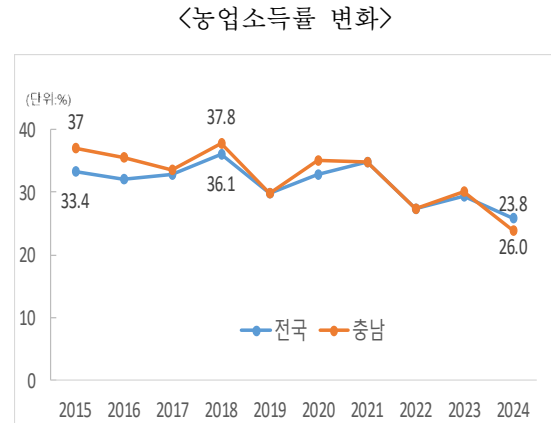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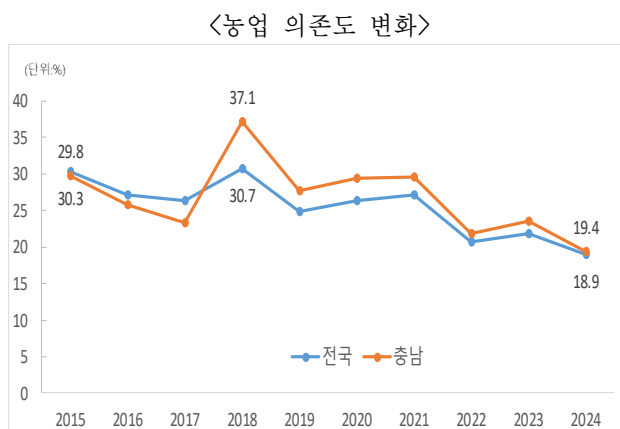
- 2024년 충남 지역 농가소득은 48,822천 원으로 2015년 대비 40.6% 증가, 농가 자산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한 607,727천 원임



농업의존도와 농업소득률

2024년 기준 충남 농업의존도는 19.4%로 2015년 대비 10.4%p 감소, 농업소득률은 23.8%로 2015년 대비 13.2%p 감소

- 2024년 충남 지역 농업 의존도는 19.4%로 전국 보다 0.5%p 높고, 2015년 대비 10.4p 감소, 농업소득률은 23.8%로 전국 대비 2.2%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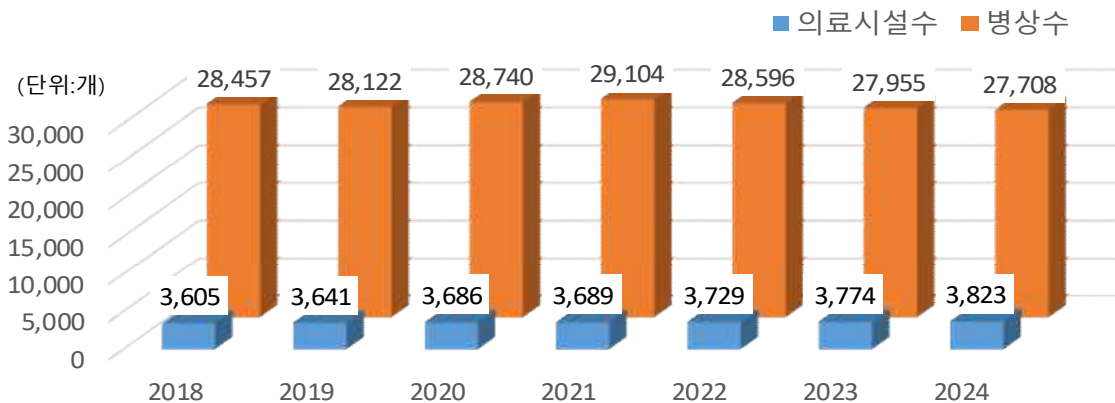


- 1) 농업의존도: 농업소득/농가소득*100
- 2) 농업소득률: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건강과 의료시설

2024년 기준 충남 의료시설은 2018년 대비 6% 증가한 반면 병상수는 2.6% 감소, 2023년 충남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167천 원으로 2018년 대비 3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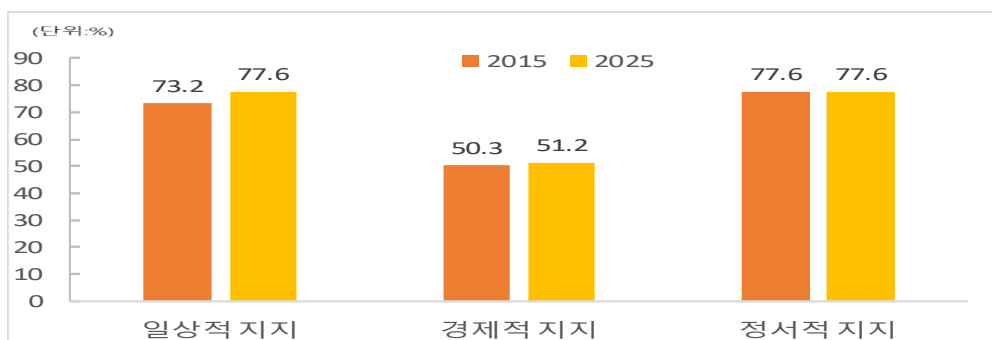
- 2024년 충남 의료시설은 3,823개로 2018년 대비 6% 증가한 반면, 병상수는 2.6% 감소
- 2023년 충남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5년 대비 73.9%, 2018년 대비 34.7% 증가한 2,167천 원임



농촌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

2023년 기준 충남 농업인의 여가생활은 주로 동영상 시청 40.2%, 휴식이 35.3%, 취미·자기 개발 10.7% 순이며, 정서적 지지를 주는 사회적관계망을 가진 이가 77.6 %임

- 2023년 기준 충남 농업인의 여가생활은 주로 동영상 시청 40.2%, 휴식이 35.3%, 취미·자기개발이 10.7% 순임
- 2025년 기준 충남 지역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일상적지지 77.6%, 경제적 지지 51.2%, 정서적 지지 77.6%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보도시점 2025. 12. 23.(화) 12:00 배포 2025. 12. 23.(화) 10:00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

담당 부서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안은진 (042-366-8140)
		담당자	주무관	강지형 (042-366-8121)
		담당자	주무관	지예린 (042-366-8123)



일 러 두 기

- ☐ 본 통계서비스는 충청권 광역행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시도/권역별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보고, 일부 지표는 충북과 충남을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세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구분	시도	권역	세부 지역
충청권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북부권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중부권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남부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남	북부권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서해안권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금강권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 ☐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정부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 ☐ 지표별 작성 연도는 상이하며, 충청권 수치는 대전·세종·충북·충남 자료를, 권역 수치는 세부 지역 자료를 각각 합산하거나 별도로 산출한 값입니다.
- ☐ 본 자료에 수록된 수치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 되어, 합계 및 전년 대비 증감·증감률 등은 표에 제시된 수치로 재계산 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통계표 중 「-」는 해당 숫자 없음, 「0.0」은 단위 미만을 의미합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 ☐ 보도자료는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cc>)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새소식 → 보도자료 → 지역통계)

목 차

□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요약)	1
□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 주요결과	2
1. 인구·가구 현황	
1-1. 인구 규모	2
1-2. 인구 구조	4
1-3. 가구 규모	6
1-4. 외국인 현황	7
2. 인구 추계	
2-1. 연령 특성별 인구	8
2-2. 출생	12
2-3. 고령화 정도	13
3. 저출생·고령화	
3-1. 혼인	14
3-2. 고용	16
3-3. 사회 인식 지표	19

4. 인구 이동

4-1. 인구 이동 규모	21
4-2. 생애주기별 이동	22
4-3. 전입 사유별 이동	23
4-4. 충청권 인구 이동	24
4-5. 통근 인구	27
4-6. 청년층 정주 인식	29

5. 생활인구

5-1. 생활인구 현황	30
5-2. 체류인구 특성	33
5-3. 생활인구 유입·유출	35

☐ 통계표	37
------------------------------------	----

충청권 초광역권 인구 통계(요약)

□ 충청권 인구 현황

- 2024년 충청권 인구는 574만 2천 명으로 전국 인구의 11.1%를 차지함
 - 시도별 인구 비중은 충남(39.0%), 충북(28.7%), 대전(25.6%), 세종(6.8%) 순임
 - 권역별 인구 비중은 충남 북부권(26.5%), 대전(25.6%), 충북 중부권(20.1%) 등의 순임

□ 충청권 인구 추계

- 충청권 인구는 2022년 566만 명에서 2052년 551만 명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 청년인구^{20~39세}는 2022년 148만 명에서 2052년 81만 명으로 44.8% 감소할 전망이다
- 가임기 여성인구^{15~49세}는 2022년 123만 명에서 2052년 73만 명으로 40.8% 감소할 전망이다
 - 충청권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9명에서 2052년 1.22명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99만명에서 2052년 225만 명으로 126.4% 증가할 전망이다
 - 충청권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52년 40.8%로 약 23%p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전국(17.4%→40.8%)과 유사한 흐름임
 - 세종은 2030년 전후 고령 사회(고령화율 14~20%미만)에 진입 한 뒤, 2040년 이전에 초고령 사회(고령화율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 충청권 인구 이동

- 2024년 충청권 순이동률은 0.34%로, 최근 5년 연속 순유입을 유지함
 - 충청권과 타 시도 간 순이동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순유입을 보임
 - 충청권 내 시도 간 순이동은 세종의 순유입 규모가 감소(2020년 8,822명 → 2024년 1,800명)한 반면, 충남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2020년 -1,708명 → 2024년 1,402명)함
- 2023년 충청권 통근 유입은 경기(41.8%), 서울(20.4%), 전북(7.3%) 등의 순이며, 통근 유출은 경기(41.7%), 서울(29.3%), 인천(5.4%) 등의 순임

□ 충청권 생활인구

- 2024년 월별 생활인구는 충북 8월, 충남 10월에 가장 많음
- 전국 대비 충청권 체류인구 특성은 '타시도 거주자 비중'과 '평균 체류시간'은 높고, '평균 체류일수'와 '평균 숙박일수'는 낮음

